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15일 수요일(주간) 제 369 호



법석 초대 **대정 스님** 부산 법어사 선덕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100%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결국 한마음이 되어 진짜 공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1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외국인노동자에게도 가피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가 외국인 노동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잇달아 마련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경불련 등 불교NGO들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돕기 운동에 나섰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종교NGO네트워크는 26일 경기도 파주 스리랑카 근본불교 자비도량에서 불교·천주교·가신교 종교인들이 모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무료 진료 및 투약 봉사 등 행사를 갖는다. 이들 종교인들은 앞으로 컴퓨터, 한국어 교육 등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후원 사업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경불련은 1~2일 중앙승가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처님의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12일 연등축제에서 네팔불자들의 전통춤 공연 행사를 가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일깨웠다.

7일 창립된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는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미얀마 노동자를 위해 미얀마에 2300여평 부지의 무료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협회 산하에 직영여행사 등을 세워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위해 한글 교육 등과 인권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은 19일 '떤잔 물축제' 개최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서울 미얀마 선원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12일 연등축제에 참가했으며 서울 보리수선원은 19일 미얀마 고승 우야니따라 스님(시레구불교대 총장)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구미 남화사 외국인근로자쉼터는 12일 구미공단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풍물놀이, 한국음식 나누기 행사 등 개최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국장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 의료 사업 등 보다 장기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취재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부처님 일대기**

1. 불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자세히 안다 ②대강 안다 ③잘 모른다.
2. 부처님 일대기를 읽었다면 어느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①탄생 ②사문유관 ③출가 ④수하항마
⑤성불 ⑥초전법륜 ⑦열반

설문 참여: 5월 1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0호 35면에 싣습니다.

"여성불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수행·공부하는 풍토 확산

선방·불교대 수강자 2~3년새 10~50% 늘어
불교중심체로 자리잡아… 지원·교육 강화를

여성불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교양대학에는 수행과 공부하는 여성불자들로 넘쳐나고, 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기복적이고 소극적인 신행에 머물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듯 불교계의 다수를 점하는 여성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성불자들의 원력과 잠재적 힘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불교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토록 하는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달 초 본지가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각 30곳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시민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불자 2,707명 중 여성불자는 73.6%인 1,989명, 불교대학은 전체학생 8,849명 중 66.3%인 5,866명이 여성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선방과 불교대 모두 여성불자 수가 최근 2~3년새 10~50%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440여명 가운데 여성불자는 410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불자들의 수행과 경전공부 모임, 봉사활동 동아리도 눈에 띄게 느는 등 비람직한 신행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불자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치마불교'에 고정돼 있다. 본지가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좌담회에 참석했던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이현옥씨(동국대)·위정희씨(경실련)는 그 이유를 "불교계의 여성비하 풍조와 여성불자들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여성불자들이 불교의 중심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를 불교발전으로 견인할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학계 및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우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교계에 뿌리박혀 있는 여성 비하 풍조를 개선하고, 여성불자들의 의견이 사찰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종단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신행활동과 사회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도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변화하는 여성불자들의 욕구를 수렴할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월드컵 성공기원' 축구공 연등 물결 12일 15만여 불자들은 화려한 장엄등을 앞세운 가운데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부처님 마음으로 온세상에 자비와 평화가 넘쳐나길 기원하며 제등 행진했다. 일반시민들과 외국인관광객들도 대거 참여한 이번 연등축제에는 특히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2002개 축구공 연등이 물결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사진= 고영배 기자

연등축제 15만명… 나투신 뜻 기려

부산 대구 등 전국 60여 도시서 봉축행사

254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12일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연인원 15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식전 공연과 연희패 놀이, 연등축제 상징개막(구룡), 연등법회로 진행된 <어울림마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태고 천태 진각종 등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6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오신 뜻을 기렸다.

법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전통등과 월드컵 참가국기, 축구공등의 장엄물을 앞세우고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하여 조계사까지 제등행진했다.

제등행진 후 오후 9시부터 우정국로에서 풍물패가 흥을 돋우는 가운데 일반시민과 외국인, 행진참가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기원등날리기, 강강술래 등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이에 앞서 봉축위원회는 정오부터 저녁 10시까지 범패 외국인 등 만들기, 다도체험, 단청 및 불화, 선무도 등 50여개의 각종 행사를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11, 12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전 조국통일 서원"
남북불교계 공동발원문 채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기 2546년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공동채택하고, 5월 19일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독하기로 합의했다. ☞발원문 전문 2면 김원우 기자

"마음속 살아있는 여래 보라"

법전스님 등 각 종단 종정 봉축 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태고종 덕암, 천태종 도용 스님과 진각종 혜일 총인은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법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부처 성품을 일깨우도록 정진하기를 당부했다. 법전스님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여래를 봐야한다"며 "우리 곁에 있는 중생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설했다.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며 "무염청정하면 곳곳이 불국토"라고 말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때 부처님오신날의 등불이 환히 밝혀진다"고 했으며, 혜일 진각종 총인은 "진정한 행복은 자성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밝혀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설했다.

☞각종단 지도자 법어 8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 특집… 총 72면 발행

이번 주 369호 36면 발행

한국여성불교의 오늘과 내일
좌담 : '보살의 힘' 불교발전 원동력 3면
수행·공부하는 여성 늘고 있다 4면
지역 여성불자모임·불교와 페미니즘 5면
노무현·이회창 대통령후보 종교정책 7면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9면
해외의 부처님오신날 진풍경 15면
시방세계 :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 17면
화보 '연등축제 이모저모' 18·19면
불교학결집대회 이후 과제 24면
'우리 이렇게 초파일 맞아요' 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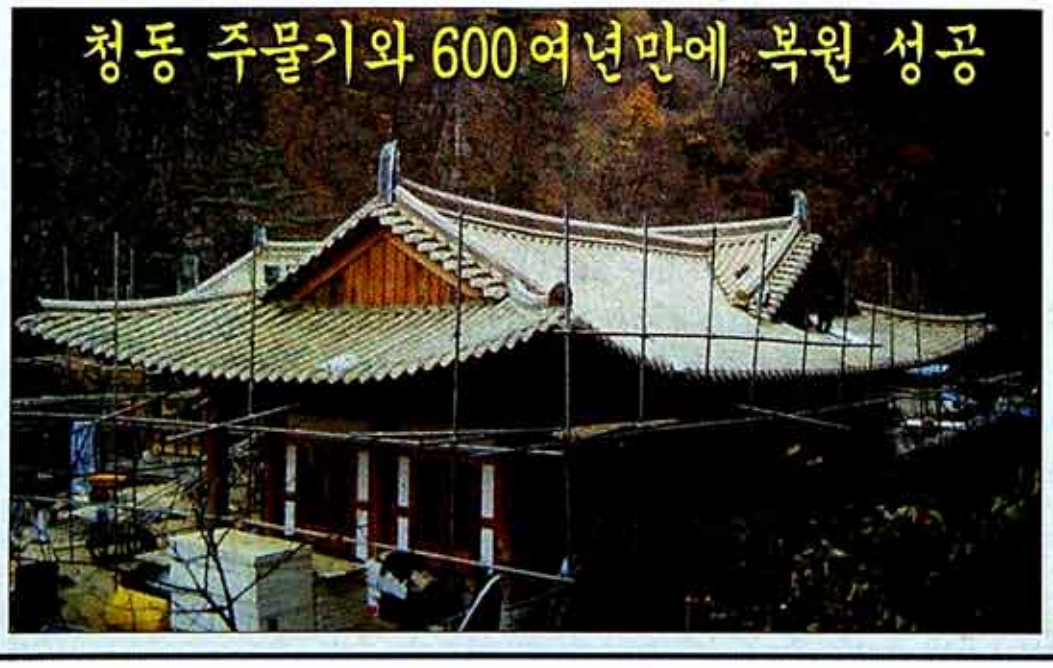
다음 주 370호 36면 발행

도법스님 특별대담 '한국불교를 말한다'
무엇이 한국불교 정체성인가.
한국불교, 변해야 한다.
각계각층 불자의 '부처님오신날에 쓰는 발원문'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타종교인들의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주한 외교사절 템플스테이 체험현장
새 기획연재 : 108 사찰 생태기행
화보 '천년의 미소로 오신 부처님'
IT업계를 뛰는 불자CEO
새싹불자와 함께 읽는 봉축동화

KBS '체험 삶의 현장' 방영

2002년 5월 19일(일요일) 아침 9시 KBS 1TV 방영

청동 주물기와 제작·시공 전과정 생생히 공개



◀ 설악산 오색석사 전경

주요시공내역

1995년 3월 경남 함안 인씨문중 재각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법어사(청련암) 대웅전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재각 시공
1997년 5월 정통 영각사 대웅전 시공
1997년 3월 경남 양산 법수원 시공
1997년 5월 인천 문수암 시공
1998년 8월 서울 삼계동 선각사 시공
1998년 11월 안산 화림선원 시공
1998년 11월 설악산 오색석사 시공
1999년 4월 영양 계은 동천사 시공
1999년 6월 신장 선법사 시공
2000년 8월 오봉산 석굴암 시공
2000년 10월 현리 백련사 시공
2001년 4월 울산등대 시공
2001년 10월 경주 감포등대 시공
2001년 5월 오봉산 석굴암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실용신안 9119053호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한식 쎄라믹기와 6월 출시 !!

- 국내 최저가 평당 20만원대 시공
- 동파 0%, 방수 100% 책임시공
- 두께 8㎜의 초경량 쎄라믹기와
- 압축강도 600㎏/㎠의 반영구적인 기와

청동주물기와·쎄라믹기와·한식기와·오지기와·돌기와

ISO9002인증업체

주신공영(주)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145
TEL | 031-793-4255
FAX | 031-795-3200
인터넷주소 | http://www.jooghin.co.kr
E-mail 주소 | jooghin@jooshin.co.kr

봉축사설

부처님 오신뜻 세계인과 함께

올해 2546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코드(code)는 곧바로 전 세계로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 세계 스포츠 제전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마치 그 전야축제처럼 온 국토에 연등을 밝히는 '부처님 오신 날' 문화 축전들이 그렇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이란 봉축 표어 또한 세계인을 향한 제의를 담고 있다.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널리 세계에 전하겠다는 각오로 진작부터 올해의 봉축 행사들을 여법하게 준비해 왔다. 봉축행사를 국민축전으로 승화 시키고 외국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불교문화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한편, 사부대중의 자비 실천 행사로 믿음과 신행의 본보기를 세계에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니, 세상의 고통을 내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저 유명한 부처님 탄생게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 의미가 더 빛나고 있음인데, 지난해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는 갈등과 대결로 치달아 인류는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으며, 국내 사정 또한 극한 대립을 불러 고통을 불러 오고 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부패한 권력으로 썩어가며 병들고 있는 세상,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오늘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은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 이제 밖에서 찾을 것 없으니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래를 봐야하며 귀천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고 밝히고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일이요, 중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는 길' 이라는, 뜻깊은 메시지를 내 놓았다. 우리가, 아니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변화해야 병들고 혼탁한 세계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할 것이다.

'오늘은 중생이 부처로 탄생 되는 날.' 그렇다. 부처님의 대비심은 아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다. 우주 삼라만상을 그 대비심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 부처님은 지금도 자비의 눈물 흘리시며 우리들에게 마음속 부처 성품을 불러일으키도록 일깨워 주고 계신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래를 보라' 고. '그 여래는 동체대비의 마음이며 동사섭이 아니겠느냐' 고.

그래. 오늘 우리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날이다.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탄생은 희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고통 받는 매일 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 모든 중생 스스로가 부처로 거듭 나게 되는, '중생이 부처되는 날' 이 오늘인 것이다. '인류 평화의 성취' 란 공안 역시 여기서 해법의 열쇠를 찾을 것이다.

올해 봉축 기간은 한국불교가 부처님 오신 뜻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온 국토에 연등을 밝히고 천년을 이어온 수승한 문화전통을 세계인 앞에서 펼쳐 보이는 장엄한 행사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독특함으로 빛나는 한국 불교문화를 불자들의 애정과 자부심으로 국제무대에 올려 이를 세계 문화의 보편성에 편입되도록 노력하는 일 역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뜻을 세계 속에 구현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 그 사부대중들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나타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믿음을 낸 사람들의 솔선한 행증의 증거, 보살행의 증거가 없고서야,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중생이 부처되었음' 을 보여주는 변화의 증거가 없고서야 사람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어찌 부처님 오신 뜻을 올바로 전해 줄 수 있겠는가.

올해 봉축연등을 밝히면서 '중생이 부처되는' 그런 서원들을 세워보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예술·포교 전문인력 양성 기틀 마련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설립' 종령 공포

시설설치 · 폐지 교육원회의 의결 거치게
학장은 승랍 20년 학부이상 학력 승려로

조계종이 불교예술과 포교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일 종무회의를 열고 교육원이 상정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을 원안 그대로 확정, 공포했다.

이번 종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계종은 문화 · 미술 · 건축 · 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와 방송 · 언론, 정보화 분야 및 포교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종법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이를 설립할 수 있는 시행령(종령)은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설립 및 운영은,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 기회 및 분야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시대흐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령 제정안을 마련한 조계종 교육원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목적 외에 3급 승가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특수교육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필기고사로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에 적용될 '특수교육기관을 이수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는 조항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스님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에 따르면, 시설 설치 및 폐지는 교육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일반 교육기관을 종단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특수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과 전문가에게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학장은 승랍 20년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부이상 학력의 승려로 제한했으며, 교수는 승랍 15년 이상으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승려나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재가신도로 자격을 한정했다.

하제는 2년 4학기로, 한 학기 16주 이상의 수업을 받도록 했으며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원 전형근 차장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 하고자 부처님께서 오신 뜻 깊은 이 날을 맞아 남과 북의 전체 불자대중은 부처님 깨달으신 진리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한마음 기울여 남북 각지 사찰들에서 동시법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들의 간절한 통일소망과 의지를 담아 부처님 전에 이 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내 나라 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민족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행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삼천리 내 조국강토는 겨레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남과 북 불자 모두의 영원한 불도량입니다. 이 신성한 조국 땅에서 더 이상 동족끼리의 갈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공멸을 불러오는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

통일에로 가는 길 험난하여도 6.15공동선언의 합의아래 하나로 뭉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가로 막을 힘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통일된 조국, 현세의 지상정토가 일어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불심 화합하여 그날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두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월드컵 목전, 화합 모습을"

7대 종교지도자 '정쟁 중단 촉구' 호소문 발표

2002년 월드컵 개막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종교계가 여야 정치권에 무분별한 정쟁의 중단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천주교 중앙협의회 김종수 신부, 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목사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은 8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 모여, 월드컵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단합하자는 '대 국민 호소문' 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국가대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가 다툼의 모습을 버리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소문을 통해 종교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월드컵 기간 동안의 정쟁 중단, 각종 비리사건의 임정한 수사, 노사화합 등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스님들이 신계사터에서 봉축법회가 끝난뒤 탑돌이를 하고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보성 · 현성 · 지오 · 학담 스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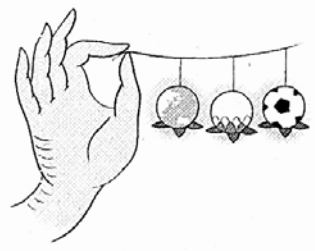
금강산 신계사터서 봉축법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가 5일 북한 금강산 신계사 터에서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해인사 강주 지오스님, 학담 · 진원 · 법종 · 법성스님(이상 조계종 종회의원), 총무원 사회국장 혜림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등달기, 점등행사, 탑돌이 등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을 염원했다. 강유신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평화·화해의 세상 만들자"

기독교회협, 봉축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7일 부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축하메시지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다툼과 분열이 없는 화해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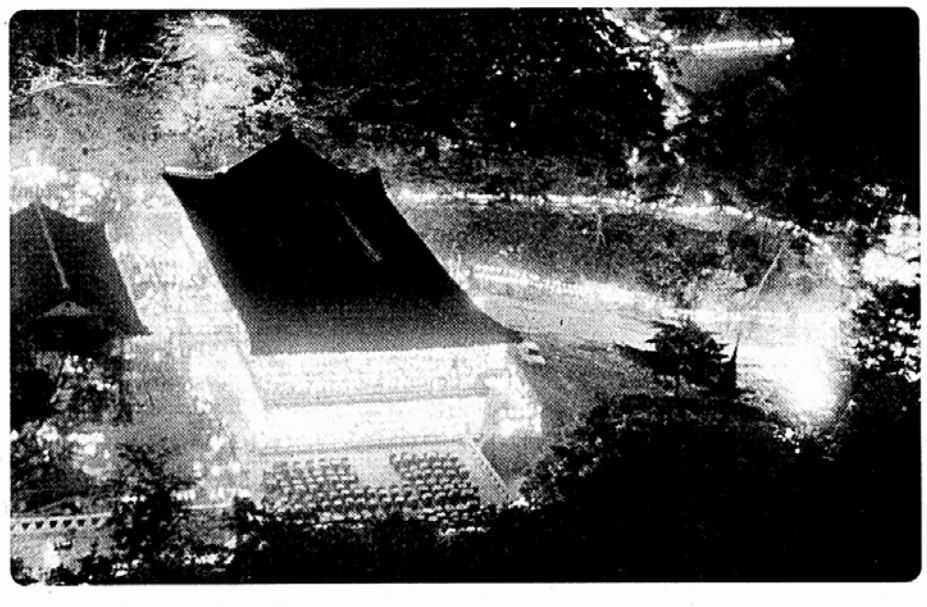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뛰어난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취재과정에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삼각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정화의 횃불을 밝히시고 중생제도의 원력을 세우신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이 숨쉬고 있는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제방의 여러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주지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6년 5월 23일(음력 4월 12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전 화 : 02)993-3161~3 FAX 02)993-3164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취임식 봉행위원회

좌담

한국 여성불교 오늘과 내일

조계종에 등록된 신도 중 여성불자는 67%로 남자신도의 두 배가 넘는다(2001년 12월말 현재). 불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의 신행은 곧 한국불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복에 치중하고, 공익적 역할이나 기여도가 미미한 점을 교집어 '치마불교'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불교발전을 위한 힘으로 개발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성태용 교수


이현옥 씨


위정희 씨

참 석 자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
이현옥 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위정희 씨(경실련 회원사업국장)
일 시 : 2002년 5월2일
장 소 : 본사 불교사랑방

'보살의 힘' 불교발전 원동력으로

성태용: 보살불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국불교를 지탱해온 힘은 바로 보살불교다. 한국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모습이다. 사실 여성불자들은 남성불자들보다 사찰 일이나 사회활동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기복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치마불교'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성불자들의 탓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책임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이래 불교는 사찰 건축 위주의 불사에 지충했지, 불자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없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신행활동상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수 점하지만 위상 정립 안돼
피동적 역할 교계 전체 책임
종단차원 조직화·인재 양성을

위정희: 한국불교를 치마불교나 보살불교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종교성을 살피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사찰들은 여성들을 신도로 끌어들이고 불사에 이용만 했지, 여성성을 개발해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가톨릭의 경우 교리교육현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마불교와 같이 여성들을 깎아 내리는 말은 없다. 교육과 문화 분야 등에서 여성들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서 여성 신도들은 마음껏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도 이렇게 여성성을 적극 개발한다면 여성불자들의 힘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이현옥: 불교계에서 여성불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사찰에 강의를 나가보면 여성불자의 신심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실 여성불교의 정체성과 관련해 학회나 언론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성태용: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비해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동적인 존재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개념이 바로 서야 한다. 지금은 재가자와 출가자의 역할 분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여성불자와 남성불자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이현옥: 불교계의 여성 비하는 부처님 뜻이 아니라 후대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풍조는 여성불자들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국불교 역사를 보면 불교계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비구니 스님의 역할은 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스님을 비하하는 풍조에 대해 반대의 견이라도 내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제는 재가불자가 비구니 스님 위상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성태용: 불교처럼 여성을 남성의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는 종교는 없다. 부처님은 여성 출가자를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부처님 당시의 정신을 반영한다면, 현재의 승단 풍토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승단 자체에 남녀불평등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불자들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좌담자들은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불교발전을 위한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젊은 여성 줄어 … 참여프로그램 개발해야

이현옥: 대만 불광사의 경우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자기 위치에서 서로 조화롭게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찰 운영은 비구니 스님이, 전체적인 총괄은 비구 스님들이 하고 있고, 비구니 스님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한국불교 속에 남녀차별의식이 내재돼 있지만 비구니 스님의 독립적인 종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뿐이다. 다만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득세하고, 가부장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

위정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사회분위기에 억눌려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논란이 됐던 정부의 여성부 신설문제가 지식인층에서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1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주요 시민단체들조차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 구조자체가 여성의 의사결정참여를 배제하는 가부장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태용: 일반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여성불자의 위상은 그보다 더 낮다.

이현옥: 사실이다. 여성불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구니 스님의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구니 스님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계종의 경우 종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각급 여성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성태용: 물론 제도적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불자들의 자각과 함께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불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비구니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 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이 형성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정체성 확립 위한 공론화 필요
다양한 교육책 장기비전 제시
승단 남녀 불평등 풍토 개선되길

위정희: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성불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은 교육은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일단 어렵게 교리를 설명하다보니 쉽게 이해할 수 없고, 40~50대 어머니들이 피교육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교육기회도 많지 않다. 쉽게 말하면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불교와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만을 키울 뿐 신행생활과 사회에 적용할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여성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이 반드시 연구되고 보급돼야 한다.

또 하나, 20~30대의 젊은 여성층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다.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중장년층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뿐 젊은 여성층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여성불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패기있고 의욕이 왕성한 젊은 여성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태용: 이제는 종단차원에서 여성불교를 조직화하고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단순히 몇몇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불자가 곧 불교의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불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중앙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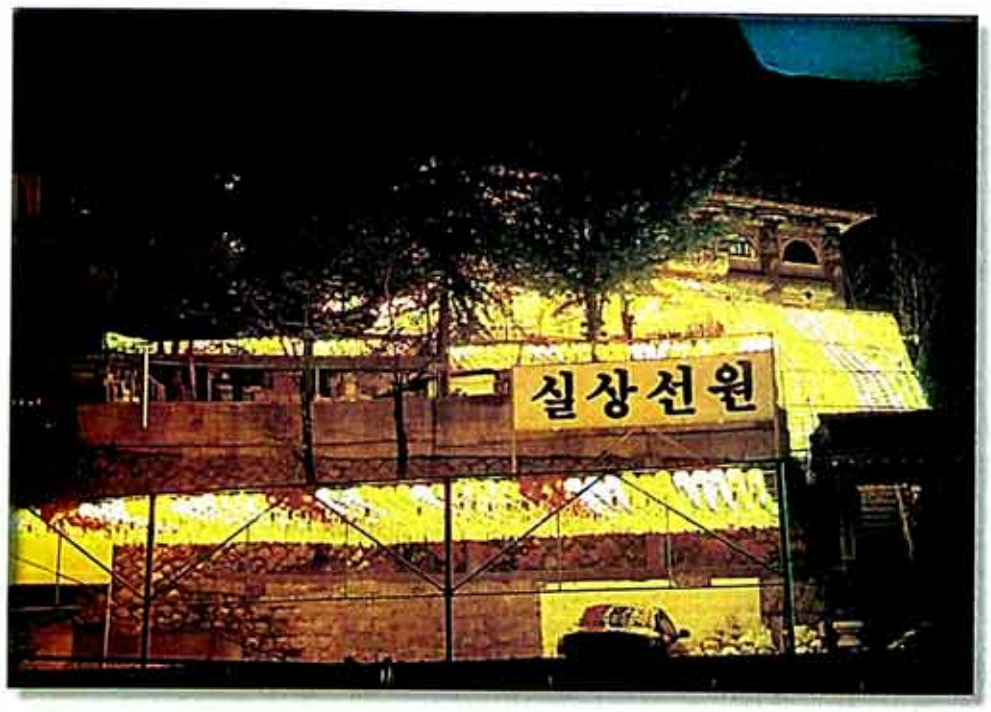
또한 재가운동차원에서도 여성불교활성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당장 승단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승단이 여성불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재가불자들이 먼저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미 자원봉사 등에서 여성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불자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현옥: 비구니 스님 강원이 있는 곳에 전문연구소를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불교에 대해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성불자들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와 폭넓은 활동영역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정희: 여성불자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의식화되고 있는지를 모든 불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 언론의 사명은 막중하다. 언론은 여성불자와 재가불자의 활동과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면과 프로그램을 적극 할애해 생활불교와 실천불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어두운 곳에 연등의 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 축 사**

선 원 장 성환
주 지 종일, 일광 총 무 곽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서정석, 박공례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02) 745-8503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 734-2680

참선·불교공부 여성 늘고 있다

시민선방 74, 불교대 66% 차지

본지 조사

'치마불교'. 이 말은 시주금이나 내면서 기복적 신행생활을 하는 여성불자들과 그런 불교의 현실을 동시에 비하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수행과 공부에 관한 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던 여성불자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과 불법공부의 중심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지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각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불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민선방 73.6%, 불교대학은 66.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종교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54.2%, 전체 불교인구 가운데 여성불자가 58.1%라는 1999년도 통계청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모두 최근 2~3년새 여성불자가 계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복불교=여성불자'라는 오랜 통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문을 열어놓고 있는 30개 시민선방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는 2,7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여성불자는 전체의 73.6%인 1,989명으로, 남성불자의 3배나 됐다.

이 가운데 부산의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해운정사, 대구 홍제사, 경기 도피안사 등은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70% 이상인 곳만도 8곳이나 되는 등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보다 많았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시민선방을 찾는 여성불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여성불자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뿐으로, 수행하는 여성불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에 등록된 30개 불교대학에서도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3%로 남성불자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개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자는 모두 8,84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불자는 5,866명이었다.

이들 불교대학 중 남양주 봉선사불교대학, 창원 불지불교대학, 대구 직지불교대학과 경북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원, 서울 봉은사불교대학 등은 전체 학생 중 여성불자가 90%를 넘었으며, 남성불자가 많은 곳은 서울 동산불교대학 등 5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성불자가 많은 곳도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 되는 등 전체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여성불자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여성 성불할 수 없다" 관념 사라져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자' 신행관 확산

한국불교 바꿔 나가는 주역 자리매김

불교대학에서의 여성불자수는 6곳을 제외한 24곳에서 최근 2~3년새 10~40%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남녀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하면 실제로 여성불자수가 감소한 곳은 3곳뿐이다.

이렇게 수행과 공부하는 여성불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진 데다,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겠다는 신행관이 여성불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 시민선방에서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혈스님은 "사회의 남녀차별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여성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런 여성불자들은 앞으로 계속해 늘어날 것이며, 이들이 곧 불교의 모습을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수행·공부하는 여성불자들

"佛法 알고 나니 생활 즐거워"

일주일 단식·장좌불와 등 쉼없는 정진 앞장

5월 4일 해인사 원당암을 들어서는 법복차림의 보살들이 예사롭지 않다. 며칠 계속된 비로 푸름을 더한 초목을 배경으로 그들의 법복 빛이 더욱 짙다. 원당암을 들어서는 보살들의 행렬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진다.

"오늘은 달마선원 특별정진 날이에요.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참선 정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날이죠."

성남에서 왔다는 본심행(69) 보살은 친절하게 일러주고 한마디 덧붙인다. "20년 동안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공부재미가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인연 지으면 그게 바로 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전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에 의해 개설된 재가선방인 달마선원은 1996년 문을 연 이후 생활 속에 불교수행의 요체를 전하는 전국 제일의 재가선방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하안거 동안거에 100여 명씩 결제를 하고 있으며, 매 안거마다 250명이 넘은 인원이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용맹정진은 일주일간 단식, 장좌불와, 하루 17시간의 참선 등 화두타파를 위한 혹독한 수행이 이어진다. 산철인 요즘에도 103세인 광명화 보살을 비롯 20~30명의 대중이 달마선원을 떠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매월 1, 3주 특별정진날이면 4~5백명의 불자들이 부산, 대구, 밀양,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이들 중 90% 이상이 보살들일 정도로 달마선원의 보살 파워는 막강하다. 보살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던 이송운 거사는 "보살님들이 대단하다"며 "수행에도 철저하고 또한 생활속의 실천이 투철한 분들이 많다"고 혀를 내둘렀다.

10년 전부터 달마선원과 인연이 된 김지혜심 보살(62·밀양)은 "아픈 다리,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며 내 근본심을 참구하다 보니 지금은 힘든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김 보살은 "불법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 바깥으로 구하고 복을 빌던 마음이 없어져 생활이 아주 편안해지고 남을 절로 이해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런 삶의 변화는 정진을 멈출 수 없게 하는 힘이 되어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발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김 보살은 굳게 믿고 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마선원을 찾은 보리수 보살(39·창원)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행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고 불교의 바른 수행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왔다"며 "스스로 참구하고 의문을 풀고자 하는 수행 정진만이 부처님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딱! 딱! 딱! 세 번의 죽비소리가 '부처를 가려 뽑는다'는 선불당(選佛堂)을 울리자, 빼곡히 앉은 보살 선객들의 눈동자는 내면을 향해 깊어진다. 선불당 주위를 감싼 어둠과도 같은 '이 뭣고' 알 수 없음의 의심덩어리. 다시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점의 번뇌망상마저도 일지 않는 해인삼매의 각처를 이룰 때까지 어둠을 몰아내는 선불당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대들보인 보살들의 쉼 없는 정진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해인사 원당암= 천미희 기자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에서 참선에 든 여성불자들.

달마선원 여성불자들



◇서울 금강선원 정수회 회원들이 모여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다.

여성불자 공부 모임

금강선원 정수회

매주 월·화요일 이틀 금강경·영가집 공부

우리는선우 법화경 모임

월 1회 모여 공부에 대한 의견 나누고 사경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선문장(禪門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여성불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난다. 허리를 곧추 세우고 가부좌를 튼 이들은 금강선원 정수회(正受會) 회원들.

금강선원 정수회(회장 김은민)는 경전공부와 참선 수행을 펼치는 30여명의 여성불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삼매'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정수회라는 이름은 금강선원 원장 혜거스님이 용맹정진을 하라며 특별히 지어준 이름이다.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강선원에 모여 참선과 금강경 독송, 영가스님의 어록을 공부한다. 금강경과 영가집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원각경과 신심명을 공부했다. 모임이 있는 날 시간이 날 때마다 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공부를 점검한다. 월 한차례는 강원도 홍천의 폐교에 마련된 선문장에서 집중적인 수행도 한다.

금강선원에 모여 공부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공부는 오히려 자기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수회 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들은 가사에 쫓긴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제약은 수행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정수회 김은민(52) 회장은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생활과 주위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불교계에 더 많은 공부하는 모임이 생겨 기초가 튼튼한 불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는선우 법화경 공부모임(강주 남지심)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는 30여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경전 공부모임이다.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50대의 여성불자들이다.

법화경 공부모임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때면 함께 나누고 의논하기 위해 올해 1월 남지심 국제선우회 회장 주도로 결성됐다. 하지만 지금은 경전 삼매에 빠져 있을 정도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수복 팀장은 "올바른 신행생활과 불자로서의 참된 자세가 바로 경전공부에 있음을 회원들은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공부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눈다. 또 경전공부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사경도 병행하고 있다.

회원 개개인이 모두 재적사찰을 갖고 있는 법화경 공부모임은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이끌고 있는 유마경 공부모임과 함께 우리는선우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부모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봉축

-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

온 누리에 우담바라피는 정토 이루게 하소서!

청정삼보전에 합장 귀의하옵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원로 대덕스님께 보체청정하심을 문안드리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비와 평등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하심이니 실로 그 크신 뜻에 귀의합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호국과 호법을 기치로 국리민복을 위해 그 법력을 경주하니 호국대찰 황룡사가 있고, 전생 현생의 부모님께 효성을 기울이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국가를 튼튼히 하고자 민의를 모아 부처님의 금구명언을 목판본으로 만들어 인류역사에 빛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선포되었습니다.

조선조에는 임진왜란 당시 서산, 사명, 기허선사로 이어지는 호국승장이 풍전등화속의 조국을 법력으로 건졌으며, 일제 36년간에는 만해와 용성선사가 부처님의 법으로 무장하여 독립투쟁에 헌신하였으며, 선학원과 대각회를 만들어 삼보정재를 지켰습니다.

소생의 엄친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불교의 호국사상을 통찰하시어 불국사와 법주사 등 부처님 도량 재건불사에 정진하셨고, 모친 육영수 여사는 청담스님으로부터 대덕화 라는 법명을 받고 서울 삼각산 도선사 중창불사의 원력을 세워 부처님 조성과 가람재건에 진력하셨습니다.

저는 양친의 불교신앙정신에 감읍해오다가 이번에 당리당략과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는 현 정치를 과감히 바꿔서 부처님의 호국사상에 근간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이 초파일에 광명으로 밝혀지는 부처님의 연등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지혜로, 불행을 행복으로 어둠을 법등으로 밝히는 전국 2천만 불자들의 그 신심에 감사드리며, 저도 불국정토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원력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이방본(民而邦本)임을 깊이 인식하는 불국정토를 위해 기도정진을 실천하여야 하며, 불초 소생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전국민이 우담바라 피는 화장세계를 이루시라고 불전에 분향 합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래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박근혜 합장

포교·봉사·환경보호에도 앞장

'佛法 면면히' 어린이포교 서원

관음사 어린이법회 **한순옥** 지도법사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사당동 관음사(주지 종하) 법당. 지도법사 선생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인다.

한때는 한 명의 어린이 불자도 없던 관음사에서 1백 명이 넘는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는 한 여성불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한순옥(45 · 서울 석관동) 보살.

10년 전만 해도 한 보살은 일상생활을 꾸리기에 바쁜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성적인 군포교 활동을 하는 노보살을 만났고, 이에 감동을 받은 한 보살은 법보시 서원을 세우고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한 보살은 이렇게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후 한 보살은 지난 2000년 관음사 어린이법회를 꾸리기 시작, 지금은 포교사들 사이에서 관음사 어린이법회를 만든 산증인으로 통한다.

한 보살이 어린이 포교에 열성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관음사에 포교를 위해 갔을 때 어린이 불자가 한 명도 없더군요. 이러다가 우리 대에 불법이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 포교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한명도 없던 법회 이젠 1백여명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우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한 보살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기본적인 어린이 포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 보살은 이런 어려움을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극복해 냈다. 포교사 도반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발바닥이 닳도록 찾아다녀 찬불가 부르기, 레크리에이션, 태권무, 동시낭송,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주변 여성 도반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매달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도 열고 있다.

"엄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하다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여자에게 훨씬 적합한 일이 아닐까요."

강유신 기자



◇법호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한순옥 보살(가운데)이 불교공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모임

노인들 끼니위해 매일 도시락 115개 준비
논산훈련소에 법당마련 군포교 지원
쓰레기 줄이기 · 사찰주변 꽃 · 나무 심기

현재 각 지역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싸기에서부터 군포교, 복지활동, 환경보호운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의 모임이 있다.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신행회(지도법사 현장) 회원들은 매일 115개의 도시락을 싼다. 전남 광주 지역의 임대아파트 등에 살면서 끼니를 잇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을 보내지 못하는 주말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찾는다. 또한 해마다 두 번 씩 실시하는 석 달 과정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살펴 주기도 한다.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비신행회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활동 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전 등불회

대전지역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모임 등불회(회장 엄정래)는 매주 주말이면 고아원이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쌀 등의 부식을 전달하고 그곳의 허드렛일을 도와준다. 등불회 회장인 엄정래 씨는 최윤희 무용단에 소속된 무용가이기도 해 노인잔치 같은 사찰 봉사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선보여 왔는데,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감호소에서 문화행사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

논산훈련소 불자장병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어머니회(회장 김평년)는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꾸준히 이어져온 모임으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법회를 한 번 열 때마다 500~600여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군장병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 오늘도 주말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명성여고 불교어머니회(수심회)

'종교'를 통해 아이들과의 더 많은 대화와 사랑을 나누는 명성여고 불교어머니회 수심회(회장 이미자). 수심회의 자녀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소 틈틈이 염주를 만들어 나누어주기도 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년에 두 번 장학금을 전달한다.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는 150여명의 수심회 회원들은 주말이면 근처의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경기도 고양시 보현가족

고양시 여성불자 모임인 보현가족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이면 정성스럽게 마련한 간식과 염주, 불서 등을 가지고 9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인 '늘푸른 법당'을 찾는다. 평일에는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의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어 부모님처럼 돌보고 있다. 지난해 20명의 보현가족 회원 중 10여명은 연꽃마을에서 진행하는 호스피스 과정을 수료하고 간병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서울 경불련 불교환경어머니회

'가정을 지키는 주부 불자들이 환경도 지키겠다'는 뜻에서 결성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위원장 정혜옥)는 폐식용유로 제작한 생태 비누를 나누어 주고 '생활 쓰레기 줄이기', '사찰 주변에 꽃 · 나무 심기' 등 사찰이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북한산 사찰주변의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은 물론 일년에 한번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회장 강순희)은 96년 '관음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두 차례 인문고와 실업고 각 1개교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한국청소년교육협의회의 요청으로 1박 2일간 진행되는 청소년 예절교육의 보조교사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과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마산 · 창원 금강자비회

'나누는 기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금강자비회(회장 노화순) 회원 100여명은 마산 결핵요양원에 매월 후원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저소득층과 소외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와 페미니즘

이혜숙(동국대 교수 · 사회복지학)

특별기고



불교와 페미니즘(Feminism), 왜 오늘날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가. 필자가 대학에서 〈불교와 여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개강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백지를 주고 그 과목에 대한 소감이나 기대를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불교와 여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예상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교와 페미니즘'이라는 본고의 제목에 일부 독자께서도 어쩌면 비슷한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마치 여성해방 전사들의 선동 전략을 가르치는 것쯤으로 오해되는 경향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여성연구가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익을 회복하고 보장받으려는 목적의 여권운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 가운데서도 마치 평지풍파(平地風波)를 보는 듯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페미니즘이란 결국 몇몇 여성들이 '사내'처럼 싸워서 어떤 특혜를 얻으려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종래의 인간관 · 세계관이 보다 근본적으로 내용의 전환이 필요함을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는 실천철학이다.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주로 경쟁과 독점 · 차별의 속성을 가져온 인류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진단과 처방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가지는 바로 그런 가치 지향 때문에 필경에는 불교와 만나게 되어 있다고 본다. 불교는 만인평등과 무차별을 가르치고 상의상관적 공생과 회향을 가르친다. 석존께서도 예컨대 당시 인도사회에 오랜 전통이었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과감히 계급해방과 아울러 모두에게 공통된 도덕적 행위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경영전략이라고 회자되는 '상생(相生)'의 원리나, 전문가들이 개진한 세계전망 가운데 3대 화두가 '여성 · 환경 · 시민사회'라는 것과 관련해서, 필자는 그 모두가 불교적 세계관의 지표들이라고 생각한다. 즉, 환경과 인간의 상생은 이미 불교적 중생개념에 속해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상생은 승가이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상생은 그 몸이 단지 인연따라 지어진 것(因緣所造色)이라는 불교적 정체성으로서 성(性)역할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게 한다. 이렇듯 새롭게 강조되는 가치관들이 여성주의(feminism)적인 것이며 또한 본래 불교적인 것이라고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는 특히 여성 관련의 설명들이 일관되지 않고 더러는 상충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여성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교설은 규범적이고

여성잠재력 활용 불교계 혁신을

도 경험적인 설명으로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범상으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험상으로 그만큼의 수행을 다하지 못하면 역시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여성도 중생일 뿐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불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본성을 깨우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페미니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성만을 인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남성과 함께 가는 올바른 세상의 원리이고자 한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불자로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불교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그에 통하는 여성주의(feminism)라는 시대적 방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간에 별나게 드러내지 않고 불교계를 지켜온 많은 여성불자들은 자기 잠재력에 여성주의적 자각을 더함으로써, 한국불교계와 온 세계의 혁신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봉축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 평화 성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제 16대 대통령후보 이 회 창

한나라당불자 국회의원 : 김태호, 김진재, 하순봉, 정재문, 김기배,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김용갑, 이상배, 이원형, 이해봉, 임진출,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최돈웅,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 한나라당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 한나라당 도움전화 : 전국어디서나 ARS 700-2021 한통화에 1만원의 정성으로 세상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의 딸들
국경·종교의 벽 허문다

7월 11~18일 대만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

국제불교여성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일명 '붓다의 딸'(Sakyadhita)은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량'을 주제로 7월 11-18일 대만 타이뻬이 화범대학에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7차 대회의 핵심의제는 '어떻게 지구촌 여성들이 상호협력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국경과 문화, 종교영역을 넘어선 교류를 통해 예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여성 불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10개 소주제 선정 분과별 토의

세계 각국의 여성 불교학자와 수행자, 사회운동가들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번 대회는 10개 소주제를 갖고, 분과회의를 열어 논의의 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주제는 △세계의 불교 여성에 대한 이해 △대만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 전통간의 대화 △세계 종교간의 대화 △수행과 일상의 실천 △불교학과 수행 △세대간의 대화 △상호이해와 중생구제 △전통과 현대 △남녀간의 상호이해 등이다.

이번 행사는 국제불교여성협회와 화범대학이 공동주최하고 국립대만대학 불학연구센터, 화범문교기금회, 보리문교기금회가 후원했다. 11일부터 개막행사(대만대학)와 제1회의(화범대학)가 열리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각국 불교전통의 소개 및 좌선, 논문발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된다. 17일부터는 폐막식에 이어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2000년 2월 1~7일 네팔 룸비니 고타미사원에서 '개인, 가족, 사회, 세계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사키야디타 대회. 동국대 교수인 해주 스님과 운월 스님 등이 참석, 논문을 발표했다.

佛法 통한 세계평화 여성역할 강화 모임

사키야디타란

국제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야디타의 '사키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고, '디타'는 범어로 딸들이라는 뜻이다.

사키야디타는 남방 불교권인 스리랑카의 재가여성 라자니, 태국의 불교학자 차슈만 카빌싱과 독일 출신으로 스리랑카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 아야 케마, 미국 출신으로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렉시 쏘모 등에 의해 1987년 2월 부처님의 성도지인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결성됐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으로 세계평화 증진, 여성불자들의 정보교환체계 형성, 다양한 불교전통사이의 화합과 이해증진, 여성의 교육과 수행시설의 개선과 개설, 불교에서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시작된 모임이다. 특히 서양의 비구니들과 비구니 승단이 없는 남방 불교권 여성 불자들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려는 원력을 갖고 있다.

'사키야 디타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현재 회장은 스리랑카의 여성 불자인 라자니이고, 부회장은 일본 여성학자 코코이다. 주소=http://www.sakyadhita.org

나라별 여성불교 현황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으로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이다. 대부분의 여성 수행자들은 남성 수행자들에게 의존상태에 있거나 통솔 지휘하에 있다.

서양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적극적인 서양 여성들이 각 나라를 직접 방문, 전통과 수행법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가장 많이 귀의한 곳이 티베트 불교이다. 부분적으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한국 일본 등에도 귀의하였지만 그 숫자는 미미한 편이다. 동남아 불교는 대부분 부처님 초기 가르침을 계승해 계율이 엄격하며, 심지어는 비구니 승단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려는 입장이다.

비구니 승단이 없는 곳은 네팔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불교국가들이다. 오히려 서양 비구니들은 한국 대만 등을 통해 비구니계 수계를 받아가고 있는데, 불교를 생활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구니 승단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성 출가자들은 이제 대승불교국들처럼 비구니 승가를 세워 사회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 위상이 높고 비구니도 선방에서 수행까지 할 수 있는 한국불교는 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키야디타가 조직된 후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대만, 한국 등 대승불교권에서 비구니 수계를 받아 갔으며, 공부와 수행에 전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여성 수행자가 없고 캄보디아는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지원자가 너무 많다. 태국은 비구 스님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통제와 간섭이 있으며, 여성 수행자에게는 보조를 해주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고,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다.

네팔 등 전통 불교국 비구니 승단없어
비구니 선방 운영 한국 동경의 대상

한국의 비구니 승단

현재 조계종의 스님은 약 1만 2천여명이며 그중 절반 가량이 비구니이다.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 등을 포함하면 7천여명에 이른다. 매년 안거를 나는 선원은 전국에서 87곳으로 1700여 납자들이 정진을 한다. 이중 비구니 선원은 32곳이고, 700여명의 비구니들이 안거에 듭고 있다. 기본교육기관(지방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기초선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수는 비구와 역직 종무원 이상의 자격은 거의 다 비구에 한정되고, 전체 비구니의 종무행정 참여나 교단내 지위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비구니 종회의원이 총 81명중 10명인 것이 단적인 예다. 근래 들어 비구니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두드러지면서, 비구니의 현실적 열망에 걸맞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비구니계에서 사키야디타 회의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91년 10월 25~29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다양성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차 대회부터였다. 당시 전국비구니회 회장이었던 고(故) 혜춘 스님과 묘엄 스님, 상덕 스님, 현주 스님, 일연 스님, 대우 스님 등 비구니계 원로 및 중진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후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매회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비구니 승단을 소개하고, 비구니 계단이 없는 나라의 비구니 계맥 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원 32곳… 보문종 포함 총 7천명
2회 방콕대회 때부터 대표 파견

사미를 합해서 850여명, 비구니와 사미니는 900여명에 달한다. 이외에 전문교육기관(대학원, 율원, 학림)에서 정진하거나 종무행정, 사회봉사(70여개 복지기관)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는 여타 불교국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행과 의식, 종무활동을 비구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구니가 각 분야에서 수행과 교화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구에 비해 차등적이고 제한되는 면이 적지 않다. 종단기구의 주요 교

주요 여성불교 사이트

■ 티베트여성협회의 친구들

티베트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이하 TWA)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결성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을 두고 있다.

TWA는 티베트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베트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티베트 및 망명중에 있는 티베트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권한 획득 △교육 출판을 통한 티베트 문화전통의 보전과 이해 증진 △후원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과 어린이, 스님, 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등이 있다. 주소=http://www.fotwa.org/

■ 불교여성운동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홍보하고 호소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들 중에는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여사,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여사 등 사회운동가들의 동정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베트의 비구니스님을 지원해주는 '나르조마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인 여성불자 줄리아 밀톤이 인터넷에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 홈페이지를 선정, 수여하는 '달마 링'을 받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여성불자 수계식 및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이 있다. 또한 △'상좌부 여성 작가'에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베트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 중에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주소=http://members.tripod.com/~Lhamo/

■ 세계의 여성 불교인

'세계의 여성불교인'은 영국의 랭카스터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사이트로 비구니스님, 학자, 수행인, 사회운동가로서 동시대의 여성을 이끌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프로필과 최근 동정을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인물정보는 세계각국의 총 26명이다. 이중에서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미얀마), 틱낫한스님(베트남)의 제자이며 불교환경운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조안 헤리펙스(미국),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큰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벨 훅스(영국)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불교와 여성'이란 메뉴를 통해 각국에서 개최된 여성관련 학술 및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소=http://lhamo.tripod.com/1activ.htm

■ 티베트 여성 수행센터

'티베트 여성 수행센터'는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 스님인 텐진 팔모 스님이 이끄는 여성 및 비구니를 위한 수행센터다.

1999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동규 겟살 링 사원을 창건한 텐진 팔모스님은 네팔, 티베트, 인도지역에서 온 여성들을 지적, 영적으로 교육시켜 우수한 비구니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와 책 등 교육여건이 빈약한 이 지역의 여성들과 비구니들은 사원이나 가정에서 하인처럼 일만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텐진 팔모스님은 이들에게 불교 철학과 수행, 티베트어, 의식, 영어 등을 공부시켜 불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그들 중 일부에게는 전통 불교미술과 재봉 기술을 배워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불교용품과 미술품, 불서 등을 살 수 있는 간단한 쇼핑몰을 갖추고 있다. 갯살 뉴스레터를 통해 텐진 팔모 스님의 법문과 수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주소=http://www.tenzinpalmo.com



봉축 불기2546년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

한결 같지만 늘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수행 아닌 게 없다는 가르침은
학문의 세계에서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자기완성을 꾀하는
인본주의 가르침,
따스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정신이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대학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에 있는 '석가여래상'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록원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송석구



이 땅 불교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3년 연속 취업률 80% 이상 달성(교육인적자원부)
- IT 특성화대학 선정(정보통신부)
-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교육인적자원부)

환동해권중심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 / TEL.(054)760-1114 / FAX.(054)760-1059 www.uiduk.ac.kr

"북한산 도로건설·천성산 고속철 통과

개발보다 보존에 치중해야"

▧ 후보님의 종교관을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후보:불교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과 기억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독송을 하셨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깨곤 했던 기억이 있지요. 20대 젊은 시절에 철학적 관심으로 반야심경, 불교개론 등을 읽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민주당 불교모임인 연등회 부회장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종교란 아끼고 가여워하는 마음입니다. 뭇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희생하여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고귀한 인간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저는 아시다시피 가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을 기본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화쟁사상 또는 자비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계와 가톨릭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까닭도 교리의 동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제일가는 덕목과 목적은 화해와 나눔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국가의 종교정책에 대한 개념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다종교인 우리사회를 위해 어떤 종교정책으로 임하실 방침인지요.

노무현:언젠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에서 살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교로 개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망명한 뒤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다른 종교들도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귀의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의 정신에 이르면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분쟁으로 인한 전쟁은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배타주의입니다. 나는 정치를 하는 내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화두 하나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종교계의 협조를 받아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회창:요즘 해외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교분쟁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족종교인 불교와 저의 개인적 신앙 가톨릭 모두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종교라는 점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종교계에 대한 역할을 물어오셨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종교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겨꾸로 종교계가 대통령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권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에 대한 종교계의 비판이 보다 강화되어야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노무현: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비지정 문화재급 불교유산의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문화재의 실태 파악이 전제가 됩니다. 이를 전제로 석조 문화재와 목조 문화재, 전적류 등 각 분야별 보존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 내부에서 다양한 분들이 대화와 결정의 장에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회창:불교문화를 떼어놓고는 우리의 민족문화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가 민족문화의 창달을 주도해왔습니다. 유형문화재뿐 아니라 정신문화나 놀이문화 같은 무형문화 속에도 불교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불교문화재 보존정책은 보존에만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의 발굴과 아울러 그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불교문화재의 보호 및 발굴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기구에는 불교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불교계 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 북한산 외곽도로건설, 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 등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으로 현재 사찰이 수행환경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는데 후보님의 환경보존대책 기조는.

노무현:개발과 보존은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개발에 따라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파손되면서 불교계가 더욱 피해의식이 클 수도 있다는데도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우리 시대의 삶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자연유산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회창:북한산 관통도로는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다소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무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불교계를 비롯하여 환경단체 또는 문화재보호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을 앞세워 민족의 문화자산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독립문을 훼손했던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종교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교류가 향후 민족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종교인들의 남북 교류는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 서로가 하나의 민족 구성원임을 재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종교인들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남북통일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회창:한마디로 종교계의 남북교류보다 이상적인 민족교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교류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정치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이라면 어느 정부든 아무런 부담 없이 대북교류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불교계의 고승이 있다면.

노무현:조선 말 국운에 다해 갈 때 고래의 전통 선을 복원하고 선사상을 널리 펼쳐 현대의 불교를 실질적으로 개창하신 경허 대선사를 존경합니다. 스님들처럼 항상 '초발심자경문'을 곁에 두고 평생 동안 마음가짐이 흔들릴 때마다 새롭게 읽어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고자 인권변호사의 길로 뛰어 들 때의 초발심,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회창:명성이 높으신 고승들 모두 나름대로의 정신세계를 다듬으신 훌륭한 분들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평가할 잣대를 저는 갖고 있지도 못하거니와 평가하는 일 자체가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원효대사님의 화쟁사상이 참으로 절실한 세상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처한 갈등구도를 타파하는 길은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지난해 불교계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려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바라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달라이 라마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초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회창:어떠한 이유에서건 세계적 종교지도자에게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저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한국불교는 다른나라에 없는 독특한 참선수행 전통이 있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불교를 보다 세계화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노무현: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출가한 현각스님이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자동차도, 반도체도 아닌 불교 문화유산"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충분히 세계 속에서 세계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이 홍보 부족과 이를 위한 정부 및 불교, 문화인들의 노력 부족이 현실의 벽을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문화와 한국불교를 제대로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회창:불교문화는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민족문화이자 그 장엄함과 당당한 기풍으로 인하여 경쟁력도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문화의 가치정립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계 스스로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노무현 후보

노무현·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종교정책은…

최근 활발해진 불교계의 대북교류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종교교류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때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존경하는 고승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후보는 "조선말 국운이 다해갈 때 선사상을 널리 펼친 경허 대선사를 존경한다"고 했으며 이회창 후보는 "민족의 갈등구조를 화쟁사상으로 타파하신 원효 대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릴 방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가 "불교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불교문화를 민족문화로 정립시켜 보호 평가 발굴하는 작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편 불교계 스스로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불교문화를 체험케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

석조·목조·전적류 구분 체계적으로 **문화재보호** 보존·발굴·평가 지원기구 설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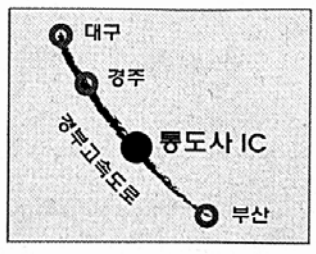
종교인들 자주 만나면 통일에 이바지 **남북종교교류** 민간교류 활성화로 통일 공감대 형성

우수성 알릴 방안 검토 정책에 반영 **불교 세계화** 우선 가치정립, 불교계 노력 병행돼야

취운선원 입방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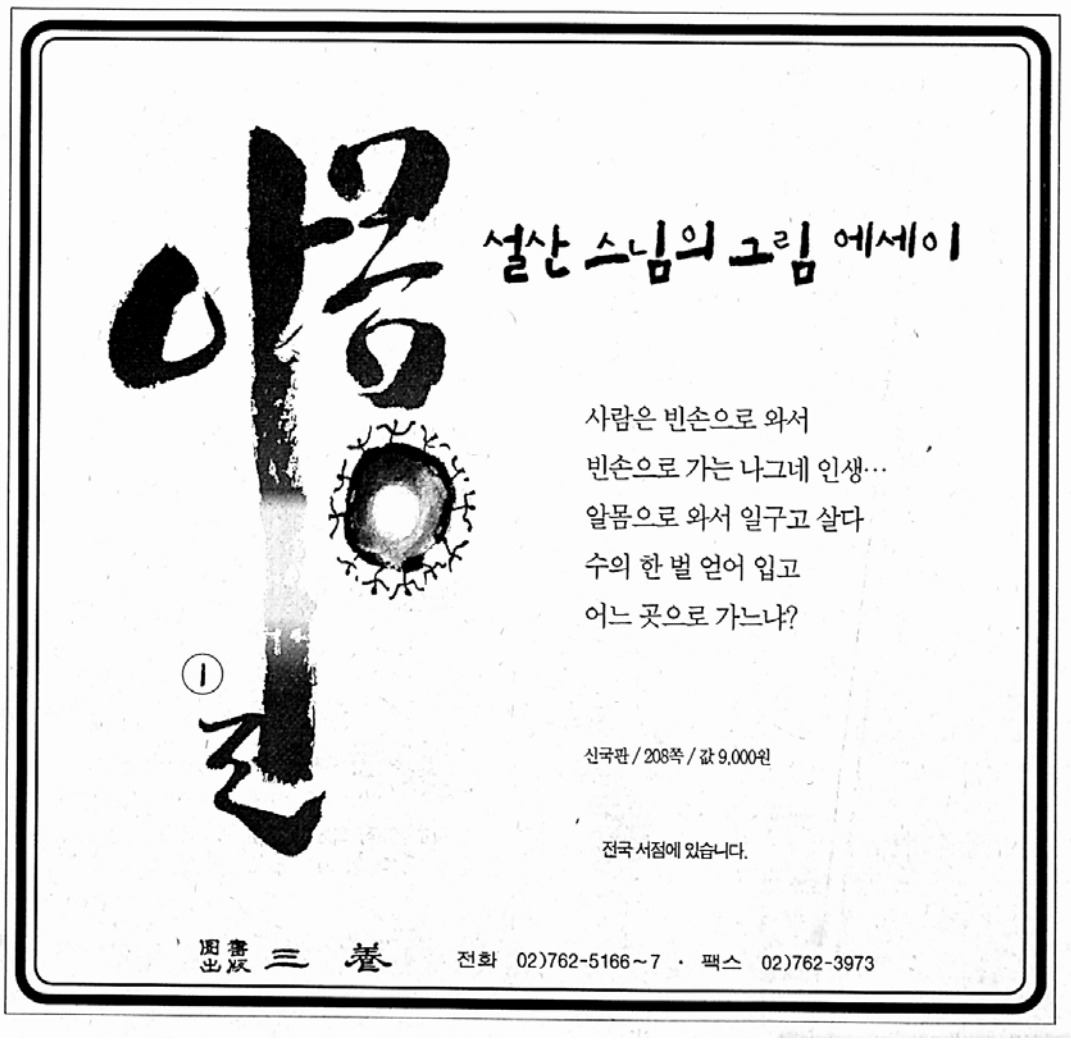
영축 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임오년 하안거 결제에 정진하실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재가불자님의 방부를 받습니다

▣ 하안거 기간 :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TEL : 055)383-6479



취운선원의
원룸형(13평형) APT에
입주하실 평생가족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 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각 종단 지도자 봉축 법어

더도 덜도 아닌 불멸의 참모습 온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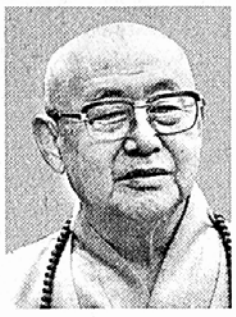
법전 조계종 종정



생명의 참모습은 천지에 가득해 하늘도 이를 덮어 버릴 수 없고
허공도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여(眞如)의 참된 모습은
원래 자유스러워 얽매임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평등(平等)하고 시종(始終)이 없는 까닭에 생멸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속박이 없는 대자유인(大自由人)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위해
다시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 방편으로 부처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태어나셨으나 나시는 바가 없으며 곳곳에서 멸도(滅度)하셨으나 진실로 멸한 바가 없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불멸의 참모습이 온 누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밖에서 찾을 것이 없으니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여래(如來)를 봅시다.
우리 곁에 있는 중생이 살아 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님이 계시니 귀천(貴賤)을 차별하지 맙시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도 만법(萬法)이 있고 무진장의 보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일이요,
중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심(下心)하여 만물을 기쁘게 하는 날이요.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억!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

덕암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광명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다툼과 분열,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내세우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어울려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인연이며 이 인연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크고 소중한 인연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같이 위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명도 우리 인간과 똑 같이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처 대비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생명과 자연까지도 내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 · 자연을 내몸처럼

도용 천태종 종정



우리가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때
부처님오신날의 등불이 환히 밝혀집니다.
현재는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미래는 어느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존재는 인연속에 있고 세월은 존재 속에 있습니다.
이 도리를 바르게 보십시오.
이제 이 사바의 땅에 부처님이 오십니다.
불화의 갈등은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누리에 가득합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자리에 바로 모시고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제대로 보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자후에,
마왕의 붉은 깃대가 꺾이고
정법의 당간이 올라가누나.
물은 산위로 거꾸로 흐르고
온갖 풀위에 백화가 피어 오르는 구나
돌(咄)! "

온갖 풀위에 백화가 피네

혜일 진각종 총인



천지는 동근(同根)이고 만법(萬法)은 일체라. 만법 하나하나를 크게 하나로 이어주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우주 운행하는 큰 소식을 깨달아야 우리의 생활이 뿌리깊은 나무처럼 생기차고 기운이 왕성하게 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생명력을 이어받고 살려면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보는 것에서 안으로 자신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진실과 지극한 선(善)은 밖에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옴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깊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생명력이 느껴질 때 그것을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깨치는 마음을 일컬어 심인(心印)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본심으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자성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밝히어 나가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인은 여섯 자로 이름하여 육자진언이라 합니다. 이 육자의 다라니는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심인을 밝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는 자리이며, 여러분의 심인을 밝히는 그 때가 불법이 있는 때임을 명심합시다.

이젠 여러분이 心印 밝힐때

정대 종단협 회장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와 갈등, 테러와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이름으로 인종과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현실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자들은 불교인의 양심과 도리의 입장에서 지역 분열을 화합으로, 분단을 통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류 최대의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적극 협력하여 이 대회가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그리하여 대립과 갈등이 없고, 기아가 없고, 파괴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 살 길

정각 법륜종 종정



우리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창조하느냐 아니면 실의와 타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자들은 보다 겸허하고 성숙된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풀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욕망과 분노, 우치와 삼독심을 몰아내고 반야의 대광명을 높이들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모두 함께 마음 · 지혜의 등을

동광 총화종 종정



日出東方天地明
世尊出世衆生明
해가 동쪽에서 뜨니 천지가 밝고
석가세존께서 세상에 오시니 중생이 광명을 얻도다

日出光明草木生
人間出世智慧長
햇빛이 비치니 나무와 풀이 자라고
인간이 세상에 나니 지혜가 두텁다.

세존오시니 광명 얻도다

록정 총지종 종령



팔만사천 법문을 다 꿰뚫고 있다 하여도 하나의 실천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신심이요 정진입니다. 실천이 따르는 신심과 정진이 있어야 바른 수행법이라 할 수 있고, 바른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등불로써 나의 신심을 더욱 발현시키고, 참나의 자성(自性)을 밝혀 나갑시다.

신심 더 발현 참나의 자성을

해곡 열반종 종정



산하대지에 꽃비 내리면
산하대지에 한빛의 방광
천상천하에 유아독존님
나투시어 일체중생의
생노병사에 탐진치의 고해
인연윤회로 얽매여서
고통의 여생을 다 보내니
실탈태자 출가육년의 고행
견성성불의 대도무문을 활짝 여시고 일체의 중생을 다 성불의 길 빈자의 연등을 밝혀 인로보살로 인도한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 중생도 다 함께 성불하는 날.

중생도 함께 성불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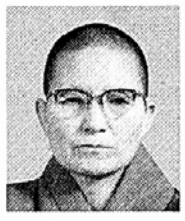
혜안 무량종 종정대행



부처님께서는 삼독에 가리어 불성을 잃고 병들어 고해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길잡이로서, 병든 환자에게 어진 의사처럼 이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본연의 모습을 지켜 가는 것이 불자요, 불공입니다. 만나는 분마다 서로서로가 부처님이 되어드릴때 이 세상은 평화롭고 생명있는 모든존재들이 더불어 안락하고 동체대비의 진정한 불국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서로 부처님 되어 드리세요

혜안 보문종 종정



제불통계에 '모든 악을 짓지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제악막작의 제악이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관념적인 죄업이 아니라 부처의 본성에 일고있는 미세한 번뇌의 파장까지 모두 없애야 비로소 모든 선을, 부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세한 번뇌까지도 털어내고 부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을 가득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번뇌 털고 연꽃 피우시길

지산 정토종 종정



지금 세상은 자문화 우월주의를 외치는 오만과 갈등으로 인한 극한 대립의 혼돈속에서 무조건 내가 옳다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절대가치의 추구의 허구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려 부처님의 양 극단을 여읜 중도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눔과 실천, 이타행 정신의 실천으로 불교의 정신인 포용과 관용을 보여줍시다.

중도의 가르침 되새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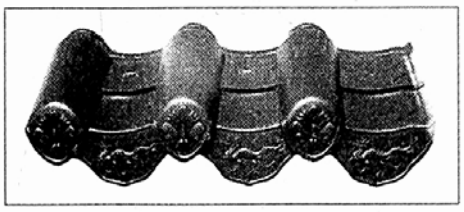
홍파 관음종 종정대행



인드라의 구슬처럼 내가 베풀면 그 고마운 인연고리가 진실한 인연고리로 되돌아와 새로운 싹이 되어 상생의 관계가 되어 더 큰 인드라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이 몸 한 시절 우리 모두는 한송이 꽃이면서 장엄세계의 일체입니다. 이 시대 함께 태어난 인연 이땅에 함께 사는 인연, 부처님 오신날 함께 하는 인연법을 깨닫는 것이 초파일을 성스럽게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인연법 깨닫는 날 되세요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기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불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 입니다.

"목욕하고난 어르신이
'개운하다' 말할 땐
내마음의 때 씻은 듯"
빵나누는 '여울회'도 참가

나누는 삶…기쁨과 보람의 보살행

외동아들 앞세운후 시작
98년 이후 4년간 꾸준히
겨울철 난방비 · 쌀 후원
'소쩍새마을 그림자 불자'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아름답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불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눔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 첫번째 덕목으로 놓인 것도 스스로의 발심에 의한 보시,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행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남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제 위치에서 제 할일을 하면서 동시에 힘껏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작은 베품'이 이 사회를 훈훈하게 한다. 나누는 삶을 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함박 웃음을 들여다 본다.



◇"내 어머니 모시듯"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에서 이만희 보살이 치매노인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다.



◇지체장애인 이면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중풍환자들에게 발마사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용철 거사.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체' 민들레도시락 봉사단, '연화심 방문팀' 회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목욕봉사 이만희 보살

본인도 다리 불구상태
장애인들 발마사지 수발
인기 '짱'…1년 예약 끝나
건강관리지도에 말벗도

○…"아휴! 시원해. 그런디 말여, 추워, 춥단 말이여." 경기도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 목욕탕. 앙상하게 온 몸이 빼빼마른 김기선 할머니(83)가 어리광(?)을 피운다. 그러다가도 '어머니 시원하죠?"하며 양영화 원장(54)과 이만희 보살(38)이 말장구를 쳐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웃어댄다. 비누칠하는 양 원장, 물 뿌리는 이 보살.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한눈에 봐도 '목욕봉사 명콤비'다. 이러다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치매 · 중풍을 앓고 있는 12명의 노인들은 이들 콤비에게 목욕시중을 받을 때마다, 괜스레 까탈을 한번쯤 부려보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이만희 보살은 '산마을 목련의 집'에서 자원봉사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 병명조차 알 수 없다며 병원에서는 고개만 설레설레 내둘렀다. 절망 끝에 우연히 찾게 된 목련의 집. 마침 치매 · 중풍 노인을 목욕시키던 양 원장이 내민 때타월을 무심코 집어들게 되면서 이 보살은 목욕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요. 다만 아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골골대기만 했던 제 모습이 마냥 부끄럽기만 했어요. 아마도 저에게는 '마음의 병'이 깊었나봐요.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나서 개운하다고 할 때마다 켜켜로 쌓였던 내 마음의 때가 씻어지는 것처럼 개운하고 보람도 크답니다."

이 브살은 몸이 한결 나아지면서 목욕봉사뿐 아니라 포천군내 미인가 복지시설 14곳을 찾아다니며 빵을 나눠주는 '여울회' 활동도 시작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됐다'는 이 보살. 목련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다.

발마사지 봉사 김용철 거사

○…10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지하 강당. '순서표'를 집어든 장애인들이 길게 늘어선 의자에 앉아 있다. 지난해 4월에 예약하고도 지금에서야 순서가 됐다는 배재인 씨(57 · 서울 중계1동). 퉁명맞게 입 짧은 소리를 뱉으면서도 목이 빠지게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는 까닭은 다름 아닌 '발마사지' 봉사를 받기 위해서다. 1년 예약이 벌써 끝난 상태. 좀처럼 예약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복지관 관계자가 귀띔한다.

두 번째 발마사지를 받는다는 김송자 씨(66 · 서울 상계동). 친해질 요량으로 "음 저번엔 너무 아팠어요! 살살 좀 해주시래요?"란 애교 섞인 말이 건네지기 무섭게 "발톱부터 깎아야 겠어요"라는 핀잔만 되돌아온다. 그래도 좋다고 아우성들이다.

김용철 거사(47).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모임 '정진팀'의 팀장이기도 한 그는 이곳에서 '인기짱'으로 통한다. 발마사지는 물론이고, 자상한 건강관리 방법이며,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까지 일일이 물으며 말벗도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실 김 거사 역시 지체 장애 3급이다. 시쳇말로 '절름발이 장애인'이다. 고2때 갑자기 '고관절'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대수술만 4번을 받은데다가 15년 전에는 공장에서 금속절삭 일을 하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앞마디가 잘려 나갔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칠순 넘은 어머니 김말악 씨가 급기야 99년 9월에 중풍으로 쓰러졌다.

"하루에 열 번 넘게 화장실을 가야 하니 어머니께서 밥짐을 편히 못 주무셨어요. 마비된 어머니 다리를 안마해주려고 배웠던 발마사지가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게 된 거죠. 나도 지체 장애인이지만,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생기네요"

부천 석왕사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김 거사. 약사여래보살의 손길처럼 쉴 틈 없이 발마사지를 계속한다.

한손 도시락, 다른손 주소
성북 · 노원구 일대
매일 100여 집에 밥 배달
IMF이후 4년간 계속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한 손에는 도시락, 다른 한 손엔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오늘도 노원구 사천왕사(주지 성덕)를 나선다. 오전 11시에 출동(?)할 곳은 서울 시영목련아파트 308동 805호. 하반신 마비 장애인 김철종 씨(48)가 홀로 3년째 살고 있는 집이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드셨나요?"란 인사말부터 앞장 세우고,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연화심 방문팀(팀장 김혜영 · 46)이 집안으로 들어선다. 들어가자마자 막내 최미영 보살(43)은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확인하고, 설거지를 시작한다. 최혜련 보살(46)이 화장실 휴지와 흐트러진 옷가지 정리를 끝마칠 무렵이면, 어느새 가져온 도시락이 밥상 위에 놓여진다.

8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
매주 첫 토요일 '봉사의 날'
노인 배식 · 설거지등 도와
장기기증 캠페인도

움직이지 못하는 김 씨가 도시락을 받은 지는 1년이 훌쩍 넘었다. 왼쪽 다리 소아마비에 2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완전히 하체 마비가 된 김 씨는 "보살님의 도시락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어서겠다는 의욕을 다지게 된다"고 말한다.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120여 명의 회원들이 지난 97년 IMF이후 줄곧 5년째 노원구, 성북구 일대 결식아동, 장애인, 독거 노인 100여집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그동안 잃어버린 도시락통만 몇 천개가 넘는다니 이들의 활발한 활동력을 짐작할 수 있다.

"소소한 것에까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인연법이 아니겠느냐"고 되묻는 연화심 방문팀 회원들. 매일매일 부처님을 찾아 뵙 듯, 도시락 배달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말한다.

소쩍새마을 후원 김선두 거사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현각)'. 이곳에는 지난 98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겨울철 난방비와 쌀을 후원하는 불자가 있다. 주인공은 김선두 거사. 김 거사는 선천적으로 자폐증을 앓던 25살 외동아들을 4년 전에 앞세워 보냈다. 평소 장애인에 관심이 많던 김 거사는 갑자기 여읜 아들 생각에 시름하다 장애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소쩍새마을에 후원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98년에 80kg 쌀 50 가마에 이어 99년엔 20kg 쌀 160포대, 보리 20포대 등 올 봄까지 후원물품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들 놈 생각에 후원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힘겹게 사는 소쩍새 식구들에게 오히려 큰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몸도 불편한 데다가 춥고 배고프기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거사는 소쩍새마을에서 '그림자 불자'로 통한다. 바지런히 쌀과 후원물품을 실고와 조용히 내려놓고 말없이 간다. 무주상보시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자다.

대학생동아리 '라이프 쉐어'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태 속에서도 장기기증운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지난해 3월 창립한 '생명나눔(life share) 연합동아리(회장 김민호, 동국대 경찰행정 3년)' 회원 50여명. 동국대를 비롯해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항공대, 서울산업대, 서경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서울 안국동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노인들에게 배식보조, 설거지 등의 '작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회원들 학교에 축제가 있을 때 마다 장기기증 캠페인도 벌인다. 지금까지 받은 장기기증 신청 인원이 400여명이 넘는다. 게다가 인터넷 '다음(daum)'에 'Life Share' 카페를 개설해 놓고, 그동안 실천했던 봉사활동, 현혈, 장기기증 신청 사연 등 체험담을 화제 삼아 얘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이기주의로 치닫는 요즘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소외받는 이웃들을 챙기고 있는 이들이 듬직하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사 육임강의록

출 시

육임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공부할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육임 책을 여러권 쓰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 오는 동안 쉽고 빠른 입문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 효 사-

◆ 값 300,000원
◆ 입 금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전 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전문가용)
좌정용 : 1,300,000원
휴대용 : 1,500,000원
증보판 : 350,000원

제2차 육임수강생모집

3개월 12주 완성

◆ 강의시작 : 6월7일 오후 7시부터
◆ 강의시간 : 3시간
◆ 교 재 : 효사 육임 강의록
◆ 수 강 비 : 1,5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마 감 : 6월 5일까지 선착순
◆ 정 원 : 30분
◆ 입 금 : 한 빛 813-041583-13-101 ◆ 전 화 : 02-996-3335

한국육임학회 육 임 학 당 효 사 숙

■ 육임비디오 수강 1,2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육임신수비결 250,000원 육임세밀정단법 100,000원
육임형이상법 150,000원 육임운명판단법 130,000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勇岩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金務元　糾正部長 趙珍德
宗正司書室長 李門德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張道正　副議長 朴魯昇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德海　監査委員 金景遷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金剛佛教大學長 李載昌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 423-7100~8 / FAX : 043) 420-7399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司書室長 閔法顯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尹慈月
副院長 成圓峰
副院長 成修琮
企劃監査室長 禹慧空

總務部長 金越海　教務部長 金法性
財務部長 劉智弘　事業部長 林虎淏
社會部長 金一蘆　糾正部長 金慶潭
教任部長 高東佑

■ **中央宗會議長 朴芸谷**

副議長 柳旺潭

■ **中央司正院長 金法藏**

副院長 金月雲

총무원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02) 745-2030 / FAX : 02) 745-1615
www.taegonet.com(총무원) / www.ibudnews.com(한국불교신문)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教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副議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0054 / FAX : 02)763-5851

재단법인 대한불교 열반종

종 정 : 해 암 삼장법사
총무원장 : 해 월

종 도 일 동

▶ 총본산 :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산 43번지 와우정사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183번지
전화 031)339-0101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종 정 : 신법련(대무량사)

원로원장 김연화(대인사)　원로부원장 최원봉(연화정사)
중앙종회의장 채구암(행운사)
총무원장 윤송정(관음정사)　호법원장 안송봉(지장정사)
감찰원장 윤정업(태봉사)　교육원부원장 이운산
교육원장 석덕운(기원정사)　선원장 황법정(대성사)
포교원장 송법성(대원사)
사무총장 김영각　규정부장 박혜종(심복사)
총무부장 허지덕(연화사)　사회부장 전명암(여래원)
교무부장 장고봉(정토원)　재무부장 정동성(용화사)

종책위원 신법련, 김연화, 윤송정, 황법정, 김영각, 김월산, 이보성, 박덕운, 조월상

중앙종회 부의장 조월상
중앙종회의원 채구암 윤정업 황법정 석덕운 윤법공 이혜경 안송봉 송법성 김영각 허지덕 전법일 장고봉 정동성 전명암 박혜종 황법연 이혜산 허도명 정혜도 권마하 성광

서울교구종무원장 황법연(법륜사)
경기교구종무원장 이혜산(두타정사)
강원교구종무원장 허도명(약사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정혜도(정도사)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공(범호사)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전법일(구룡사)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권마하(옥천사)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대리 행인(불동암)
부산교구종무원장 혜경(금강사)

▶ 총 무 원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TEL 055-345-4741
▶ 연락사무소 : 부산 051-466-3977

대한불교 선각종

종 정 영담 대종사
총무원장 석정암

전국 각교구본사 종도일동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옴천사)
전화 061)433-2233 팩스 061)433-3233
▶ 광주사무국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능인회 내)
전화 062)224-1080 팩스 062)226-2707

종립국제불교대학

학 장 조희일

▶ 교학처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능인회 2층)
전화 062)224-1080 팩스 062)226-2707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회당 1902~2002

참여 화합 회향

즐거운 신행, 하나되는 신행, 함께하는 신행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2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 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대한불교 진각종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http://www.jingak.or.kr　http://www.hoedang.or.kr
138-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언의 세계로 모십니다.

종 령 록 정
통리원장 혜 암

중앙종의회 의장 의 강　중앙종의회 부의장 법 공

총무부장 원송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재무부장 지성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교정부장 법등　대구경북교구장 우 승
사회부장 대원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전송 : 02)552-1082 / http://www.chongji.or.kr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파 전석봉
부 종 정 대정 이혜공
승정원장 신수 이종규

총무원장 각몽 김혜승
부 원 장 혜세 김진봉
사정원장 대안 정추봉
종회의장 혜광 사일복
포교원장 지운 윤태영
교육원장 혜세 김진봉
수선원장 정봉 류해원
문화원장 청봉 이인교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전화 : 02)433-9780 / 전송 : 02)433-9784

한국불교 여래종

종 정 석인왕
원로원장 김무공 **종회의장** 허법성
총무원장 신명안 **호법원장** 김법우
법사원장 정일홍 **포교원장** 홍법룡
종찰원장 신혜안

충북교구원장 추월산 부산교구원장 윤보당
충 남 분 원 장 김원각 경남교구원장 김법수
경기북부교구원장 최용일 강원교구원장 김범오
경기남부분원장 박혜공 전남분원장 강보명
경 북 분 원 장 김경영 전북분원장 노선덕
대 구 분 원 장 박법일 광주분원장 윤봉성

전국인왕 문도회장 : 윤보당 비구니처장 : 김능엄
재가전교사 회장 : 장세영

▶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무산리 산 72 대악사사
011-483-2261
▶ 제본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 약사사
031)734-3205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원로원장 : 양지은 원로위원 : 전파옹, 김정현
감찰원장 : 장혜운 문화원장 : 황보현

총무원
총무부장 장보일 규정부장 신지담
재무부장 허지웅 사회부장 이법전
교무부장 박보산 포교부장 박보민
총무국장 송보혜 재무국장 박정혜
교무국장 강보연

서울종무원장 채정수 인천종무원장 박보산
경기종무원장 김보인 충남종무원장 한보각
광주종무원장 허지웅 부산종무원장 황월담
전남종무원장 최보담 경남종무원장 김보경
울산종무원장 김청운 경북종무원장 정호진

종회의장 남지산 부 의 장 이보운, 허지웅
사무국장 편보성
선관위원장 김보경 상벌위원장 이보운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전화 : 055)883-7771 · 7790 / FAX : 055)882-9916

대한불교 본원종

종 정 권계한
사서실장 손무공
원로원 원로의장 강무구
중앙종회 종회의장 김대운
부의장 김대연 **부의장** 조혜원

총무원장 이대화 교육원장 김동광
감찰원장 이관곤 연수원장 장대범
포교원장 이대봉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정대련
재무부장 최대황 조직부장 김일광
규정부장 강만공 포교부장 한법성
교화부장 안자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 02)391-4376 / 전송 : 02)392-4376

대한불교 대승종

종 정 도 암
원로원장 법 효
종회의장 법 정
총무원장 일 오

법계원장 법 성 교육원장 법 타
포교원장 기 현 사서실장 법 명

감찰부장 송 정 사회부장 벽 성
재무부장 선 공 교육부장 일 각
교무부장 영 인 포교부장 도 일

서울종무원장 법 신 부산종무원장 청 화 전북종무국장 원 공
경기종무원장 법 춘 경남종무원장 법 종 전북교무국장 혜 원
강원종무원장 혜 심 경남종무국장 일 봉 전북사회국장 태 덕
충북종무원장 일 산 경남감사국장 법 인 전북감사국장 법 현
충남종무원장 일 각 전남종무원장 제 천 포교사단 단장 윤남선
경북종무원장 법 웅 전북종무원장 덕 일 사 무 총 장 정철섭

종 도 일 동

총무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호
전 화 : 031)448-8811 , 8006(FAX)

한국불교 정토종

종 정 : 지 산
총무원장 : 회 암

부 원 장 성일 포 교 부 장 현공
종 회 의 장 법보 교 육 부 장 원행
원 로 원 장 혜원 감 찰 부 장 효현
비구니원장 지연 규 정 부 장 설정
호 법 원 장 보덕 사 회 부 장 혜심
선관위원장 혜산 복 지 부 장 혜공
선 원 장 육허 재 무 부 장 성담
중앙종회의원 혜명 조 직 부 장 성은
중앙종회의원 현수 교 무 부 장 법진
중앙종회의원 도승 호 법 부 장 봉운

인천 교구원장 불광 동해 교구원장 석범
부산 교구원장 보국 감 찰 국 장 석산
충남 교구원장 향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2동 926-27(새나드리프라자 4층)
☎ 032) 543-2693-5 / FAX : 032) 543-2695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 붕 선 교 종

종 정 무찰 김 태 현
총무원장 동봉 정 대 룡
사서실장 최 혜 천

장 로 의 장 정 금 봉
안 통 령
송 원 경
박 수 암

중앙종회의장 이 정 관
중앙종회부의장 김 명 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강 삼 현
중앙종회의원 현암 , 덕봉 , 법정 , 지명
현철 , 명달 , 봉월 , 원덕
덕운 , 남혜 , 혜신 , 지명

호 계 원 장 엄 지 공
호계부원장 정 법 성
포 교 원 장 김 화 엄
교 육 원 장 이 법 운
감 사 원 장 진 대 륜

총무원부원장 최 용 암
총 무 부 장 김 법 선
규 정 부 장 김 지 성
교 육 부 장 안 법 해
재 무 부 장 이 정 수

각 교구종무원장

서 울 교 구 이법운 부 산 교 구 이법상
경기남부교구 유법안 경기북부교구 이혜성
경 남 교 구 이정수 경 북 교 구 김도기
충 남 교 구 김혜성 충 북 교 구 김법청
광 주 교 구 김혜성 강 원 교 구 이호성
대 전 교 구 박도안 인 천 교 구 최덕산
울 산 교 구 김 화 엄 대 구 교 구 가덕양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 B/D 4층 / 전화 : 02)998-8161,2 팩스 : 02)998-8384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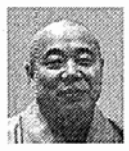
'불교와 교육문화' 발간

녹원 동국대 이사장이 연설 어록 〈불교와 교육문화〉(학교법인 동국학원)를 펴냈다. 1995년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사를 비롯해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연설, 법문, 식사, 논설 등을 한데 모은 것. 불교정신과 대학교육의 이념, 세계화 시대의 동국정신과 불교의 역할, 동국학원 산하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의 좌표 등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가야불교유적 순례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26일 오전 8시 '가야불교유적을 찾아서' 주제의 성지순례를 떠난다.(062)228-9098



명예철학박사 학위받아

혜륜 약불사 주지는 4월 26일 태국 마하출라롱컨 대학에서 스리랑카위디어대학 명예불교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원광 부산 정수사 주지는 1일 부산일보사 김상훈 사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환경·복지문제 불교계와 긴밀 협조"

청와대 불자회 7대 회장 김상남 복지노동 수석



"환경,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불교계와 정부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잘 조정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일 조계사에서 청와대불자회 제7대 회장에 취임한 김상남(57·사진) 복지노동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불자회의 재도약을 다짐하며 이같이 포부를 피력했다. 특히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 불교계 발전을 위해 청와대불자회의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올해 1월 복지노동수석에 임명된 김 회장은 "청와대 근무 특성에 따라 정기법회를 열지 못해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며 "분기별 수련회 개최와 정기법회 개최 등 불자회 단합을 위해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모임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불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분기별 수련회 등 신행활동 적극 지원

법명 雨華 … 토요일마다 연주암서 108배

69년 광주 보덕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회장은 82년 아내 송영숙 여사의 권유로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무진장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 불교에 귀의했다. 이때 12번에 걸쳐 진행된 무진장스님의 법문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을 정도다.

이후 김 회장은 아내와 함께 사찰 수련회와 성지순례 등을 하며 믿음을 키웠다. 현재 쓰고 있는 '우화(雨華)'라는 법명도 순천 송광사에서 묵언수행으로 진행됐던 수련회에 참가해 받은 법명이다. 일곱 번이나 계를 받을 만큼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친 김 회장은 요즘도 토요일마다 관악산 연주암을 찾아가 108배를 한다. 김 회장은 "늘 부처님 법을 생각하며 부처님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며 "이러한 인연으로 청와대 불자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가정은 불교 집안이다. 아내 송 여사의 불심이 돈독해 김 회장과 두딸 민정, 유정 씨도 모두 불교에 귀의시켰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를 믿었다는 송 여사는 조계사에서도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오랜 믿음도 부인 송 여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김상남 회장은 "그동안 닦아온 신행활동의 경험과 사부대중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청와대 불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봉사하는 교수불자회 만들터"

부산 불교교수연 6대 회장 김용태 교수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연합회의 재창립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것. 79년 11월 창립된 불교교수연합회는 부산대, 경성대, 부경대, 신라대, 동부산대학 등 부산의 4년제와 2년제 불자교수 7백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인원에 비해 대학별 자체법회외의 특별한 활동은 증단되어 있었다.

전문인력 이점 활용 작은것부터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교수불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발휘해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데 적극 동참할 각오입니다."

16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부산불교교수연합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용태(63·前 신라대 총장·사진) 회장의 말이다. 부산불교교수연합회는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초청, '부처님 오신 참 뜻'이라는 주제로 시민초청 대강연회를 함께 연다. 이날 법회는 사실상 한동안

김회장은 "한동안 침체되었던 교수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성지순례, 분기별 자체 수련회, 연합법회 등으로 회원들의 신심 증장과 보살행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문분야, 자연과학, 정보 IT분야 등 전문 인력이 많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 각분야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것. 또한 마음의 안정과 지혜로 삶의 고통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방안도 모색중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부산 교통질서 운불련이 맡겠다"

선진문화교통질서 봉사단 조홍인 단장



의식은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계속적인 계도와 캠페인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라는 조회장은 "질서는 생활속에 녹아든 습관이므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잡한 거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운전자, 보행자들의 질서의식 고취에 나서게 될 봉사단

조별로 차선지키기 등 캠페인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도시인 부산의 교통질서의식을 높히는데 한국운불련 부산지역회 전 회원이 봉사하겠습니다."

26일 부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에서 발대식을 갖는 선진문화교통질서봉사단 단장 조홍인(50·한국운불련 부산지역회·사진) 회장의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국제경기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부산시민들의 질서 의식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보행자보다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이 눈에 띈다"는 조회장은 몇 년 전에 비해 보행자들의 질서

원은 4백여명. 조별로 팀을 나눠 차선지키기, 보행자 질서 지키기 등 교통 질서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운불련은 가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120명의 접수를 받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외국인 선수 수송 봉사차량으로 등록한 상태다. 경기 기간동안 한국운불련 회원 차량들은 선수를 수송하며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문화 사절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부산= 천미희 기자

"법회에 생기 고취"

S-oil 불자회 오세길 회장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불자회 활동을 통해 바쁘고 고된 직장생활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27일 울산 정토사에서 창립된 S-oil 불자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오세길(54·업무본부 부본부장·사진) 회장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S-oil 불자회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용안사 포교원에 모여 불자회 창립을 발원한 후 매주 수요일 교리 공부와 기도 정진을 이어왔다. 젊은 불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기있는 법회를 만들겠다는 오 회장은 "울산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계열사 삼성정밀화학과 카프로락탐 불자회와 매월 한차례씩 공동법회를 열어 유대를 강화하고, 울산지역 신행단체들과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화 촉 본사 편집부 김현실 씨는 25일 오후 1시 경기도 안양문화센터웨딩홀 1층에서 김창중 씨와 화촉을 밝힌다.



정대스님, 한화갑 민주당 대표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8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노사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화합할 경우 종교계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대 스님과 한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국대학교 개교 96돌 기념식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개교 96주년(8일)을 맞아 7일 대학 예술극장에서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동국대는 이날 홍윤식(서울 국악예술고교장), 장오현(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이근영(미국 아리조나 동문회장), 김경재(미국 LA동문회장) 씨 등 네 명을 '자랑스런 동국인'으로 선정해 동국대 휘장 '은장'을 수여했다. 송석구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미황사 소년소녀가장 초청 '들차회'

전남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5일 사찰내 부도전에서 광주지역 소년소녀 가장 47명을 초청, 들차회를 가졌다. 광주 열린가족복지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금강 스님은 "어렵고 힘든 생활에 좌절하지 말고, 은은한 들차의 향기처럼 열심히 살아달라"고 말했다. 금강스님이 미황사 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련 무차연등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0일 서울 종묘시민광장에서 '제4회 무차연등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연등회에서는 노인 및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실향민, 북한 이탈주민 등 400여명에게 무료로 연등을 달아주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무차연등을 달고 있다.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여름반)
2. 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2년 6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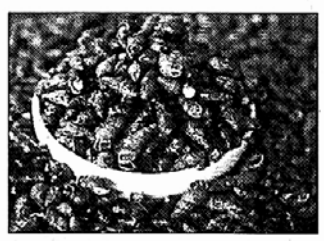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토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장 오신재

사부대중일동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전화 : 061) 284-1771
팩스 : 061) 284-177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우룡
배법림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代)
팩스 : 053) 765-1600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조계종 **사원주지연합회**

연합회장 원 명
신도회장 이정애
(바라밀)

社團法人摩詞耶那佛敎文化院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6번지
사무국 053)257-8002/741-1441
신도회 053)255-5438
팩 스 053)257-8003

대한불교 조계종
가락최대고찰 신어산
은 하 사

주 지 대 성

보현회 회장 문수용
금옥회 회장 황월강화
관음회 회장 안자항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8번지
전화 : 055)337-0101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정사**

주 지
관 장 정 련

- 사회복지법인 내원 · 몰운대복지관
  TEL : 051)264-9033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반야원
  (치자마을)
-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천리 346
  TEL : 055)632-1854
  법인사무국 : 051)261-962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
  TEL : 051)405-5222-4 · 405-6079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2
전화 : 051)242-0691

新羅佛敎初傳法輪聖地
白龍城祖師悟道聖地
阿 道 毛 禮 園

조실 겸 주지
도 문

노 전 보 승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 2리 347번지
전화 : 054)474-0839
054)475-0839
054)474-5108 ~ 9
팩스 : 054)474-0879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창석 정금강행
하도명화
부 회 장 이근철 박수관 김석조
윤인오 이영숙 박성빈
감 사 서병혼 박영병 최익두
사무총장 하만경
기획실장 김수현
연수원장 강동균

[부설]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제3기
및 경전연구반 모집
※현대불교신문 별도광고 참조
※원고 접수 및 문의처 :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 051)853-2021, 464-2020
팩스 : 051)853-2036

부산불교자비원

원 장 정 각
이사장 김성길

◆김해노동선방
◆부산불교문화대학
◆월간 「큰수레」 발간
◆큰수레 경전연구원
◆큰수레 문화학당
◆자비의 전화 · 무료법률상담
◆교도소 · 구치소 방문
◆자비장학회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조선족 중국동포 초청연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번지
TEL : 051)403-4848
FAX : 051)403-4860

부산불교회관

○ 여여선원 · 여여정사
○ 부설 신행학교
○ 개금사회복지관
○ 금정사회복지관
○ 보현어린이집
○ 양정노인 복지관
○ 선혜마을(실직자 쉼터)

선원장 · 관장 정 여

사무국장 전성기
국 장 박용하
소 장 홍석환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 051)853-5486 ~ 7

대한불교 선교종 경남종무원

종무원장 혜 봉
원로원장 정 화
기획실장 혜 덕
종회의장 도 운
종무국장 재 명
사정위원장 혜 찬
교무국장 지 수
사회국장 월 수
의전위원장 진 성
재무국장 월 산
사무국장 김종군

종회의원일동

■ 밀양시 내이동 1193-26 번지
전화 : 055)352-3186
팩스 : 055)354-0100

대한불교 선교종 총 무 원

종 정 정동광 예하
종승위원장 김동곡 스님
총무원장 류혜종 스님
중앙종회의장 임보운 스님
사정원장 김법우 스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3동 844-30
성광빌딩 2층 201호
전화 : 051)462-6181, 462-6652
팩스 : 051)441-4022

문화관광㈜ 053여행사

직원일동

■ 사무실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90-1
전화 : 053)425-0081

高靈기와 (株)高靈청기와

KS表示許可,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 工場

代表理事 金 殷 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율면 구곡리 400-1번지
전 화 : 054)954-8008/8188
청기와 : 054)954-8000(代)
팩 스 : 054)954-8308

대중포교를 위한 월간지

말없는 소리 맑은 나라

월간 『말없는 소리 맑은 나라』는
대중포교를 위한 불법홍포지로서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문서포교지 입니다.

도서출판 『말없는 소리 맑은 나라』는
사찰사보를 대행 발간하는 사찰사보 전문 출판회사 입니다.

◆ 부대사업 : 출판, 기획, 광고물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4 그린타워 5F
TEL : 051)441-0263
FAX : 051)464-0953

동신전통목공

사찰문 전문

대표 백영목 합장

■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
(직지사 검문소 뒤)
전 화 : 054)432-1312
공 장 : 054)432-8121
핸드폰 : 011)535-7000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주 지 성광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 지 변춘광
총 무 곽수산
재 무 이덕중
섭 외 구성해
노 전 김구수
신도회장 배두출

신도일동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 : 02)3460-5300
팩스 : 02)3460-5200
http://www.gwanmun.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雉岳山龜龍寺 原州佛教大學

住 持 慈光 李遠行
秉 法 林正悟
爐 典 金法眼
總 務 鄭法輪
敎 務 南慧明
財 務 李法起
院 主 金法徹
都 監 崔法藏
法 師 崔法雲

■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전화 : 033)732-4800～3
팩스 : 033)732-1211

불기2546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 평화 성취를"

전법도량 남장사

주 지 성웅합장

상주냉림사회복지관
임직원 일동 합장

상주자활후견기관
임직원 일동 합장

남장사 종무소 : 054)534-6331
냉림사회복지관 : 054)532-5677
지활후견기관 : 054)536-6580

태고총림 조계산

선 암 사

주 지 정지허
총 무 김승범
재 무 박혜경
교 무 김현오
포교사 송상명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전화 : 061)754-5247
팩스 : 061)754-5043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48호

송 덕 암

주 지 고동우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02번지
전화 : 041)688-2913

기원정사 포교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19번지
전화 : 041)631-5153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 포교당

주 지 성관 스님
선원장 금산 스님
부주지 성허 스님
총 무 도헌 스님
교 무 탄성 스님
기 획 도림 스님

대중일동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전화 : 031)255-2692
팩스 : 031)244-8562

대한불교조계종

도 리 사

주 지 웅산 법등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전화 : 054)474-3737
팩스 : 054)474-8630
홈페이지 www.dorisa.net

(재)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신도회일동

• 법회 안내
부산법회:음력 매월 초하루
매월 보름
서울법회:음력 매월 초사흘
매월 열여드레
창원법회:음력 매월 스무나흘

서울 02)744-0779 · 744-0772
부산 051)892-9877
창원 055)281-0772
미국 휴스턴 001-1) 713-467-0997

www..ahnkookzen.org
www.ahnkooksunwon.org

法 輪 藏

절공사(법륜장, 대웅전, 요사채) 불교용품,
문화재 공사 및 제실공사(기와, 목수, 단청, 돌)
전원주택, 황토방, 조립식, 통나무집
한옥, 양옥(현집수리일체)

대 표 鄭 光 武

▣ 문화재 기능 1485 보유 ▣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90-198번지
(청운빌딩 5층)
전 화 : 053)986-9200～2
팩 스 : 053)986-9202
휴대폰 : 011-553-3004

주식회사 정 인

47년 전통의 유럽풍의 고급빵,케익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 파고다 빵

(주)파고다

PAGODA.CO.LTD

대표 山門 윤해성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7-3
전화 : 062)961-0404
팩스 : 062)961-0404

동진중기환경

박 춘 만

▣ 건물실내 외 철거
▣ 건설폐기물처리전문업체
▣ 철거전문인력및각종철거장비 보유
▣ 스키드로다
▣ 포크레인
▣ 덤프 2.5톤, 15톤

■ 공장 :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1-5번지
전 화 : 053)751-6676
팩 스 : 053)756-4063
휴대폰 : 011-819-5199

신세계예식장

회갑잔치 돌 백일 각종행사

사 장 김석홍
하강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8-14
(범어네거리 대백가구 맞은편)
전화 : 053)745-1133(代)
팩스 : 053)745-1188

정 우 조 경

▣ 조 경
▣ 설 계
▣ 시 공

대 표 이정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4-10
전 화 : 053)762-3952
휴대폰 : 011-513-6807

합 동 석 물 ㈜

석재가공 석공사전문
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 화 : 054)955-8200～1
휴대폰 : 011-509-1443

부처님오신날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고 있다. 기념의 방식과 내용,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생스스로 미망에서 깨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보이고자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남방·티베트불교 4월 15일 '베삭축제'

(부처님 오신날)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붓다 자얀티' 날을 맞아 사원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해외선 어떤 봉축행사 펼치나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 불교권이나 북방 불교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기준으로 봉축일 행사를 한다. 그러나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음력 4월 15일(양력 5월 26일)을 '부처님의 날'(Buddha Day)로 정해 다양한 베삭(Vesak, 또는 Wesak) 축제를 펼치는 곳이 많다. 베삭 축제는 부처님의 탄생뿐아니라 성도, 및 열반을 함께 기리는 행사로, 남방 및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에서는 초파일 행사를 베삭 축제로 대신하고 있다.

새롭게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는 불교 종주국 인도에서는 음력 4월 15일 붓다 자얀티(Buddha Jayanti)란 국경일에 맞춰 봉축행사를 연다. 며칠 동안 바라나시, 녹야원, 봄베이, 산치 등에서 축제와 거리행진이 열린다. 네팔에서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니비 동산과 스와얌부 사원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삭축제가 열린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5월 29일 위싸카 부차(Visakha Puja) 날을 공휴일로 정해 봉축하고 있다. 이날은 불교 관련 공휴일 중 가장 신성하게 지내는 날로 부처의 탄생, 성도 및 열반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카부차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들에서는 스님들이 설법을 하며 저녁에는 사원 주변에서 촛불 행진이 벌어진다.

스리랑카 불자들에게는 5월 22일 하드지 축제일(Hadji Festival Day)을 비롯한 5월 한달이 가장 특별한 만월(Full Moon)의 성스러운 축제의 달이다. 부처님께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해탈한 날을 함께 기념하며, 색종이로 베삭(Vesak)등을 만들어 집안, 사원, 거리를 장식한다.

우리나라처럼 음력 4월 8일에 봉축행사가 열리는 대만과 홍콩에서도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린다. 1999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국가제정 공휴일로 선포한 대만은 올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성탄기념 욕불(浴佛)행사 등 봉축행사를 갖는다. 18일부터 꽃차 행진과 불교음악예술공연, 불교학술회의, 관욕 법회 등의 행사를 갖는다. 홍콩에서는 홍콩불교협회 주관의 기념법회가 열리고, 불교계 학교 주관으로 각종 강연회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화교문화권인 싱가포르는 5월 7일을 베삭 데이로 지정, 전체 불교사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기억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새를 놓아주는 방생 행사도 갖는다.

음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지정해 각종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각 사찰에서 불생회(佛生會)라는 법화를 갖고, 맑게 걸른 녹차로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 등을 치른다. 또 일본은 하나 마쯔리(꽃의 축제)라는 의식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4월 중 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쓴 글을 앞세운 꽃가마의 행렬이 이어진다.

미주 지역의 사찰들은 음력 4월 8일, 또는 4월 보름인 풀문데이(Full Moon day)를 전후해서 봉축법회를 열기도 한다. 또한 음력을 세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양력 4월 8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대부분의 선 센터와 LA의 일본계 사찰에서 양력에 행사를 갖는다.

미국 뉴욕불교 국제봉축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발생한 9.11 테러에 희생된 영가들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국제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에서는 26일 토론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행사가 열린다. 토론토의 중국계 사찰에서는 관욕식을, 일본계 사찰에서는 벚꽃으로 가마를 만들어 거리를 행진하는 봉축퍼레이드를 펼친다.

유럽에서는 남방 및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베삭축제가 열린다. 티베트불교의 영향이 큰 독일 베를린에서는 샤카재단, 타오 찬 센터 등이 주관하는 거리행사와 만찬회, 강연회 등이 25~26일 양일간 열린다. 영국에서는 5월 26일부터 9일간 런던 불교협회를 중심으로 거리행진, 가면무도회 등 행사가 펼쳐진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미주 지역의 사찰들은 음력 4월 8일, 또는 4월 보름(Full Moon Day)을 전후해 봉축법회를 연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봉축행사 장면

초파일 佛生會법회 녹차로 관욕의식 [일본]

9·11테러 희생영가 위로법회·행진 [美 뉴욕]

바라나시·녹야원 등서 수일간 축전 [인도]

'5월 성스러운 달' …각종 페스티벌 [스리랑카]



◇일본에서는 양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계절별로 다양한 지역축제(마쯔리)가 열린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쿠로이시에서 열리는 네푸타 축제는 연등제에서 유래했다.



◇네팔의 불자들이 '붓다 자얀티'를 맞아 불탑을 참배하고 있다.



◇태국 스님들은 5월 29일 '위싸카 부차' 날이 오면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을 올리고, 신도들에게 설법을 한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현지인과 교포 어린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불광회의 봉축 포스터.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인도 나그푸르의 딕샤부미에 모인 수만명의 불자들.

불국정토를 기원하는 특별공연

연등축제공연 고려의 아침
MORNING OF KORYO

한국공연예술의 메카 서울예술단에서
13세기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있는 고려인의 佛心을 〈고려의 아침〉에서 되살립니다.

평화의 축제 〈고려의 아침〉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인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세계에 전합니다.
불교음악의 포교자 법현스님 직접 출연 법현 스님이 범패를 통하여 불교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문 스님을 통한 전통사찰음식 전시와 대학생들의 이벤트 공연이 선보입니다.
공연수익금의 일부를 '평화의 정신'을 기리는 기금으로 조성!
공연 후엔 '평화기원 연등 띄우기' 행사가 진행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이 및 아프카니스탄 난민 돕기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특별출연 법현스님 송용태 강권순 강금이 출 연 김수웅 유희성 박원묵 정유희의 서울예술단 단원 및 객원
스 태 프 예술총감독 신선희 / 연출 신선희 이병훈 / 작창 안숙선 / 작곡 이준호 / 안무 채상묵 / 연기지도 강수기 / 미술 천경순 하성옥 의상 황연희 / 조명 최형오 / 음향 권도경 / 본장 강대영

2002.5.25(토)~5.30(목) 8:00pm 올림픽공원 88마당

제작 서울예술단 제작진행 한국시스무대 협찬 한국담배인삼공사
후원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국민체육진흥공단, KBS한국방송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한국방문의해기획단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523 - 0986 예약 티켓파크 1588-1555 www. ticketpark. com

공연장소안내

〈올림픽공원 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하차 3번 출구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하차 1번 출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하차 1번 출구
— 버스 21, 212, 300, 568, 560, 813, 813-1, 30-1
성내역 하차 3번 출구
— 버스 21, 212, 300, 568, 560, 813, 30-1, 10

다이나믹 코리아 페스티벌 2002
Dynamic Korea Festival 2002
서울국제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서울예술단
www.spac.or.kr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마주앉아서 던져본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
그를 바라보는 것의 깨우침. 그는 보고 있다! 하늘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 그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며, 몇 권의 베스트셀러 영성서적의 저자이다. 왜 그는 그토록 인기가 있는가? 풍요를 초월해 진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달라이 라마. 그의 삶 또 끊이지 않아 있어도, 당신은 결코 더 행복해지는 길 이를 수 없을 것이다.

5월 25일 서점에 가시면 당신의 잃어버린 평화와 미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미국인과 전유럽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스승 틱낫한.
그의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틱낫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우리 시대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인 틱낫한은 시인이자 선승, 평화운동가이다. 30여권의 중요한 영성서적의 저자이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지금은 프랑스 남부의 '매화 마을'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이다.



나 자신도 마음의 평화와 미소가 필요할 때면 틱낫한의 글을 읽는다
- 달라이 라마

잔잔한 미소로 만나는 큰스님의 따뜻한 절간 삶

원택 지음 | 각 권 270쪽 내외 | 값 각 8,500원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1·2

중앙일보에 6개월간 절문연재된 〈산은 산 물은 물〉. 그 감동을 지금 이 한권의 책으로 만나십시오!
시승 푸른 기개와 고집으로 알려진 한국 선불교의 거목 성철스님. 그러나 그 뒤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냉골냉골한 뱃가죽에 소박해하고 아이들과 짓궂게 장난치는 천진함, 새로운 동전에 어린애처럼 신기해하는 모습, 세차게 호통치듯 설적 감싸 안는 모습. 20년간 그분을 모신 립택스님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큰스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소한 정신의키를 성장시킬명상과 수행의견문록!

돈황 가는길



"천작들에서 정찬주만의 독특한 불교적 가치를 통찰하는 심미안과 수승한 문장력에 감탄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돈황가는 길〉에는 한층 무르익어 마치 진신의 사리를 봉안한 다보탑을 보는 듯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 최인호(소설가)

사막 속 오아시스 도시 돈황! 천하절경 찾아 고독한 길을 고집한 구도승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돈황으로의 여행. 불교적 사유의 전개함과 자료 사진에 영상미가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 르포. 격조있는 시적 여행기.

정찬주 글·사진 | 반양장 | 국변형판 | 296쪽 | 본문 4도 | 값 9,900원

5월 19일에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춘을 불사르고

30여 년만에
재출간되는 일엽스님의
치열한 구도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사옵기에
살아서 이 몸도, 죽어서 이 혼까지도
그만 다 바치고 싶어질까요.
…
혼마저 합쳐진 한 몸이건만…
그래도 그래도,
그지없이 아쉬움
그저 남아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사옵기에

어느 날 부처님께 귀의하여 영원히 찾아나섰던 신여성 김일엽, 30여 년이 지난 이제 그 소식이 다시 금세상에 띄워진다.

김일엽 지음 | 424쪽 | 양장본 | 값 11,000원

진리의 빛 행복의 샘 김영사 불교총서

불타의 세계



세계적인 거장들의 6년간의 현지 고증과 집필,
수백 점의 생생한 사진과 자료, 2년간 우리말 작업 끝에
출간된 불교계 초유의 역작!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 | 김지견 옮김 | 양장본 | 544쪽 | 값35,000원

행복한 마음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일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뉘어보십시오.
출간 이후 16년간 49쇄를 거듭 찍은 승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의 바로 그 책.
김정섭 지음 | 개정증보판 | 양장본 | 530쪽 | 값9,900원

마음하고 어디 있는고로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지 말라.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나를 밝게 해주는 이가 내 부처님일 뿐이다."
백성욱 가르침 | 김원수 받아 엮음 | 양장본 | 228쪽 | 값5,900원

禪 어록 시리즈

육조단경
나카기와 다카 주해 | 양기봉 옮김
양장본 | 315쪽 | 값 7,000원

달마어록
야나기다 세이잔 주해 | 양기봉 옮김
양장본 | 300쪽 | 값 8,900원

초기선종사 1, 2
야나기다 세이잔 지음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1권 464쪽 2권 368쪽 | 1권 값 14,900원 2권 값 13,900원

방거사어록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 | 양기봉 옮김
양장본 | 308쪽 | 값 8,500원

대혜서
야마키 젠료 주해 | 양기봉 옮김
양장본 | 400쪽 | 값 14,900원

불교학술서

대승불교개설
히라카와 아키라 외 편저 | 정승석 옮김
양장본 | 408쪽 | 값 12,000원

불교 요설
에가쿠 마이다 지음 | 석오진 옮김
개정판 양장본 | 184쪽 | 값9,500원

바웃드하 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 | 혜 원 옮김
신국판 | 368쪽 | 값 7,900원

인도 고대사
람 사란 시르마 지음 | 이광수 옮김
양장본 | 392쪽 | 값 8,900원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 | 박인재 옮김
양장본 | 192쪽 | 값 7,900원

불교입문
다키자키 지카또 주해 | 신법인 옮김
개정판 양장본 | 290쪽 | 값11,000원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 TEL:02)741-1990 ■ http://www.gimmyoung.com 김영사

사찰 납골당
이제 무한 21 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3호 동명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1737-0696
팩스 : 021737-0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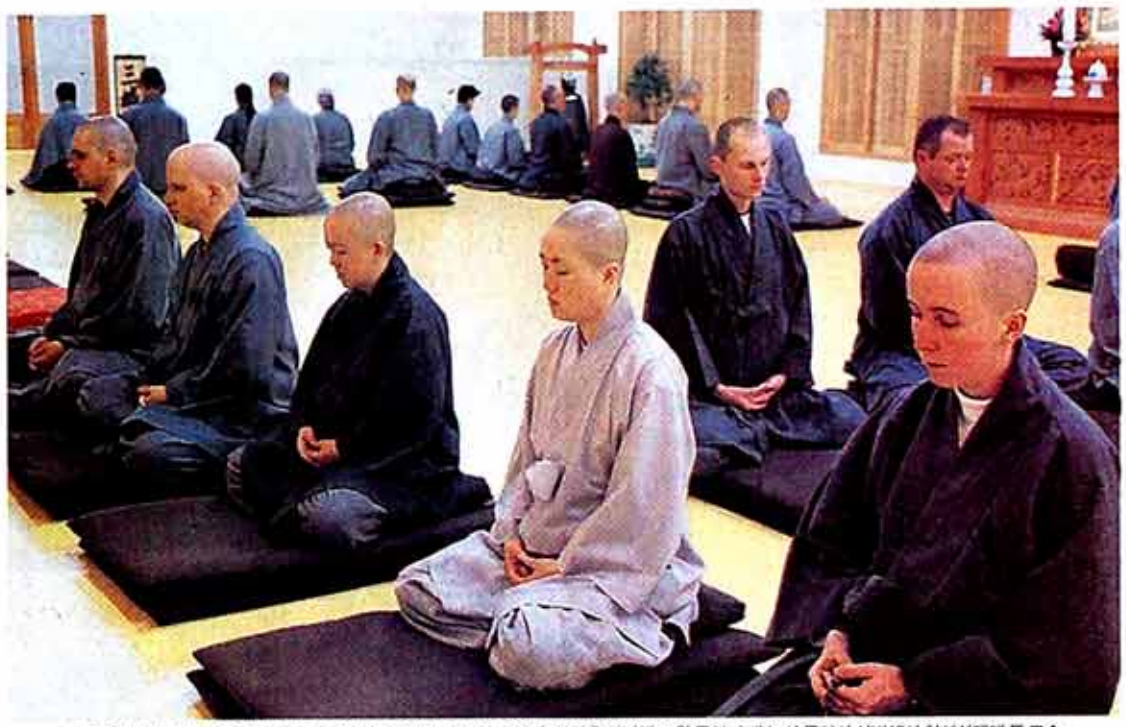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80% 이상이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의 제자다. 세간에 잘 알려진 제자들로는 현각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및 주지 오진스님 등이다.

나머지는 강화 국제선원장이자 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인 원명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등의 제자들이다. 강화연등선원에서 수행중인 혜정, 일고, 일교스님 등이 원명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마곡사 은적암 성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비구니 자은스님은 96년 공주대학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등 다른 외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의 국적도 미국·캐나다 뿐 아니라 독일 세르비아 등 유럽,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권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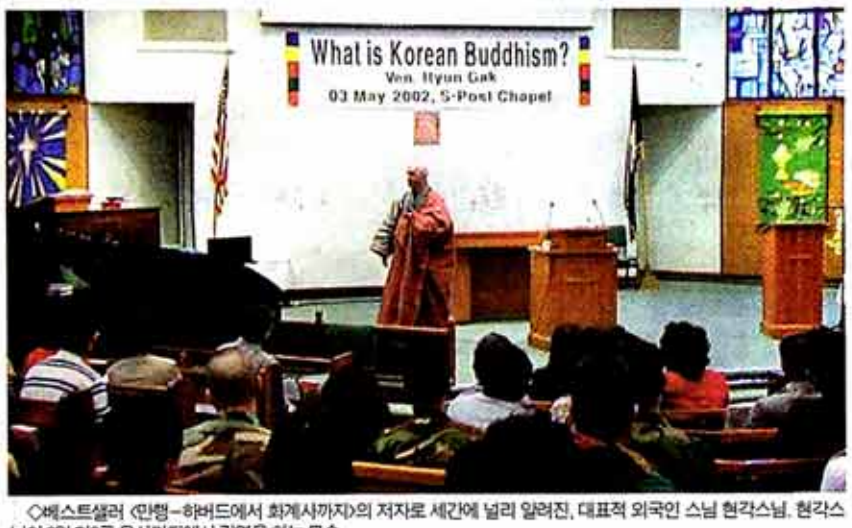
외국인 스님 가운데 무상사 대봉·오진 스님 등 조계종단 기본교육체계가 갖춰지기 전인 95년 이전에 한국에서 출가한 몇몇 스님을 제외하고는 조계종단에서 주는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거의 없다. 종단이 인정하는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는 동국대나 강원, 중앙승가대 등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을 나와야 하나, 이들 외국인 스님 대부분은 한국어에 익숙치 못해 이곳에서 공부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비구계 수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기초선원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각·대봉 스님 등 500여명
언어문화 차이 수행으로 극복
한국불교 외연 확장 큰 기여
조계종, 기초선원 지정 검토


◇외국인 스님 대부분은 한국에서 출가해 참선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안거 때 논산 무상사 선방에서 참선삼매에 든 모습.

한국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

하루하루 치열하게 수행·포교 매진



◇베스트셀러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외국인 스님 현각스님. 현각스님이 3일 미8군 용산기지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5월 3일 오후 미 8군 용산기지 내 S-Post 교회. 주한미군과 그 가족 등 200여명의 외국인들이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각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였다. 현각스님은 이날 '한국불교란 무엇인가?(What is Korea Buddhism?)'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 한동안 만행 중이던 현각스님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꽤 오랜만이었다. 법회 참가자들은 모두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로, 이들은 스님의 설법이 끝난 후에 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한국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각스님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을 하셨듯 재미있는 일화와, 선문답 등으로 질문에 답했다.

조계사 근처나 송광사·화계사 등 큰절에서는 파란 눈에 잿빛 법복을 입은 외국인 스님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 흔히들 '외국인 스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들 스님들은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불제자(一佛弟子)'인 것을….

이들 외국인 스님들을 관심 깊게 지켜본 이들은, 외국인 스님들의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마음은 오히려 한국의 불자들보다도 더 경건한 듯 보인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지만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는 그들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오히려 한국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남 논산 계룡산 국사봉 아래 위치한 무상사. 6일 오전 무상사를 찾았을 때 명안스님(말레이시아)이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달마전 아래 위치한 무문관을 막 나왔다. 무상사의 총무 소임을 맡다보니 수행에 전력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명안스님. 무상사에서는 수행이 게을러진다고 생각되면 누구든 주저 없이 무문관에 들어가 묵언과 하루 한 끼의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안거 때는 물론 산철에도 무상사의 수행가풍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낮12시가 되자 한국인 한 사람이 무상사를 찾았다. 미국,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 13명의 외국인 스님들은 해제기간 동안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 한국인 선생님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다. 거꾸로 매주 일요일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선데이 클래스' 법회를 통해 한국인에게 불법을 전한다. 부처님 오신날인 19일에는 특별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무상사 주지 오진스님(폴란드)은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운 스님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며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도님들에게 보답하고 수행자로서 중생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강화에 위치한 연등선원에도 혜정·일교(러시아), 일고(스위스), 수마나라타나(스리랑카), 헤달(인도) 스님 등 5명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고, 순천 송광사와 부산 법어사 강원에서도 각각 4명과 1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인 스님과 똑같은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

외국인 스님들은 수행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원명스님(폴란드)은 1인2역을 해내는 포교사다. 원명스님은 현재 부산포교원 부설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달 한차례씩 마련하고 있는 탈춤, 시조창, 판소리, 다도, 전래놀이, 참선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통역을 한다.

스님은 또 선무도에 관심이 많아 5년 전부터 경주 골굴사에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는 포교원 부설 연꽃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선무도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통도사 부산포교원 홈페이지(http://busanbuddhism.org)의 영어 페이지를 관리하며 사이버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 금강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고스님(미국)은 현재 동국대학교 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큰스님들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 국제포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제초기선종사에 대해 강의도 했었지만 가급적 수행과 공부에만 몰두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도반인 청도스님도 한국어를 배우는데 여념이 없다.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일보스님(방글라데시)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불교초기역사, 화·수요일 명상, 목요일 불교기초교리, 금요일 경전공부, 토요일 영어회화 및 요가 강좌를 진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보스님은 "학생들은 10여명 안팎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빡빡한 일정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하며 포교에 임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3년 전,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산디마스님(미안마)은 서울 암사동에 미안마 선원을 개설하고 고국민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안마에서 출가했지만 송광사와 서울 백련사를 오가며 용맹정진했던 산디마스님은 미안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불광산사에는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의은스님 등 4명의 대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가해 수행하던 스님 가운데는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며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도 많다.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대광스님과 정안스님을 꼽을 수 있다. 대광스님은 현재 미국 프로비던스홍법원장을 맡으며 크리스천과 불교의 조화, 종교 간의 대화 등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정안스님은 한국에서 5~6년 수행한 뒤 고국인 헝가리로 돌아가 부다페스트홍법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명우·김주일·김두식 기자

한국문화 소개·영어 교리 강좌도

7개국에서 온 스님 13명
무상사서 선데이 클래스 법회

화계사선원·범어사강원 등
일체 외부접촉 끊고 정진

귀국해서도 한국불교
알리는 '일등포교사'


◇지난해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첨단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연등축제 화보

자비광명 구석구석까지…

12일 서울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지난해보다 5만 여명이 많은 15만 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제등행렬 못지않게 연등축제를 즐기러 나온 불자들과 시민들의 수도 급증, 연등축제가 불자들만의 축제를 넘어 범국민적 축제로 완전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줬다.

올해 연등축제는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시민과 외국인들의 참가열기로 높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이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의 사회자 김병조씨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운동장을 찾은 불자들이 많은 것은 월드컵의 성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이 많아서"라면서 즉석에서 전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불자 파이팅' 연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봉은사가 전통등 양식으로 제작한 사천왕상.


◇한마음선원이 제작한 7m높이의 장엄등 '세계는 하나-우주탑'. 올해 봉축표어인 '부처님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을 형상화 했다.


◇6일 점등된 서울시청 앞 광장의 불

제등행렬 이모저모

미얀마 근로자들 불상제작 행진

○…올 연등축제가 월드컵을 불과 19여일 앞둔 시점에서 열려서인지 외국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다. 20개국 주한 외국대사들이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곧바로 연등축제에 참석했으며, 대만 불광산사, 스리랑카 '근본불교 자비도량'이 처음으로 우정국로에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미얀마선원은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들이 장엄 불상을 제작해 제등행진에 참석했으며, 네팔불자모임은 네팔의 전통춤 공연과 전통음식 시연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들을 위한 불화그리기 및 연등 제작 부스를 설치했으며,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는 티베트 판첸라마 구출 및 달라이라마 방한 캠페인을 벌였다. 거리에는 가족을 데리고 혹은 친구들과 참석한 외국인들이 많았으며, 연등 만들기는 물론, 탁본, 불화그리기 등 불교전통문화 체험에 적극적이었다.

외국대사가족들 등선물에 "땡큐"

○…올해 연등축제에는 주한 20개국 대사와 그 가족 40여명이 탑골공원 앞에 마련된 관람석에 앉아 진지하게 참관했다. 주한 외국인 대사 가족들은 불을 환하게 밝힌 등을 든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뷰티풀'을 외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특히 제등행진 하던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전통 해바라기등, 종등, 북등을 선물하자 귀한 선물을 받은 듯 "땡큐!"를 외치며 고마워 했다.

외국인 대사들과 그 가족들은 국제포교사회 행렬이 지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이 11일 김천 직지사템플스테이에서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행진에 동참했다.

장엄등 갈수록 웅장·다양화

○…십이지신, 해바라기, 별, 금강저경전… 연등축제에 등장하는 장엄등들이 해가 갈수록 웅장하고 다양화되어 연발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특히 한마음선원은 전통등 방식으로 섬세하게 만든 해바라기등 북등 종등 비파등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태종은 불을 품는 네 마리 용과 함께 12지신을 각각 본 떠 만든 12지신등, 코끼리등, 종 등 장엄등을 선보였고 간간히 레이저를 쏘아 종로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 탄성을 자아냈다.

참가인원 작년보다 5만 늘어 15만명

20개국 대사 템플스테이 마치고 참가

십이지신, 해바라기등 장엄燈 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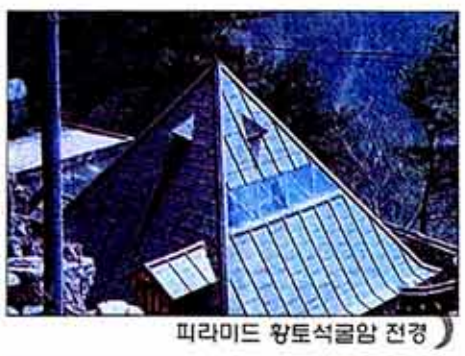

◇ 대학생불자들이 제등행진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천태종의 십이지신상 장엄등.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피라미드안 거실 및 황토 돔의 구조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정지점(바닥에서 꼭지점 3분의 1지점)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가지 신비한 현상(탈수 건조 현상 및 연도날 재생, 식물 생장 및 발아 촉진,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현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몸의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귀울여 보자.

엄청난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혀돌아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황토석굴암 구조

• 크 기 : 지름 (내경) 380cm
• 두 께 : 35-40cm • 높 이 : 210-270cm

피 라 황 토 시공 문의 017-585-6045 019-558-835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물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워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원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 마 당 長腦山蔘

국민 축제' 한마음 열광



항룡사 9층탑을 재현했다. 높이15미터.


◇올해 대폭 늘어난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해 연등 제작코너도 늘어 외국인들의 불교문화 체험을 도왔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연등제작 경연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


◇소쩍새마을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로 제등행진에 동참했다.


동한마당에 참가한 불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
하며연등축제를 마무

축제에서 사물(寫佛)체
하고 있는 새싹불자들.

별 멘 금은빛복장 '인라인부대'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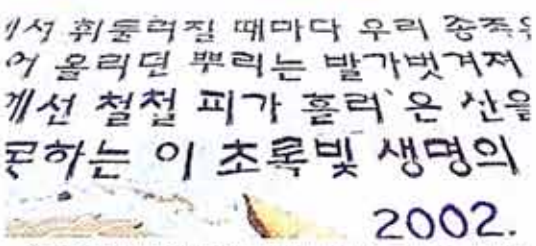
외국관광객들 '원더풀'…장단맞춰 '덩실'

꽃비속 우정국로서 회향 '대동한마당'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정대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설치미술가 최병수씨가 우정국로에서 북한산을 주제로 한 환경퍼포먼스를 펼치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일깨워줬다.

제등행렬 이모저모

"우리나라도 했으면…"

○…12일 낮 12시 무렵부터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들. 네덜란드, 미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 국적은 달라도 모두 함께 국제포교사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소쩍새마을이 마련한 연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 직접 만든 등을 선물로 받고 즐거워 연신 싱글벙글.

브라질인 리지아 씨의 다섯 가족, 영국인 린다 씨, 2명의 친구, 미얀마 불자인 헨소우씨 등도 연등 선물에 '원더풀'을 연발하며 풍물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헨소우 씨는 "미얀마는 초파일 행사가 법회밖에 없다"며 "한국의 연등축제와 같은 행사를 미얀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학생들 거리포교

○…제등행렬에서 단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마음선원 어린이들의 '인라인 부대'. 등 뒤에 형광빛이 환한 '별'을 멘 채 금·은 빛의 반짝이는 복장으로 롤러블레이드라고도 불리는 인라인을 타고 행렬 앞뒤를 종횡무진. 특히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율동까지 선보이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너무 예쁘다"며 탄성을 연발.

또 한마음선원 거리 학생회 포교단이 처음 등장, 포교에 나섰다. 형형색색 화려한 복장을 한 한마음선원 중고등부 학생들은 탑골공원 앞에서 풍물, 난타, 스포츠댄스, 부채춤, 수화, 중창, 연꽃등춤, 힙합댄스 등을 공연하며 흥을 돋구었으며, 제등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열렬한 응원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북한에 대해 알아봐요' 퀴즈

○…"북한에서 '지하궁전'이라 부르는 것은?" "지하철". 거리축제에서 (사)좋은 벗들과 중앙대 북한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에 대해 알아봐요' 퀴즈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북한 바로알기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에도 어린이날과 스포츠 스타가 있고 학생들은 교복으로 멋을 부릴 줄도 알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는 천도교이고 '부등호'는 '안 갈기 기호'라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입으로 종이학접어 눈길끌어

○…소쩍새마을의 시인인 지체장애인 안명훈 군(24)이 거리축제에서 입으로 종이학을 접어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안 군의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불자들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안 군이 쓴 시집을 구매하기도.

중계차 3대로 6시간 생중계

○…지난해에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제작비 문제로 방송을 하지 않았던 불교TV가 올해에는 중계차 3대와 카메라 10대를 동원해 오후 4시20분부터 밤 10시까지 케이블과 위성으로 생방송을 실시해 불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한마음선원 인터넷 방송국도 불교TV와 제휴해 인터넷으로 연등축제 행사를 생중계 했다. 불교TV의 이번 생방송은 조계종과 천태종, 한마음선원의 제작비 지원으로 이루어 진 것.

시민·외국인 섞여 신명난 뒤풀이

○…제등행진이 끝나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향식인 대동한마당이 우정국로에서 열렸다. 대동한마당에서는 연등법회에서 작성한 발원지 소지와 기원 날리기 의식이 하이라이트였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유독 월드컵 성공기원과 한국축구선수단의 16강 진출을 바라는 불자들의 기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봉축특별취재반〉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색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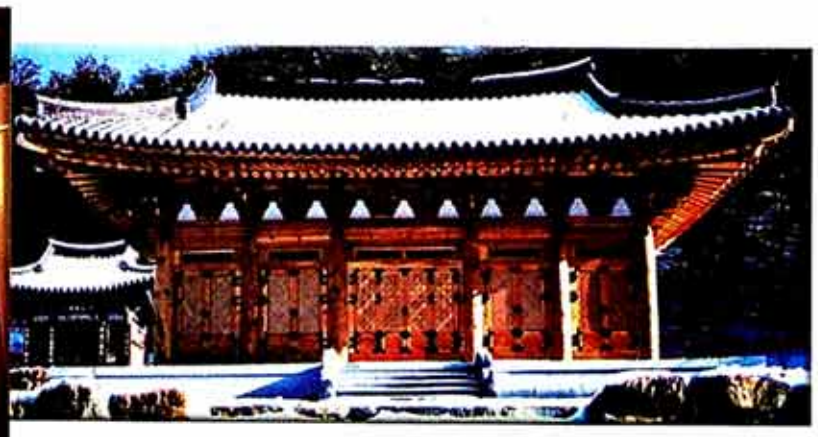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瑳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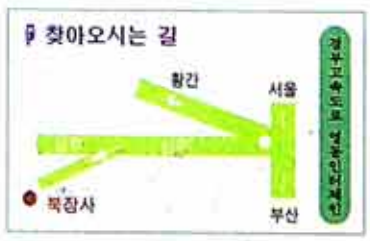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교통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㉜ 제바달다품 제12

악인성불

이 '제바달다품'은 쿠마라지바(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에서는 '제12장'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정법화경>이나 <산스크리트본(梵本)>에서는 '제11장 견보탑품' 속에 포함돼 있어 여기서부터는 <묘법연화경>의 품수(章數)와 <범본>이나 <정법화경>의 품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제바달다품'은 석존의 전생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 품은 '현재의 석존이 아득히 먼 옛날에 어떻게 하여 <법화경>을 얻었던가'라고 하는 석존의 과거 수행이야기이다. 석존께서는 이 법회에 모인 보살과 천신 및 사람들, 비구·비구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옛날 오랫동안에 걸쳐 <법화경>을 계속하여 구해왔다. 큰 나라의 국왕으로 있을 때에 원(願)을 세워 최고의 깨달음을 구해왔다. 대승의 보살로서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六度)을 완성하려고 보시의 행을 닦아 재물, 나라, 처자(妻子),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임금자리를 버리고 북을 쳐서 시방에 포고를 내려 법을 구했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선인(阿私仙人) 즉 무비(無比)라는 선인(仙人)이 있어 대승의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선인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으니 열매를 따고 물을 긷기도 하고 땔나무를 줍고 식사를 준비하며 이 몸을 모두 바쳐 섬기기를 1천년을 계속 했으나 그래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줄 몰랐다. 마음 속에 묘법을 구하는 마음을 계속 품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법화경>을 얻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법화경>을 구하는 과거세의 수행을 대중에게 설하고 또한 과거세와 현세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한다.

"그때의 왕이야말로 지금의 나이며, 내가 섬긴 선인은 누구인가 하면 지금의 데바닷타(提婆達多; Devadatta)이다. 그리고 데바닷타야말로 나의 좋은 벗(善友)이며 그의 덕으로 나는 깨달음을 완성하고 부처로서의 온갖 덕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하신 다음 석존께서는 데바닷타에게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라는 예언(授記)을 주고 그 이름을 천왕여래(天王如來)라고 하리라 한 다음 대중을 향해, "미래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치 않고 당혹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아귀·축생계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 그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면 매우 높고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이며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경우에는 '부모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자연히 연꽃에서 '보살로' 태어날(化生) 것이다."

살인등 5역죄 범한 악인 '제바'
석존 "미래세에 성불할 것" 예언

한문 번역에서의 제바달다란 데바닷타의 음역이며 제바(提婆)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조달(調達)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석존께서 성도한 후에 출가하여 5백인의 비구를 꼬여서 교단을 분열시켜 화합승(和合僧)을 깨뜨렸고, 큰 돌을 던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였으며,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루왕에게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게 하여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하였고, 주먹으로 화색(華色)비구니를 때려죽이는 등 악역무도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다. 데바닷타는 이렇게 5역죄를 범한 악인이며 이러한 악인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의 예언을 받았다. 대악인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 하물며 선인(善人)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악인 성불은 뒤의 용녀성불(龍女成佛)과 더불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화경>의 사상이 일체 만물만상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데 그 존재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무설정사 조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대정스님 (범어사 선덕)

"부처님 이세상 오신뜻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봄. 대정스님을 뵈러 가던 날, 말갛게 개인 하늘과 햇살이 유난히 반가웠다. 겉옷을 재촉해 당도한 휴휴정사 입구에서 불현듯 갈증이 났다. 순간, 대정스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은 왜일까?

"스님-."

반갑게 문이 열리고 어서 오라며 반겨주신다. 그리고는 내 어쭙잖은 확신을 알기라도 하신 듯 미리 챙겨두었던 음료수를 내어 놓으신다. 갈증이 났던차라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제주도에서 나는 밀감으로 만들었다는데 맛이 좋지? 마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맛이 오렌지 쥬스보다 오히려 나은 거 같지?."

3년전 뵈었을 때보다 스님의 얼굴이 더욱 맑고 젊어지신 듯하다. "스님, 3년 전보다 오히려 젊어지셨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그래. 얼마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료카드를 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예'하고 대답을 했지. 그런데 또 부르는거야. 그래서 또 '예'했지. 그런데 그 의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을 또 부르는거야. 그래서 나라고 했더니 카드에 적힌 나이보다 너무 젊어보여 아닌 줄 알았다고 하더군. 그런데 2개월 전에 3년만에 감기가 들었어. 감기가 잘 안드는 데다 들어도 입주임이면 괜찮아지는데 이번에는 오래가서 고생을 했어. 감기 기운은 없어졌는데도 계속 콧물이 나오고 차도가 없더니만 한 보름전에 저절로 완전히 끝났어. 그러나 몸은 물과 불 바람 흙 4대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마음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 그림자를 움직이는 마음을 깨쳐야 돼. 마음이란 것은 처음이 없으니 끝이 없고 또 본래 태어난 일이 없으니 죽음이 없고 또 동과 서가 없으니 공간이 없고, 또 과거 현재가 없으니 시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지. 그러나 또 없는가 하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나 알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마음을 사람마다 똑같이 갖고 있단 말야. 형상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마음에는 차별이 없어. 그러니 마음을 깨치고 못깨치고의 차이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지, 마음에는 너와 나, 중고 나쁨의 차별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드려도 항상 결론은 수행으로 귀결되는 답변이 되돌아와 마음을 울린다. 오랜 세월을 두고 스님을 알고 지내는 이들 대부분이 스님의 건강비법이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곤 한다. 스님은 "비법은 없다"며 "딴 생각 않고 오로지 일념으로 정진하며 앉아 있으니 저절로 그리 되더라"고 하신다. 스님께는 일상이 되어버린 '일념'이 세인들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비법임을 스님은 알고 계실까?

"부처님 오신날이라고 절마다 등을 단다, 봉축 행사를 한다 온통 분주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참뜻을 바르게 잇는 것입니까?" 행사로만 그치는 초파일이 되지 않아야 겠다는 바람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물론 처음부터 100%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오직 도를 위해서야.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만 있지를 않고 자꾸 변하니까 허무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로지 허무하지 않은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도야. 부처님께서 오실 때 최초에 하신 말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바로 도를 일컬어 한 말이거든. 도는 보통 클 대(大)자를 붙여 대도(大道)라고 하잖아. 그러나 그것은 크다는 뜻의 대도가 아니라 비교할 상대가 없다는 뜻이야.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도야. 또한 부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은 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곧 법이 되지. 법은 도의 원리야. 그러니 원리원칙만 바로 알면 도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우리는 도라고 하면 어디 멀리있고 특별한 것이라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아.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도를 여의고는 살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도를 멀다고 느끼는 것은 도가 우리를 멀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를 멀리했기 때문이야. 평상심, 즉 '호흡하고 앉고 눕고 서는 것이 도'라 했거든. 실제 도라는 것 자체는 법계에 충만해 있으며,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항상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쳐 증득하면 영원불멸, 다시는 변함없는 이치를 알게 돼. 오고가는 중에 도가 있지만 그것을 알면 부처인 것이고 모르면 중생인 것이지. 알고 모르고를 따라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나오니 알아야 하겠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속에서 항상 변함없는 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훌륭한 수행을 배워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마음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평상심이 곧 도라고 강조하는 대정스님.

몸은 마음따라 움직이는 그림자

범어사를 품고 있는 금정산에는 금정팔경(金井八景) 즉, 금정산의 8가지 절경이 있다. 어산교 주변의 울창한 노송의 아름다운 풍치, 계명암에서 바라보는 가을달의 아름다운 풍경, 청련암 주위에 울창한 대숲에 내리는 빗소리를 밤에 듣는 운치 등 그 절경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소리와 시간, 공간 등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것들이다. 물론 이 절경의 완성은 외부의 조건들에 계합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늦은 봄, 맑은 햇살 내리는 오후에 휴휴정사에서 대정스님의 법을 듣는 것이 또 하나의 절경으로 보태져도 손색이 없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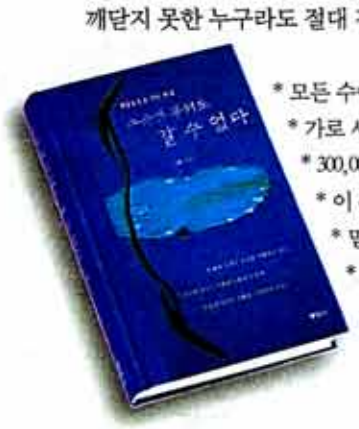
마음이란 것은
처음이 없으니 끝이 없고
태어난 일 없으니
죽음이 없고
동과 서가 없으니
공간이 없고
과거 현재가 없으니
시간이 없어
시·공을 초월한 것이지…

"부처님께서 세속을 떠난 이유가 뭔가 깊이 생각해봐. 허무한 세상 일을 인식하고 보니 허무한 인연에 매여 살다보면 허무한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진실하고 허무하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 출가를 하신 것이지. 참된 진리,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아무런 공력도 들이지 않고, 죽비로 내려치듯이!
– 화엄(華嚴), 양자역학, 그리고 엑스터시 –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창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한다.



*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다니?
* 300,000km/sec의 절대속도는 정지 상태와 다르지 않다
* 이 우주에는 '지금'도, '먼지'도, '나중'도 없다
*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 항상 반쪽이면서 동시에 늘 꽉 차 있다
* 불보살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大통 지음 | 값 15,000원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전세계 4대 생불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숭산 스님의 365 공안집.

하버드·예일대를 졸업한 서양 엘리트들을 스님의 깊로까지 이끌었던 바로 그 책!



무심 편집 | 값 12,000원

현암사의 알기 쉬운 불경 시리즈

반야·유마경
대승의 깊은 뜻에 대한 유마와 문수보살 간의 문답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설한 경전.
이시다 이즈마로 지음 | 값 9,800원

야참경
풍부한 예화로 부처가 직접 행한 설법, 불교의 뿌리 경전.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값 9,800원

화엄경
대승경전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이 집약된 안내서.
다마키 고시로 지음 | 값 9,800원

미란타왕문경
그리스 왕 미란타와 나가세나 존자 사이의 크나큰 대화! 불교 철학과 헬레니즘 사상을 대비시킨 독특한 경전.
이시카미 젠오 지음 | 값 9,800원

열반경
석가의 죽음을 전후한 경과와, 죽음 너머 영원한 세계로의 길을 밝힌 경전.
다무라 요시로 지음 | 값 9,800원

재미있는 불교동화

나한 이야기
부처님의 열여섯 제자가 제각각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 이야기.
선용 글 / 김태흐 그림 | 값 6,000원

어린이 팔만대장경 1, 2, 3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동화, 설화, 우화 이야기!
신현득 글 / 문조현·문영미 그림 | 각권 값 6,000원

내일 오실 부처님
전쟁도 도둑도 없이 사람이 8만4천 살까지 살 수 있는 아득한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이야기.
선용 지음 | 값 6,000원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 365-5051, 팩스 : 313-2729, E-mail : editor@hyeonamsa.com, 사이버 철학 카페 "소피의 세계" www.sophie.co.kr, 사이버 법정 www.i-solomon.co.kr *전화주시면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대정스님이 선정삼매에 들었다.



즉 드높 위해 속가를 그만두었고 수행을 통해 도를 성취하고 도를 성취함으로써 부처가 되었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거든. 정진은 물러섬이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해. 부처님 오신 뜻을 따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왠만한 일이는 흔들림없이 일념으로 정진하는 일이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일념으로 정진하는 일, 그것은 스님의 일상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 3년 전과 변함없는 것이 스님의 색신뿐 아니라 간소한 방안 풍경, 한결같은 정진 등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널은 좌복, 작은 옷장 2개. 그리고 전화기. 이것이 전부인 스님의 방은 그러나 전혀 부족감을 느낄 수 없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방바닥을 내려다보다 "방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짐짓 딴청을 피워본다.

"방은 운동삼아 하루에 한번씩 청소하고 누가 다녀가면 청소하고 그러지. 시봉이나 마을신도들이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데 전부 금지야.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하거든. 청소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삼시세때 큰방가서 대중공양하고 그래. 그 외에는 꼭 나가야 할 일외에는 안 나가고, 해야 할 말외에는 입을 닫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종종 공부하는 이들이 찾아 오면 부득히 만나 줄게 대해주고 지도해 주고 있지. 그외에는 고요히 앉아 한마음 한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16살에 속가 떠난 이후 오늘까지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어. 오직 한길, 한뜻 뿐이지. 일구월심, 일편단심, 물철주야하고 지내고 있지. 오늘까지 51년간 항상 그대로 오매불망 도를 위해 살고 있지. 이제 남은 것은 도를 마무리하고 몸 줄게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염불이든 선이든 일념으로 해야



◇대정스님이 휴휴정사 마루에서 기자와 대담하고 있다.

실제 스님의 철저하고 검약한 생활은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스님의 일념정진으로 스님의 방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처음엔 지나는 스님들이 왜 밤에 불을 끄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또한 스님은 빨래도 당신이 손수 하시므로 손이 많이 가는 삼베, 모시 등 천연소재로 된 옷은 없다. 신도들이 해오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주물러서 털면 그만인 것으로 계절별로 딱 두벌의 옷이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스님의 승복 동정밖으로 보이는 속의티가 수상하다싶더니, 스님께서 손수 밀에 단을 잘라 목둘레에 손바느질로 기워 입으셨단다. "밝은 날 마루에 앉아 바늘 귀 끼고 바느질했더니 목이 말이 파여서 불편하면 것이 해결됐지. 허허허."

'평상심이 곧 도'라 했던 선사들의 가르침을 스님의 바느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렴풋이 짐작해 본다. 스님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해 보여 오히려 특별하기까지 하다.

"도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느끼고 아는 것에 얽매여 있으니 문제지. 이 모든 것은 참이 아닌데 참으로 생각하고 속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속으니까 이게 곧 미혹이요, 어둠이거든. 말하자면 푸른 하늘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구름 즉, 번뇌망상이 가득 일어나니 하늘이 없어지는 듯 보이거든. 그런데 푸른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것을 가렸을뿐이잖아. 도라는 것도 그와 똑 같아. 그래서 도를 위해서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중생들은 다생다겁을 두고 근본을 잊어버린채 견문각지에 얽매여 살아 나왔거든. 그러니 그 습관을 소멸해야 돼. 그런데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익힌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법에 의지해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차츰차츰 해결이 되는거지 하루아침에 해결나는 게 아냐. 그리고 마음이란 것은 어떤 생각이나 말로는 알수가 없어. 진심은 견문각지를 초월해서 오직 자신의 근본 마음을 깨쳐야만 드러나게 돼. 그러기 위해선 선을 해야해. 선의 진면목은 화두인데 화두이게 좀 어려워. 알고 보면 화두가 가장 쉬운 것인데도 말야. 화두는 의심이거든. 그러니 이 알수없음의 의심이 해결되면 일체 지혜를 얻게 되고 금강반야를 깨닫게 되어 있어.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없는 것과 같이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의 마음이 없고, 부처의 마음에는 중생심이 없고 무명이 있으면 반야가 없고 의문, 즉 알지못함이 있으면 깨침이 없거든. 중생이 의심이 없으면 부처란 말이지. 화두, 이것만 타파되면 전체가 파탄되고 만법에 통달하게 돼. 원리는 간단한 것이라 화두는 천하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천하에 어려운 것이야. 허허허. 결국 깨침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이 나는데, 깨침을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 결국 '수행'만이 부처를 이루는 출발이며 끝이라는 말씀이다. 스님은 또한 수행에는 기본수행법과 근본수행법이 있다며 기본 수행법은 염불, 예불, 기도, 주력, 독경 등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근본수행법은 참선 즉 근원적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정리했다.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야. 습관화된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안되기 때문에 염불, 기도, 참회 등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거야. 그러나 염불, 기도 주력도 열심히만 하면 결국 한마음이 되거든. 한마음이 되면 화두에 계합이 되는때가 와. 그때부터 진짜 공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일념이 되는 것이 중요해. 부처님말씀에 일념정심으로 도량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검은유리 칠보로 보배탑을 세우는것보다 공덕이 크다는 말이 있어."

근원을 해결하는 길을 부처님은 이미 2546년전에 오셔서 일러 놓고 가셨다. 길을 일러주신 안내자를 따라 그 길을 가고 안가고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부처님은 전능의 구제자가 아니라 다만 길을 일러주는 도사(導師)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라 51년을 살아오신 대정스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서 실천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r@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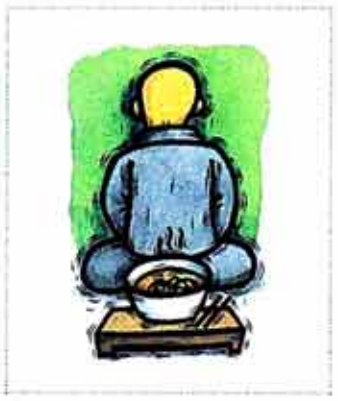
홍법스님



홍법스님은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의 제자이며 서울 구룡사 정우스님의 은사스님이다. 나에게는 사숙님이고 통도사 강원 스승이셨다. 내가 강원생활을 하던 60년대 후반은 모든 것이 모자라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홍법스님같은 진심한 수도자를 만날 수 있었고, 때묻지 않은 양심을 지녔던 스님들을 뵐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난다'는 말이 홍법스님과 정우스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홍법스님의 어른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다. 스님은 조석 예불을 마치고 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스승이신 월하스님의 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다. 우리 반에는 스님의 직계 상좌는 없었지만 조카 상좌들이 몇 있었는데, 스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어른들께 문안 좀 드리면서 살아라. 어찌하여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문안을 그렇게 가지 않느냐?" 꾸중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어른 문안은 길어야 며칠이었고,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한 도량에서 하루 세끼 공양을 같이 하며 얼굴을 마주 보고 사는 은사스님에게 매일 문안을 드리고, 은사스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 받아들이고 따르면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스님은 키가 크셨고 눈이 커서 겁이 많아 보였다. 장삼을 입고 도량을 다닐 때는 뒤꿈치를 들고 소리나지 않게 다니셨다. 걸음걸이에서도 수행자의 기품이 배어 있었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얼마나 인욕하고 하심하는지 알 수 있었다.

60년대 후반은 탈레할 때마다 다려 입어야 했던 광목이나 무명 베옷이 나일론에 밀려 버림받던 시점이었다. 어린 사미들은 손질하기 힘든 광목옷보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건져서 툴툴 털어 잠시 바람을 쏘이면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옷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백프로 나일론 옷인 다우다가 생기면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서로 자랑하였고, 떨어지지도 않은 광목옷을 버리곤 했다.

스님께선 도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버려진 무명옷들을 주워놓곤 하셨는데, 하루는 팡팡 얼어가는 겨울 계곡물에 혼자 빨래를 하고 계시길래 내가 해드리려고 다가갔더니 한숨을 쉬시며 그러셨다.

"그냥 두세요. 요즘 스님들은 시주 물건 무서운 줄 모릅니다. 보세요. 멀쩡한 옷을 이렇게 버리다니, 이렇게 중노릇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주워놓은 옷들을 차가운 계곡물에 하루종일 빨아서 풀먹이고 다려서 개어 두었다가 행자들이나 옷이 없는 객스님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다.

라면이 처음 나왔던 그 때, 라면 공양이 들어오면 그것은 특별 공양이었다. 우리는 저녁공양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빈 발우를 펐다가는 거두고 모두 급한 걸음으로 천자각(天子閣)으로 몰아왔다.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삶으면 그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부엌은 홍법스님의 방과 붙어있어 냄새가 진동했으니 스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다.

"대중이 대중공양을 안하고 이렇게 별식을 만들어 먹으면 대중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그 삶는 것이 무엇입니까? 냄새가 너무나 역겹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스님에게는 역겹다니…. 스님은 보통사람이 아닌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라면을 새로 개발된 국수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수는 스님들 모두 좋아하시니 스님께서도 좀 드시라' 하면 방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도 안 거르고 은사 문안
즐기는 僧笑 "시간지났다"거절

"일 없습니다. 출가인이 이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 되나요? 저녁 공양 뒤에는 귀신들이 먹는 시간인데 수행자가 그 시간에 무엇을 먹으면 귀신이 좋아라 달려붙습니다."

스님들은 대부분 국수를 좋아한다. 불가에서는 국수를 승소(僧笑)라고 하는 것도 스님들이 국수를 보면 웃음을 머금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 듯하다.

홍법스님께서도 국수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면서도 시간이 아니라 하여 드시지 않고 깨끗이 치우라고 당부하면서 방문을 닫으시던 스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셨다. 지관스님, 원운스님, 각성스님 그리고 홍법스님께서 운허스님을 가운데 모시고 통도사 적멸보궁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흰 글씨로 '강원대교 졸업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위의 스님들은 통도사 강원에서 운허스님을 모시고 몇 년을 공부하여 졸업사진까지 찍었으나, 마침 운허스님께서 해인사로 가시는 바람에 졸업식을 해인사에 가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인사 강원 졸업 1기생이 통도사 강원 1기생인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奉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祝

불교TV 2546년 부처님 오신날 주간 특집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생중계
▶방송시간 : 5월 12일(일) 17:00-22:10 (1부, 2부, 3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생중계
▶방송시간 : 5월 19일(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특집 좌담 "불교 포교 현장을 점검한다."
* 군포교의 현장 [대담 : 조계종 포교사단]
* 불교 문학과 포교 [대담 : 정원영 선생(시조시인)]
* 불교 복지와 포교 [대담 : 조계종 사회복지관재단, 진각종 복지재단]
▶방송시간 : 월(5/13), 화(5/14), 수(5/15) / 11시 55분 / 16시 45분 / 22시

특집다큐멘터리 "의상대사"
▶방송시간 : 5월19일(일) / 7시40분 / 17시35분

특집다큐 "달라이라마의 칼라차크라 법회" [2부작]
▶방송시간 : 목(5/16), 금(5/17) / 11시55분 / 16시 45분 /22시

특집다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청스님]"
▶방송시간 : 토(5/18) / 11시55분 / 16시45분 / 22시

진각종 다큐멘터리 [2부작]
▶방송시간 : 5월 19일(일) 19시15분(1부) 20시20분(2부)

특선영화 "비단장자리" [국방홍보원 제작]
▶방송시간 : 5월 19일(일) 8시40분/ 23시20분

부처님과 함께
불교TV와 함께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공초빌딩별당)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 (02)3270-3498

www.btn.co.kr
www.btni.co.kr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시청방법
• 케이블TV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시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 신청문의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부처님오신날 봄만한 프로그램

방송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18일) 12:00	특집다큐 '석정스님'	불모 석정스님의 작품세계 조명
	(19일) 06:40	영화 '비단잠자리'	군종법사의 설득으로 고참병과 신병의 대립이 해결된다는 내용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생중계
불교방송	08:00	특별 대담 '큰스님께 듣는다'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에 대해 설법한다.
	09:05	'아름다운 신랑, 또다른 동행'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음악세계 조명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봉축 법요식 생중계
	12:10	'연꽃 향기 속으로'	불자연예인들이 노래와 신행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6:15	'연등으로 불 밝히고'	지방사를 연결해 부처님 오신날 전국 사찰의 표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23:05	'함께 더불어 사는 삶'	보시행을 펼치고 있는 '사랑의 음식 봉사단'의 활동을 소개해 준다.
원음방송	(18일) 16:05	'부처님 오심을 경축합니다'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인터뷰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들려준다.
국악방송	08:00	'심전스님의 일요무대'	불음가수 심진 스님이 찬불가요 콘서트를 한다.
KBS-1TV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11:00	특집다큐 '길 위의 불자들'	인도의 수자타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모습 소개
	22:20	영화 '화엄경'	동자승의 구법여정을 그린다.
	(21일) 미정	한국의 미 '전통등'	장인시 스님들의 연등 제작 과정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
MBC-TV	10:00	봉축법요식 생중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봉축법요식 생방송
EBS-TV	13:00	특집 다큐 '발우공양'	발우공양의 의의와 유래, 의식 순서를 소개해 준다.
	22:00	특선 영화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영화화 했다.

다큐 '길 위의 불자들' 볼만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교계 방송을 비롯한 각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한다.

이중 KBS-1TV의 '길 위의 불자들'과 EBS-TV의 '발우공양', 불교TV의 특선 영화 '비단 잠자리' 등은 눈여겨 볼만한 프로들이다.

방송사들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양



◇불교TV의 석탄일 특선 영화 '비단잠자리'에서 군종법사(최상훈 分)가 고참상병(이훈 分)에게 신행상담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낮 12시) 방영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길 위의 불자들'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집단 거주지 둥게스와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자타아카데미 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을 조명했다. 이 프로는 박남규씨와 정상민씨 등 7명의 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과 의료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과 보람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오승배 PDJRN 프로덕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봉사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통해 수행과 실천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같은날 EBS-TV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발우공양'(오후 1시~오후 2시)은 발우공양의 유래와 의의, 의식 순서를 자세하게 소개해 준다. 경북 김천 직지사 말사인 비구니 도량 청암사에서 촬영한 이 프로는 특히 외경심이 일 정도로 엄숙한 비구니 스님들의 발우 공양 모습에 자세한 해설과 자막까지 곁들이는 등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불교TV가 기획한 특선영화 '비단잠자리'(오전 8시40분~오전 10시)는 병영에서 고참병사와 신병간의 반목과 대립을 군종법사의 충고와 설법으로 화해해 가는 과정을 영화화했다.

불교방송도 도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님을 초청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듣는 특별대담 '큰스님께 듣는다'(오전 8시~오전 9시)를 방송한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문헌 등 인문학 전산화 작업

'전문·표준·세계화' 원칙 지켜야

허인섭 교수 주장



"학술적으로 의미있고 활용가능한 인문 자료 전산화 작업은 전문학자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4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BTI(세계전자불전협의회)와 ECAI(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의 발전을 통해 본 불교문헌 및 문화 관련 DB 구축의 과제고찰'을 발표한 허인섭(사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 겸임교수는 "인문학 전산화 작업은 '전문화, 표준화, 세계화'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무시될 경우 구축된 DB는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심하게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불교문화지도 DB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겪었던 시행 착오와 극복 과정을 사례로 발표한 허 교수는 특히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 초기, 영인본 판본 연구 부족과 기준이 되는 판본의 설정 부재로 인한 시행 착오를 예로 들면서 "1차 단순 자료 입력 후의 소위 콘텐츠 분석에는 거의 모든 작업이 세부 전공 분야별 불교학자들의 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구축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검색 범주의 표준화 역시 절실한 문제다. 허 교수는 "디지털 문화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 모델 개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자료를 구축한 후 세부 분야별 전공자 또는 그룹이 표준화된 범주 체계에 따라 자료를 축적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금니사경 작품 등 한눈에

21일까지 백상기념관서 '전통사경전'



◇김경호씨의 '감지금니 여래10대 발원문'.

지금도 '사경'은 삼매나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방편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그래서 손끝에서 나오는 기교만으로는 제대로된 사경작품이 나올 수 없다.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는 사경연구가 김경호씨의 '전통사경전'에 가면 불교의 전성기인 고려시대의 사경기법 등 우리나라 전통 사경 작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25년간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경기법을 철저히 연구해 온 김씨는 한국에서 전래된 사경기법을 기록한 일본 천평시대(8세기)의 고문서까지 두루 섭렵하며 전통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었다. 특히 김씨의 금·은니 작품은 묵서보다 더 정교한 필획을 구사하고 있다. 금·은니 사경 후 표면의 야교를 제거하는 것과 금·은을 3회이상 정제해 순도를 높이는 작업도 김경호씨만의 독창적인 작업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순지, 감지, 자지 등을 가공한 종이에 먹, 금·은분, 경면주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한문해서와 한글 궁체, 목판본체 등으로 쓴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발심수행장 등의 경전과 발원문 작품 52점이 선보인다.

화두로 보는 禪화전

19일까지 강화 전등사서

천진한 모습의 동자승을 화폭에 담은 김수연 씨의 '화두로 보는 禪화전'이 16일부터 19일까지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김씨의 이번 전시회에는 공양을 이고 가는 동자승의 모습을 그린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차나 한잔 나누세', '무심', '염불삼매'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성악가 정을 스님의 음반 자켓 작업을 하기도 했던 김씨는 "인간 본래의 불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동자승이 가장 효과적이라 98년부터 동자승을 주로 그려왔다"며 "뉴욕에 있는 백림사에서 3천배 기도를 하다가 붓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미국의 선센터와 뉴욕 소호갤러리에서도 개인전 을 갖고 있다. 1032937-0125



◇김수현의 '오직 이 순간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최근의 문화 현상 중에서 주목받는 코드 중의 하나는 '환타지(환상)'라는 말이다. 얼마 전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해리 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이 전형적인 환타지 소설이다. '환타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친숙한 세계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컴퓨터 게임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도 넓은 의미의 환타지이다. 과거에는 감각되는 물질만이 현실세계를 구성하였지만, 지금은 화면에 나타나는 저 방대한 월드 와이드 웹(www)의 가상세계가 현실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환상이 실제 못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오랜 통찰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다시 한 번 인간과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전형적인 판타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서유기>의 경우에서도 현실과 환상은 뒤바뀐다.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삼장법사는 현실적인 인물이고 손오공 등은 환상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장법사는 맹물 같은 캐릭터의 비현실적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가상 인물인 손오공과 저팔계 등은 저마다의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말하자면 환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리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사실은 삼장법사의 분신들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현실(삼장법사)과 환상(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교차시킴으로써 실제 삼장법사의 입체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서산대사의 '세가지 꿈'

주인은 손님에게 꿈이야기를…
손님은 주인에게 꿈이야기를…
꿈이야기 하는 그 두사람도
역시 꿈속의 사람일지라

인생의 진리는 사진보다 그림으로 포착하기가 더 용이한 법이다. 사진으로 마음을 찍기는 어렵지만,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자아를 표현하기엔 사진(현실)보다 그림(환상)이 더 유효한 것이다. 진정한 자아는 현실 속의 '나'와 이상으로서의 '나'를 합쳐야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에서는 '나는 나 아닌 것이 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묘하게 표현한 이는 묘향산에 오래 살아서 서산대사라고 불리는 청허휴정(1520~1604) 스님이다. 그는 득도한 후 금강산에 있을 때, '세 가지 꿈 이야기(三夢詞)'를 지었다.

주인은 꿈 이야기를 손님에게 말하고 主人夢說客
손님은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말하네 客夢說主人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그 두 사람도 今說二夢客
역시 꿈속의 사람일지라 亦是夢中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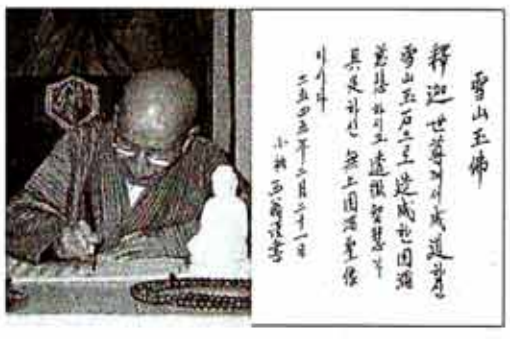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첫 걸음이라고 한다. 환타지 영화와 인터넷의 범람으로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의심받는 요즘,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자아라는 것 역시 하나의 환타지가 아닐까 의심해 보게 된다.

■문학평론가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불교 열광 美젊은이들 체험담

청바지를 입은 부처

수미 런던 엮음
임진숙 옮김



"행복해지는 법을 깨닫게 하는 종교"
하버드大 불교동아리 인기 4~5위

30여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자신을 '불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급진주의자 혹은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소수의 기행으로 치부되던 명상과 요가, 좌선 등에 매혹된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벗어버리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창립된 미국 하버드대 불교동아리는 전체 동아리들 가운데 4~5위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예일, 컬럼비아, 버클리 등 20여 대학에는 불교학 강좌가 개설됐다. 여성잡지마다 요가가 등장하고 서점에는 불교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원제 Blue Jean Buddha, 수미 런던 엮음, 임진숙 옮김, 해바라기)는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한, 직업도 갖가지이고 성장배경도 다른 미국 젊은이 28명의 체험담을 모은 책이다. 대부분 20대인 이들은 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그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에 입문하는 동기나 더 나아가 출가하는 이유가 '불교야말로 행복해지는 법을 깨닫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탐욕과 증오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확신을 불교가 주었다고 적고 있다.

1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애인에게 낙태를 권해서는 안 되는지, 술은 무조건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등 젊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겪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불자로서 살아가기'는 불교로 개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 불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스턴 빈민가에서 자라 현재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샤리프 페널은 어머니와 함께 독경과 참선을 하며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살펴보는 3부 '생활 속의 불교'에는 젊은 불자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 불교평화협의회에서 사회참여 불교운동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 윈스턴을 통해 불교의 사회참여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4부 반성 편에는 앞서 실린 글을 통해 드러난 논점이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수미 런던은 이제 미국에서 불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일반화된 종교를 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가 미국 문화의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미 런던은 불교의 확산에 가려진 이면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아시아 출신 스승들을 단지 낯선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경향을 지적했다. 또 불교에 막대한 돈이 기부되고 스타들이 참가하는 축제가 생기는 등 불교가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값 8천원.

한국불교관계논저 종합목록

고려대장경 연구소 ·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공동발행



1892년후 불교 논문 · 책 목록 집대성

이철교(56 · 사진) 동국대 도서관 학술지원팀장이 25년에 걸친 노력 끝에 〈한국 불교관계 논저 종합목록〉(고려대장경연구소 공동 발행)을 최근 발간했다.

〈종합목록〉은 1892년부터 2002년 4월말까지 110년 동안 국내 발표된 불교관련 단행본, 일반 논문, 학위 논문 등 7만3269편의 불교관계 논저 목록을 집대성했다. 불교와 관련된 저술 1만6천여 권, 학위 논문 1천7백여 편, 일반 논문 5만1천6백여 편에 대한 제목과 출판사, 발행년도, 출처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근본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건축, 탑파, 조각, 공예 등 78가지 상세 항목으로 이를 분류해 놓음으로써 지난 110년 동안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건축, 음악, 미술 등 예술분야가 1만290편으로 가장 많고 △언어, 역경과 문학분야 1만60편 △법상종, 화엄종, 천태종 등 종파 관련 논저가 7천943편 △부처님을 비롯해 원효, 의천, 지눌 등 인물 관련 7천544편 △삼국시대부터 최근세까지 한국 불교사 논저가 4천367편 △비교종교 4천432편 등이다.

두 권, 총 261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종합목록〉은 순전히 이 씨 개인의 원력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국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20여 년 간 한 길을 걸어왔다.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단행본이나 학위 논문뿐 아니라 학술대회 자료집, 학회 자료집, 관련 기관의 회보 등 쉽게 구하기 힘든 자료를 찾아 발품을 아끼지 않았다. 이 씨는 "출가자에게 생사(生死)라는 일대사가 있듯 속인에게도 일대사는 있다. 〈종합목록〉은 지난 20여 년 동안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짊어지고 살았던 나의 일대사였다"고 말했다.

〈목록집〉의 또 다른 묘미는 여기에 수록된 목록을 저자별로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저자별 색인'에 있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논문을, 얼마나 발표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논문이나 저술이 여러 곳에 수록됐을 경우 각각 색인함으로써 논문 표절이나 짜깁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출간을 맡았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 목록을 바탕으로 불교학 분야별 전문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300질 한정 출판. 값 15만원.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스승의 목소리(칼릴 지브란 지음, 강주헌 옮김, 아테네 刊)= 시인이자 화가이자 철학자였던 칼릴 지브란은 이미 20세기 초에 아름다운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자연을 경배하고 보호하며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목소리〉에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 레바논의 종교적 단합을 호소하는 지브란의 '20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값 9천원.



▲성찰(람 다스 지음, 강도은 옮김, 씨앗을 뿌리는 사람 刊)=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인도로 건너가 영적 스승 마하라지를 만나 영적 탐구자의 길을 걸었던 람 다스. 1997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언어 장애와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그는 〈성찰〉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아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은이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지금 여기' 늙고 병든 자신의 육신을 담담히 바라보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권한다. 지금 나이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젊어지는 비법'이 아니라 '늙음을 받아 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값 8천원.



▲법안명상기공 지상강좌(설송화 엮음, 정화사 刊)= 보덕 현호선사가 법안명상중심회상을 건립하고 만든 법안명상기공 수련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법안명상회 지도사법인 설송화 법사가 기공의 기원과 수련목적, 수련중의 금기사항, 각종 호흡법에 대한 설명을 담아 엮었다. 가정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도록 티벳기공 13식과 도인기공 13식 수련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값 8천3백원.



▲알몸 1(설산 스님 글/그림, 도서출판 삼양 刊)=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가 알몸으로 가는구나.' 〈설산 스님 명상 시집〉, 〈108사 삼행시〉 등의 시집을 냈던 설산 스님의 그림 에세이집. 〈알몸〉(2000)과 〈알몸이야기〉(2001)에 이은 세 번째 '알몸시리즈'로 '영혼결혼식', '출세간의 올타리 안에서' 등 100여 편의 글과 그림이 실려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 알린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근본불교	이 중 표	민 족 사
3	희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4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음
5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출판사
6	행복한기(단전)수련	이 규 행	백 암
7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 암 사
8	휴식	월 호	해들누리
9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 재 성	한국해탈지장진흥협회
10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도서 안내:(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정장 禪語와 선문답을 아울러 계달지 못한 누구라도 정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菩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운산 지음

수행자의 눈으로 참 삶의 길 제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1987년부터 최근까지 월간「불교」에 실었던 칼럼을 묶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한국불교출판부)를 펴냈다. 월간「불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27년 창간한 불교잡지로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에서 발간하고 있다.

칼럼은 지난 14년간 일어난 여러 사회문제, 사회현상에 대해 수행을 하며 살아온 지은이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지은이는 칼럼을 통해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와 대중을 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진흙에서 핀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스스로가 진흙탕같은 사회를 정화하고 인간의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사유의 생활',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다', '바른 종교 바른 신앙',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주체성 있는 생활' 등 모두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9개의 칼럼이 담겨 있다. 부록으로 사십이장경을 해설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운산 스님의 태고종 22대 총무원장 취임을 기념해 발간한 것이다. 값 1만2천원.



불교와 종교철학

김용표 지음

공사상 중심 종교의 본질 탐구

불교연구를 불교내의 역사와 테두리에서만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세계종교사와 인류정신사와의 관련 속에서 그 위치와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김용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불교와 종교철학-공사상으로 본 세계종교〉(동국대학교 출판부)가 나왔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종교철학적 입장에서 불교의 제교설과 문화현상을 조망해보는 입장과, 불교의 입장에서 세계종교의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입장을 균형감 있게 견지하면서도 대승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과 그 의미 구조를 찾고자 했다.

종교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종교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종교의 철학적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이다.

불교와 종교철학의 주제를 세 분야로 나누어 1부 '불교의 종교철학적 해명', 2부 '종교언어철학과 불교해석학', 3부 '종교교육철학의 지평'으로 구성했다. 값 1만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한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원력과 실천 |

"제3기 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불교중흥을 위한 시대적 요구는 불교지도자의 양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에서는 제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불교최고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강의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46년 5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학장 류 진 수

수강안내

입학자격	· 각 사암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 ·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 · 불교신행단체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 · 불교대학 포교사 과정을 수료한 자
교육기간	2002년 6월 21일 ~ 2002년 12월 13일 (6개월)
교육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교육장소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
원서접수	2002년 5월 1일 ~ 6월 17일
모집인원	80명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051-853-2021, 464-2020)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2002년 6월 19일(수)
입학식	2002년 6월.21일(금) 오후 7시
등록금	35만원(입학금 50,000원 수업료 300,000원)
등록금 납부	2002년 6월 21일(금)까지
아계방학	2002년 7월 26일 ~ 8월 2일(2주간), 9월 26일(추석)

주요강사진

고 산 스님	예원정사 조실	강동균	동아대 교수
지 안 스님	통도사 전 강주	최봉수	동국대 교수
도 업 스님	동국대 교수	이 만	동국대 교수
예 능 스님	해인사 율원장	박인영	동국대 교수
지 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권기종	동국대 교수
안 탑 스님	문사수 회주	김상현	동국대 교수
홍 선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박광서	서강대 교수
성 본 스님	동국대 교수	채상식	부산대 교수
월 호 스님	정계사, 국사암 주지	정병조	동국대 교수

▶특강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교과내용

불교사상론: 반야사상, 천태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법화사상, 중관론, 유식론
지도자론: 불교지도자의 리더십, 재가불교의 역할과 방향, 불교지도자의 자세와 조직관리
포교론: 불교사상의 재인식, 현대불교의 방향, 불교와 사회참여, 비교 종교학, 불교와 과학, 불교의 보편성
특강: 불교지도자의 시대적 사명, 바람직한 종교교육 방향, 법과 종교와의 관계

경전 교리연구 과정 수강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내용으로 불교지도자 양성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좀더 깊이 있는 학문의 수학을 위해 경전교리연구과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불교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경전교리 연구 과정 모집 요강

입학자격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의 자격을 가진 자
교육기간	2002년 6월 21일 ~ 2002년 12월 13일 (6개월)
교육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교육장소	부산 양정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
원서접수 및 모집인원	2002년 5월 1일 ~ 6월 17일, 50명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051-853-2021, 464-2020)
합격자통지	2002년 6월 19일(수)
입학식	2002년 6월 21일(금) 오후 7시
등록금 및 납부기간	35만원(수업료), 2002년 6월 21일(금)까지
아계방학	2002년 7월 26일 ~ 8월 2일(2주간), 9월 26일(추석)
특전	1. 해외불교성지순례 2. 다양한 불교문화활동 및 불교행사 초청

경전반 교과 편성

교 과 목	기 간	강 사	약 력
공사상(반야심경)	6주	안지안 스님	전, 통도사 강주, 현, 은해사 강주
유식(화엄경,대승기신론 등)	12주	강동균 교수	동아대 철학과 교수
특강(법화경,금강경)	7주	교구본사 강주 스님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전화 051)853-2021, 2020 팩스 051)853-2036

'한국불교학 가능성 발견' 큰의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전공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불교학 관련 학술대회로는 최대 규모였던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이하 결집대회)가 5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차기 대회장으로, 해주 스님(불교학연구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전국 규모로는 처음 열린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전국적으로 400~600명으로 추산되는 불교학 연구자의 절반에 가까운 20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결집대회 참여자들이 논문 발표장인 동국대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불교학 결집대회' 결산

결집대회는 다른 인문학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대회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이미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틀동안 11개 분과로 나눠 5개 불교계 종립대학과 14개 학회, 10개 연구소·연구원에 소속된 학자 180여 명이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불교사를 비롯해 인도불교, 중국불교, 불교어문학, 불교문화예술 등 불교와 관련된 거의 전 분야의 주제를 다뤘다.

이번 결집대회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한국 불교학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불교학계에서는 현재 불교학과 관련해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500명 선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불교학 관련 학술 단체도 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불교학계는 90년대 이후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장(場)이 없었다. 결집대회는 바로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 자체를 좁혀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제를 잡아 총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자료 발굴이나 해석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성두(충북대 강사) 씨는 "결집대회 발표 논문이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학술지에 다시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을 발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

연구성과 '공유의 장' 마련 평가할만
응용불교등 학제간 연구 가능성 확인
발표논문수준 평이…質문제 숙제로

이에 대해 정기문 교수(강원대)는 "자꾸 만나서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 이것이 불교학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병욱(고려대 강사) 씨는 "약간의 미비점들도 보이지만 이런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대회를 열어 나가면 조금씩 보완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는 "불교학자간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못지 않게 응용불교나 불교어문학, 불교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학술대회의 질은 얼마나 새롭고 수준 높은 논문이 많이 발표되느냐에 달렸다고 했을 때, "몇몇 눈에 띄는 논문도 있지만 전체적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교수는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돼 촉박하게 쓰여진 논문도 보였던 것 같다"며 "일본의 인도학불교학회처럼 사전 심사를 거쳐 논문 발표자를 정한 후 대회 때는 요지만 발표하고, 이후 이를 수정 보완해 논집을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회장을 맡은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한 논문들도 보인다. 하지만, 결집대회가 (불교학 발전에) 질적으로 얼마나 공헌했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평가가 나올 것 같다. 이후 논문이나 자료집에서 결집대회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되고 참고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학술담당 =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불교관련 논문 46%

◇분야별 논문 분포

	선(禪)	화엄	유식	초기불교	천태	밀교	중관	계율	아비달마	학제간	기타	합계
편수	17	14	11	9	7	6	5	2	1	50	23	145
백분율	12	10	8	6	5	4	3	1	1	34	16	100

◇인물별 논문 분포

	편수	백분율
원효	12	40
지눌	4	13
한용운	3	10
휴정	2	7
초의	2	7
기화	1	3
의상	1	3
성철	1	3
회당	1	3
소태산	1	3
김동화	1	3
태현	1	3
합계	30	100

◇나라별 논문 분포

	한국	중국	인도	일본	기타	합계
편수	49	32	23	2	1	107
백분율	46	22	16	1	1	100

◇시대별 논문 분포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	합계
편수	17	8	6	9	40
백분율	42	20	15	23	100

통계로 본 결집대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서는 어떤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논문이 가장 많이 몰렸던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

결집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및 관련 연구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자 분포 현황과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발표한 학자는 180여 명에 이르지만 기간 내 논문을 제출해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논집〉에 실린 논문은 모두 145편이다. 이 145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학제간 연구 분야(50편)다. 학제간 연구나 응용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양적으론 활발했던 반면, 총론 성격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아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다.

교학적 측면에서는 선(禪) 관련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17편). 그 뒤를 화엄(14편), 유식(11편), 초기불교(9편), 천태(7편), 밀교(6편), 중관(5편), 계율(2편), 아비달마(1편)가 이었다. 정토 등 기타 분야가 23편이었다. 한국 불교학계의 관심이 선이나 화엄, 유식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요 몇 년 새 늘어난 것을 결집대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논집〉에 수록된 145편 가운데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107편의 분석 결과는 한국 불교학계가 한국과 중국, 인도 3국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편이 한국 불교에 대한 논문이었고, 인도(32편), 중국(23편)이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불교에 대한 논문은 단 2편에 그쳐, 일본으로 유학은 많이 가면서도 막상 일본 불교 전문가는 없는 현실을 실감나게 한다.

한국 불교에 대한 논문을 시대별, 인물별로 나눠 보면 신라불교와 원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49편 중 시대별 구분이 가능한 40편을 보면 신라불교에 대한 논문이 17편을 차지했고, 근현대(9편) 고려(8편), 조선(6편) 순이었다. 인물과 관련된 논문 30편에서도 원효 관련 논문 12편인 데 비해 보조 지눌(4편)이나 한용운(3편) 초의(2편) 휴정(2편) 등에 관한 논문은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였다.

禪·화엄·유식분야에 연구치중

차기대회 개최여부 우려
종범스님 회장선출로 불식

불교사회복지 개념싸고 발제·토론·참가자 설전
'초기불교' 발표때 인원 대거 몰려 관심도 반영
특정분야 신청자 집중돼 타분과에 배정되기도

결집대회 이모저모

올해가 마지막 아닐까?

결집대회 개최 전까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격년제로 열기로 한 대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결집대회에 참가한 29개 단체 협의회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갖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차기 대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조직위원회는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썰렁하지 않을까?

둘째날 참가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기우였다. 첫날에 이어 둘째날에도 발표자 외에도 스님, 대학원생, 일반인들이 참여해 비교적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이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한 발표가 끝나면 다른 분과 발표장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초기불교 발표가 있었던 7분과에는 대회 마지막까지 20여 명이 몰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응용불교를 다룬 11분과에서는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놓고, 발표자와 토론자, 참여자들 사이에 설전(舌戰)이 오가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한 학생은 "발표와 토론을 들으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계적인 분과 배정

분과 배치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애초 20개 분야로 나눠 논문을 접수했으나 특정 분야에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20명을 기준으로 분과를 재조정해야 했다. 분과당 발표 인원을 맞추느라 자기 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에서 발표하는 사례가 몇몇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응용불교 분과에서 발표해야 할 논문이 다른 분과로 간다거나, 밀교가 신라·고려 분과에도 포함되는 등의 경우다. "너무 동류항끼리 묶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서는 최대한 같은 분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잘못된 글쓰기=부실한 논문

결집대회를 참관하러 온 한 재야학자는 논문의 '질'과 관련 논문 '쓰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학자는 "논문의 내용이 우수하냐 떨어지느냐를 떠나 글쓰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논문이 너무 많다"며 "특히 한자 용어를 남발한 논문을 볼 때면, 과연 논문을 쓴 사람이 용어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술적인 글은 주장이나 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한국의 불교학 관련 논문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주제가 투명하지 못한 글은 비판이나 검증을 위한 잣대 역시 불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과 질의 조화는

우수한 논문이 생산될까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차기 대회장 종범 스님은 "이런 판단을 연구자 개인에게만 맡겨 둬야 하는지는 차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생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불교학자 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현실에서 심사를 강화할 경우 숫자가 줄어들어 대회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지혜"

초에너지 칼슘(ca++) 효소(酵素) 위력!

1 뼈와 연골(관절)을 재생시키는 능력
- 50대이후 뼈와 관절 퇴화를 막는다.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 효소는 이온칼슘과 합성될때 흡수력을 충족시킨다. (인체내 칼슘이용율 99%)

2 혈액을 맑은 알카리성으로 유지
- 뇌신경, 심장기능 및 혈액 흐름속도를 조절한다.
- 세포 재생능력을 돕고 피부가 청결해진다.
- 마음이 편안해진다.(심장, 뇌신경 안정)

3 소화기능 및 배설(쾌변)을 촉진
- 위기능 및 영양을 잘 흡수시킨다. (허약체질, 마른체형)
- 장기능을 증진 활성시킨다. (변비, 장염)
- 비만(기초대사를 올려라) : 월 2~3kg 감소

4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 에너지 합성요소는 간기능 신장기능을 신속히 개선한다.





(주)H.L.D 상담대표전화 02)499-4821~3

덕왕사 지장대불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은 부처님전에 귀의한 후로 항상 지장보살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받쳐서 기도중에 지장도량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고 발원하여 「경북 안동시 녹전면」 일출산 자락에 「덕왕사」를 창건하여 지장대불을 조성하여 모시고 일체 중생에게 다겁생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육도윤회 모든 고통을 멸하여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마장장애 없도록 유주무주고혼영가와 상세 선망부모영가를 왕생극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발원 하옵고 이생에 지장대불 조성불사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에 무량복덕을 성취하옵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덕왕사 대작 불사인연으로 성불하십시요.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 법회일시 ▷ 매달 초하루 ~ 초 3일까지 신중기도
  ▷ 보름 인등법회
  ▷ 18일 지장재일 영가천도 법회
- 덕왕사에서는 평생동안 영가위폐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동안 모든 조상영가를 영단에 모시고 매달 지장제일마다 천도제를 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께는 천일동안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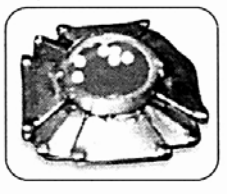
※ 온라인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우 체 국 700435-0029797 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 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 011-522-1237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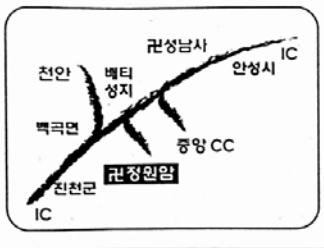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권 대한불교 조계종 정원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재단법인 **선 학 원**

이 사 장 정 일
상무이사 선 근

이사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동진 경순 자민 성우 상원 정덕

감사 대허 법운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우110-240) ☎ 02)734-9654~6 FAX 02)734-3410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김도원

총무 서덕재 교무 정도웅 재무 지설혜 노전 이석용

사부대중일동 합장

삼광사 신도회

◇신도회장
◇부 회 장 윤인오
◇부 회 장 오귀분
◇총무위원 김종기
◇교무위원 김수웅
◇재무위원 송세현
◇재무위원 주량월자
◇재무위원 신순옥
◇사업위원 민철규
◇기획위원 조수웅
◇조직위원 이영균
◇홍보위원 김형대
◇섭외위원 문경용
◇부녀위원 김화순

지회장단

◇부산진구지회장 한옥현
◇동래구지회장 김석홍
◇남구지회장 장군섭
◇해운대구지회장 하기수
◇금정구지회장 이상호
◇북구지회장 차재철
◇영도구지회장 이병호
◇사하구지회장 김범두
◇동구지회장 구영회
◇서구지회장 윤 철
◇중구지회장 최종경
◇강서구지회장 송종관
◇연제구지회장 이선장
◇사상구지회장 문 찬
◇수영구지회장 강재복

신행단체

◇청년회 회장 정주수
◇봉사회 회장 정금생
◇지장회 회장 박영채
◇처사회 회장 김성춘
◇화엄합창단 단장 김선희
◇부일회 회장 정옥순
◇원 회 회장 김덕이
◇전통요리 회장 정숙자
◇차문화회 부회장 유동숙
◇관음회 회장 이명성
◇교원불자회 회장 김종렬

인터넷 삼광사(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 (051) 808 - 7111~5 FAX : (051) 803-1332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포교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최고의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이천만 불자님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 지 慧 慈

청담문도회 청담문화재단 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993-3161~3 FAX 02)993-316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신도회장 무구 전봉수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전화 : 종무소 02)511-6070~4

대한불교 조계종 **충효사**

산내암자 **무 학 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충효자비원**

주 지 석 해 공

전국신도회장 김기재
부산 · 경남신도회장 박주천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전화 054)338-8196 FAX 054)338-6006

ARS 060-7000-747 복지천국

三千寺 · 社會福祉法人 仁德園

理事長 坪山 徐聖雲

仁德老人福祉會館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타
노인치매단기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노인문제상담 / 일상생활지원 / 식사 및 간식 / 일상생활동작훈련 / 의료서비스 / 특별활동 / 정서적지원서비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
전화 02)385-8205 FAX 385-8207
www.indeocwon.or.kr

▣ 보육사업
- 인덕 / 개나리 / 돌광 / 수색 어린이집
▣ 청소년복지사업 - 응암청소년독서실

市立恩平老人綜合福祉館

▣ 종합상담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 의료재활사업 ▣ 노인사회교육사업
▣ 복리후생사업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 이동복지사업 ▣ 경로당활성화사업
▣ 은평장례서비스센타 ▣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 치매 · 중풍노인 주간보호사업
▣ 저소득거동불편노인도시락배달사업
▣ 자활후견사업-애뜨는 집 간병인 공동체
▣ 지역복지사업 - 노숙자 쉼터 희망의 집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203-1
전화 02)385-1351 FAX 02)385-8724
www.indeocwon.or.kr

恩平區立圖書館

▣ 문화프로그램 (문화강좌, 전시회 / 문화교실 / 독서지도 / 종합상담서비스)
▣ 이용자자료서비스 (대출반납, 참고봉사, 열람서비스 / 순회문고 / 특수열람서비스)
▣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원문서비스, cd-net 서비스 / 가상문화센터)
▣ 특화사업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 효자료원문 서비스 / 24시간 열람실 운영)

서울 은평구 불광 2동 산 59-32
02)385-1351 FAX 385-8724
www.eunpyeonglib.seoul.kr

서울恩平區佛教寺院聯合會

회 장 삼천사 주지 서성운 / 부회장 수국사 주지 한자용, 시연사 주지 김혜진, 관음사 주지 이법성, 송천사 주지 김혜장
총 무 불광한의원 원장 도광, 보문사 주지 덕호, 경선 /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성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법성
서울구치소 종교교화 불교위원회 회장 서성운, 부회장 노병섭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27-1 ☎ 02)359-7766 FAX 358-2286 E-mail : sungwoon@3004.or.kr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시내 출퇴근도 가능
02)2238-32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일산
016)726-3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고양
019)211-8533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평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금성사
051)895-4416
051)895-4558

◇ 판매합니다 ◇
-염 주-
직거래를 통하여 각종 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011)610-4879
061)337-4879
061)337-6340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직할 포교당으로 포교에 원력이 있으신 젊은 스님을 모십니다.(부산 화엄사 각성큰스님께 공부하러가는 관계로)
◉ 위 치 : 경북 구미
◉ 특 징 :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전권을 이임하며 조건 없음)
◉ 연락처 : 054)974-8073, 8074 011)9351-633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법당 및 공양주 보살 운전기사 관리보살 모십니다
031)533-4405
011)261-44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02)353-3004
02)359-7766

산에서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행자(예비스님)모집 - 조계종
●행자전문도량 - 행자원 (시내 또는 산중)있음
●엘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
●설, 추석 재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 드림
▸문 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맑은 영혼 깨끗한 마음 반야 다원과 함께 하실 분을 구합니다.
▷ 40세 미만의 용모단정하신 분 다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
061)783-0096
지리산 화엄사 반야다원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무보시 상주한 사찰을 찾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연구합니다
053)751-1176
016)857-4500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독거꼽추인분들께
부전 비구니 스님과 신심이 있는 꼽추인 보살님을 모십니다. 신체상 변화를 보신 후 부탑, 불사사 등에 동참하실 분 모십니다
043)423-182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 위치 : 안양 • 위치 : 충남청양
• 법 당 : 15평 • 법 당 : 15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42평
• 부 지 : 200평 • 부 지 : 120평 • 부 지 : 735평
• 가 액 : 1억 • 가 액 : 4억 2천 • 가 액 : 9천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붓다쇼핑닷컴◇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쇼핑몰
마하(大) 만다라 액자 및 족자
유명작가 진품 달마도쇼핑몰
금강경백자등 도예 광고방송
불교음반 불교예술 불교정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홍보
http://www.buddhaShopping.com
http://www.buddha.ne.kr
연락처 0505)882-3456
붓 다 넷 코 리 아

사무보살 모십니다
▷ 파주 약천사
031)942-12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02)877-751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042)841-6084

탈 종 공 고
● 주 소 : 제주시 월평동 384
● 사찰명 : 자비정사
● 주 지 : 혜 연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안내
• 위치 : 봉화 춘양
• 면적 : 1400평
• 법당 22평
요사 30평
(태백산 부근 암자)
• 양도가 : 3억 7천

사찰 안내
• 위치 : 사천 곤양면
• 면적 : 8,000평
• 법당 24평 삼성각 주지실 (풍수 만점, 기가막힌 절)
• 양도가 : 4억 2천

사찰(터)안내
• 위치 : 양산 내원사 부근
• 면적 : 700평
• 현황 : 도로 전기 완비 부지조성 완료
• 양도가 : 1억 3천

영남지방 전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전원주택 및 별장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다용도 가능함. 자연경관 수려함 마을과 약간 떨어진 조용하고 한적한 곳
● 준농림지 : 493평 도로계곡 접하고 있음
● 예상가 : 2천만원
011)570-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6천 5백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비구니 스님 연락부탁 거의 새집
061)762-2630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163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3평 관음전, 삼성각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18만원 시설금 700만원
042)257-4339
018)428-4338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벼락맞은 복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 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시험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체차.액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인택

권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권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대구 포항길 우회 도로에서 900m 영천시에서 가까움
● 대지 : 110평, 건평, 68평 2층
● 가액 : 1억 6천
011)529-3996
야간 054)337-399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채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3천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근교
● 법당 : 50평(목재)
● 요사 : 70평
● 산신각 : 10평
● 양도가 : 6억
● 산세 및 계곡 좋은 도량임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법당 : 50평
● 요사 : 방 3개
● 보증금 : 6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심아보일러) 2동 벽돌,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심아보일러) 3동 욕각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절반가격)
011)9374-0126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 2개 90평
● 요사채 방 2개, 사무실,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현식이 뗄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1Box × 60포 : 15만원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영월근교)
• 임법당 : 방 3개 동각을 인접해 경치 좋음
• 가액 : 3천 2백만원(절충가능)
사찰 (터)안내
• 2080평 준농림지 중국관정 대법사께서 인정하신 명당터
• 가액 : 평당 3만원
033)378-5713
011)806-486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무주 적산면
● 땅 : 530평, 황토방(신축 2년) 법당1개, 방2개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약 5분거리
● 대한불교 조계종 등록 사찰, 기도처소 有
● 경관이 좋고 송이버섯 나올정도로 산세수려 환경 청정
● 가액 : 3천만원(절충가)
017)430-1911
063)324-191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호곡리 (뒷골)
● 대지 : 304평
● 건평 30평
011)564-4171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맘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암자 안내
● 월세 1년 250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약목면 소재
017)813-9126
주인직접, 인수도 가능함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터 안내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TG에서 5분거리
● 지목 : 산
● 특징 : 자연경관수려 종교부지로 적합함. 호수가 내려다보임 덕산온천 인접
● 평수 : 23000여평 평단가 : 12000원
041)667-7177/7277
011)409-6511

사찰부지(납골당)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국립공원 대둔사인근)
● 7만 5천평
● 수목울창(30년생 참나무등)
● 대전에서 25분(차량 진입가)
● 평당 1만원
017)405-1554
042)525-6123 (밤10시이후)

여여하게 해내는 마음 우주를 살릴 수도…

마음의 문 활짝 열려면…

문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의 심봉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내 안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의 근본을 발견하고 싶고, 저의 근본과 저 사이의 칸막이를 활짝 젖히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 주인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허공이라 하면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를 텐데 아무리 비어서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 같다 할지라도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크고 작다, 짜고 싱겁다 하고 사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생각,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 없는 생각을 해내는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가 생기면 그냥 나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예를 들어 누가 찾으면, '여보!' 하고 부르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든가 하면서 찾는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그 자체가,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소립니다.

왜 녹여야 하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녹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녹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지요?

답 팔만대장경이라는 광대한 양의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걸 줄여서 만든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더 줄인다면 불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에요. 천차만별의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한판 치고 울든, 한판 치고 웃든, 그냥 시원하게 좀 그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우친다, 성불한다, 견성한다 뭐 이런 건 다 이름이에요.

사람이 죽어가거나 할 때, 살 양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리려고 바들바들하고 실천을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차 그렇게 하다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착실한 사람이 죽으면

문 스님의 자비심에 감사드리며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환상에 속지 않고 걸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이 없이 하는 도리는 모르지만 심성이 착하고 진실한 사람은 죽어서 걸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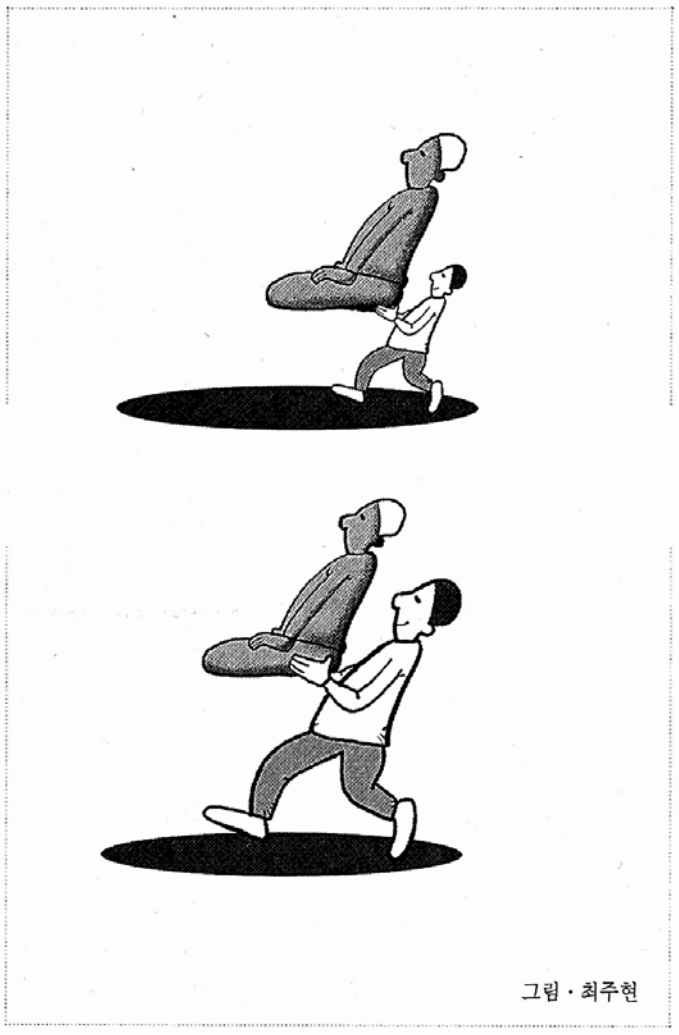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도 가난해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어도 마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의 그대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남한테 있는 그걸 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나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예요. 왜 상대를 봅니까? 여러분이 그것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만날 그 그릇에 엎어져서 그 그릇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말고 안에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생산해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쓸었으면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좀 더 다듬어서 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 그릇이 쪽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으라고 해도 말입니다. 다시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 용광로에만 넣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는데,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텐데, 생산하는 것은 나중이라 해도 일단 자꾸 넣어야 될 텐데도 뭐 돌아볼 게 있고 남의 잘못 볼 틈이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서 '아, 그때는 이렇더니 새로이 나오는구나.' 하고 달리 보이는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만 착하다 그래서 너무 착한 일만 한답시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도 "너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다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일임하고 정도에 넘치지 않게 잘 판단을 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가느냐? 똥 마려우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없이 화장실로 가서 그냥 시원하게 눠 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한데 합쳐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잘 저어서 강을 건너야지 이러는 것도 잔소립니다. 면경을 잘 닦아서 먼지 앎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망상이니 아니니 정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게 다.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내기 이전은 항시 좋고 나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엉망진창으로 입력이 되어진 그 마음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중생의 생명의 의식들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불안하게도 나오고 욕심스럽게도 나오는 거를 잘 다스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굴려서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기 마음의 선장에 한마음으로 따라줄 때까지 건지라 이겁니다. 항상 둘 아니게 관하라 이겁니다.

내 의식에 입력돼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다시 놓아야 하는 데도, 잘못되지 않을까, 나쁘게 되지 않을까 집착하고 끄달리고 삽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그 '나'가 진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 가는 진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을 지어서 더 괴롭게 만들어서 활기차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이든 염려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다시 그 자리에 굴려놓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끊어 트리지 않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근본에 맡겨놓지 않고 이리저리 걱정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을 공부재료로 삼아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실천행을 함이 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

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갈 때에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내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친구로서 여여하게 해내고, 거기서 그냥 상대방 사람의 용도를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을 벌써 익힌 사람이라 그냥그냥 여여하게 나오죠, 므두가 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놔라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요. 한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오로지 놓아라, 이러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들고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내듯이 스스로 들어오고 스스로 또 내는 거죠. 그렇게 여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요. 바로 여러분이 공했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종점도 없는 거를 알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로 한 군데서, 한 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온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젖힐 칸막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내가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려면 심봉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서 자꾸 입력을 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러는 것을 보면, 개미굴이나 또는 개구리, 뱀 소굴, 벌레들 소굴이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했다면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듯이, 아마 그네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온통 난리가 나죠. 난리를 벌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것과 똑 같은지 몰라요. 다리 부러진 것도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개미들이 그럽디다. 개구리도 창자가 그냥 쭉 뺀어져 나왔는데도 그냥 업고 가고 말입니다. 똑 같애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러니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가 어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마음을 걸러서 중심을 잘 세워서 중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두면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세생생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로서 등장할 수 있다, 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울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이런 건가,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한없이 물 흐르는 걸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이 저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을 어찌 칼로 똑 끊으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변동이 되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음을 말로 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끊으리까 이겁니다. 그때서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더불어 같이 녹이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말을 잘못하는 거는 좀 더 다스리면서, 잘하는 것은 감사하게 다스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주인공에 감사하고 잘못되는 거는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놔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죠.

첫째, 위로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낳아놓은 2세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조상, 나, 자식 삼대가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상 세계, 중 세계, 하 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 세계에서 마음을 따라서 체로 거르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 세계로 떨어뜨리고 상 세계로 올리고 중 세계에 그냥 남는 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건도 그렇듯이, 종자들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 없는 세월을 중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저장시킨 모든 욕심이, 살아남으려 아둥바둥하던 의식들이, 입력된 내용들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끊으려고 애쓰고 끊지 못해서 애쓰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롭기만 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구정물을 새물로 바꾸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일 뿐이다. 나를 가르치려고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밝게 나아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들을 나오는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놓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로 화하여 내 그릇을 더욱 넓혀나가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한`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 끊는다 안 끊는다는 생각조차도 그 자리에 되 맡겨 놓아야만이 흡쩍 뛰어넘는 맛을 알게 될 겁니다.

되돌리면 에너지로 화해

참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놓아야

중생들에 미안한 생각이…

문 저는 고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관하고 지켜보라 하시지만 눈이나 다리가 아파 오면 어떤 땐 제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몸 안의 중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 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 주인공의 심부름이지 하면서도 내 욕심이라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떤 지혜로운 맘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지표 삼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답 사대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똥이 마려워서 변소에 가면서 '내가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없이 화장실로 가서 그냥 시원하게 눠 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녹이는지…

문 스님 법문집을 매일 보면서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들의 장애가 제 탓임을 잘 알면서도 가끔씩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 거짓 나에게 속는구나 싶어 많이 속이 상합니다. 또 아이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가끔씩 다투곤 하는데 화내는 남편 모습이 너무 저를 꼭 닮아서 그것에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녹여야 하는지 율적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님께 글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언제나 건강하시어 저희들 언덕이 되어주시길 항상 발원합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다고 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봐도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살아 나오는 자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의 길을 걷는다 하는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구르지 않고, 부대끼지 않는다면 발전해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조약돌이 물에 스쳐 흐르는 대로 자꾸자꾸 닳아서 반들반들해져서 동그랗게 된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

☞ 28면으로 계속

☞ 27면에서 계속

다.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면 진짜 사람노릇을 못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금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금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이고 나는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나? 팔자운명이 얼마나 기구하길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내 운명이고 내 팔자지.' 하고 만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부대끼고 주먹을 쥐고 땅을 치고 울어야만 하는 인생살이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채찍을 맞지 않고, 그렇게 구르지 않았다면 둥글게 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조금만 외부에서 닥쳐오면 속으로 온통 나 죽는다 하고 얼굴에 벌써 불편한 것이 나타나고 부증이 나고 야단법석이 나죠.

이 세상에 나오면 한 번 죽기는 일반인데 뭐이 그렇게 죽는 것이 원통하겠습니까마는, 자식들을 낳아놓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죽을까봐 겁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이상에, 모든 마음의 착을 딱 떼어버리면 오히려 우뚝 서게 됩니다. 아둥바둥하고 그냥 야단법석을 하니까 우뚝 잘 설 것을 붙들어서 외려 깔아뭉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성은 다 제가끔 있거든요. 자기 뿌리들은 제가끔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선장이 제가끔 각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되 진짜 자비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외려 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오히려 착을 두지 마라 이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그러지마는, 살 때는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썩여놓고선 돌아갔다고 왜 울어요? 이래도 속썩이고 저래도 속썩이고 간을 찢는 듯이 아프게 만들면서 자라가지고서, 죽었다고 왜 우느냐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울어야 마땅하지마는, 진짜 울어야 하는 자비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동시에 같이 울어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리는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말입니다.

조약돌이 물결에 닳아 반질거리듯 인생도 부대끼며 다듬어지는 것



그림 · 최주현

무주상 보시하려면…

문 스님, 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함이 없이 보시 행을 할 수 있을 지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자세로 보시를 해야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가 될는지요?

답 우리가 보이는 큰 것을 보시를 해서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막론하고 하다못해 사탕 하나를 누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건없는 자비심으로 주었다면 그건 보시가 되는 겁니다. 사탕 하나라도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될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반면에 아무리 큰 돈을 가져다 누구를 주었다 하더라도 절대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주었는데도 왜 보살행이 안되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누구에게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는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내가 그쪽 가게에 돈을 줬다고 말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쓰는 말이고, 그래도 배워서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경우라면 조건 없는 무주상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런다면 힘이 들겠지만 알면 힘이 안 듭니다.

그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이렇게 벌어진 생명들인데,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그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뼈 무더기 하나로 그 뜻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짐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왔으니 우리가 전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또 어저께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금방 저기 가서 또 부모가 돼버렸어요. 부모가 됐는데 또 저 집에 가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네 자식 내 자식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금이 됐으면 금 방에 가고, 또 금이 넝마로 변했으면 넝마전에 가고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물건을 진열해 놓은 거를 봐도 끼리끼리 놓여있지 절대로 섞어 놓는 법이 없습니다. 기사 분들이 법정에 가서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익힌 기술대로,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인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벌어졌다가,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거를 잘 따져서 보면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 줄 알면 보는 내가 괴로우니깐 그냥 주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을 뿐이지 둘로 보고 그 사람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한테 내가 쓰는데 무슨 보시고 아니고가 있겠습니까. 주는 동시에 둘로 보지 않았으니 좋은 일을 했고, 보시를 했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건도 없고 보시란 이름도 없고 준 것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께서 법당에 보시금을 갖다 놓는다거나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다거나

> 空心으로 보시해야
> 보살행
> 무주상 보시
> 조건없는 보시

스님들 앞에 보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이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면 꼭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속에 깔린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깔린 요구 때문에 100% 받아갈 것을, 그냥 무주상으로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받는데 그 깔린 것 때문에 그걸 다 못 받아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으로서, 얼른 쉽게 말해서 둘 아닌 고로 나는 내 자불,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런다면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하겠습니까. 그걸 보시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냥 빼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자기가 조건 없이 한 것처럼 조건 없이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와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조건이 붙으니까 조건대로 붙은 것 만치 덜 받게 되는 거죠. 공 하나를 다 받을 텐데 공에서 조금 떼어서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주 법계를 움쭉거리게 하고, 세상을 움쭉거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생각입니다. '공생' 이러는 거는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몸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만 몸체를 안 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보시라고 한다면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보살행이요, 무주상 보시오, 조건 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또 내 마음과 둘 아니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속에는, 아픔도, 찢기는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다, 여러 가지 다 담긴 것이 한마음이 아닙니까. 내 한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 보시이자 조건 없는 보시입니다. 그래야 아마 여러분께도 조건 없이 갈 겁니다. 조건 없이 가는 거는 둘째 쳐놓고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이건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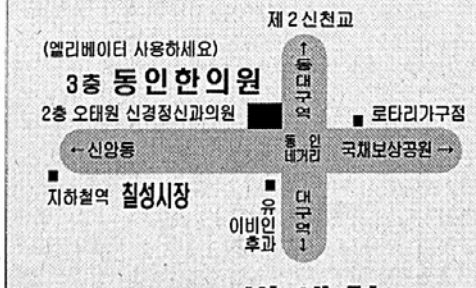
확장 개원 인사 올립니다

따스한 봄 날 아픔을 함께 치료하고 정신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작은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전의 동인한의원 자리는 동인명상한의원(원장 이성주)으로 개칭하여 진료를 하고
동인 네거리 부근에 **동인한의원**(원장 박세철)을 **확장 개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고자 하옴을 약속드립니다.

동 인 한 의 원

◇진 료 과 목◇
신경정신과(명상치료) 특이질병, 내과

◇진 료 시 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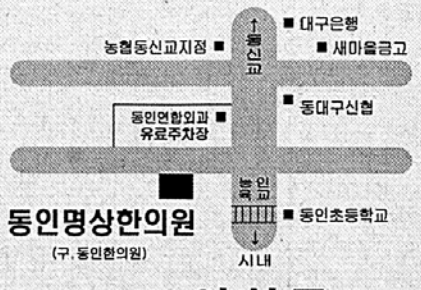


원장 **박세철**
☎053)422-497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1가 361-6

동 인 명 상 한 의 원

◇진 료 과 목◇
부인과, 소아과, 내과, 침구과

◇진 료 시 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원장 **이성주**
☎053)255-497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4가 445-1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아 라 냐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막,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몸빼,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편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차 없어집니다.
- 간목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목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반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한국불교 무량본종 총무원
무량정사
주지 이령관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전화 02)3216-1600

대한불교 법상종 본사
쌍미륵사(雙彌勒寺)
주지 해월(海月)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호
전화 031)672-3353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지 지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도일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 FAX 02)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지 석종후
신도회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 353-5016, 4924
FAX : 02) 386-4198

대한불교 조계종
내소사
회주 우암
주지 진원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 원융원
주지 법신
신도일동
■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031)584-1541 (대성사)
02)2237-9796 (원융원)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학장 구본설 이사장 문종순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관음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의사
주지 성직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망해암
주지 법두
봉사회일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031)443-5559

한국불교 태고종
무학사
주지 혜성
신도일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 2동 412
TEL 031)291-4667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수도사
주지 혜운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신도일동
■ 인천 남구 주안4동 1580-22
TEL 032)422-1479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주지 평중
부설(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02)444-4321/444-7215

연화정사
주지 정명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46-2
TEL 02)338-0108

정각사
주지 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정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지 오성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031)357-2695/357-3916

기원정사
주지 도영
신도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대한불교 조계종
끝만대장경 판각성지,사적 259호
강화 선원사
회주 보각 주지 성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일동
선원사한증막-기와황토불한증막 (운영)933-8985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www.seonwonsa.com
전화 032-933-8234 / 8834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신도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전화 041-561-3545 / 팩스 041-556-1425

약사여래영험기도 및 방생 도량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혜
신도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전화 033-682-1933 / 팩스 033-682-1707

광운정사
주지 청운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운불교대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9-8966

강화 전등사
회주 장윤
주지 계성
사부대중 일동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www.jeondeunsa.org
TEL 032) 937-0125 / FAX 032) 937-5450

한국불교 태고종
구룡산
천수사
주지 지허
법사 김영옥
수석포교사 유병관 포교사 김우순
명예회장 심완섭 신도회장 김애자
■ 경기도 안산시 일동 603-5
www.chunsusa.com
TEL 031)406-6601

덕대산
극락사
주지 법윤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우안면 덕암리 1178
TEL 055)352-7224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만장사
주지 윤일오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86-19호
TEL 031)448-8005, 1144

대한불교 대승종
전북종무원장
덕춘사
주지 덕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
전화 063)463-5907

대한불교 대승종
전북종무국장
염창사
주지 원공
대중일동
신도일동
■ 전북 무안군 계하면 궁암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전화 063)584-6571

대한불교 대승종
포교원장
흥도사
주지 기현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 중구 신당4동 333-250
전화 02)2234-2198

대한불교 대승종
수정사
주지 영인
신도회장 임정환 부회장 김숙자
총무 문임선 고문 황유조
■ 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 4993번지
TEL 031)753-3354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호
TEL : 02)742-0172

무애원포교당
원장 설봉
전통문화 도예연수원
신도일동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가마요-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48-1
전화 02-846-2156 / 032-932-5087~8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한국불교 태고종
불광사
주지 법주스님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5-1
전화 02)359-5367

(사)대한불교법화종
직할교구종무원
봉화산 법만사
주지 전법만
신도회, 법연회 일동
■ 서울시 중랑구 중화 1동 274-63
전화 02)433-6591~2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법륜사
관장 보안
대중일동
■ 법동사회종합복지관
전화 042)633-1141~3
■ 대전시 중구 옥계동 173-47
전화 042)284-4278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한국불교관음대성종

종 정 석법산
총무원장 석정산
신도일동합장

■ 서울 동작구 사당3동 708-486
전화 02)594-6211, 587-6211

한국조동종 총본산
원 효 사

주지 한학봉
총무원 창종위원 일동
신도일동·대중일동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152호
전화 02)713-0475 / 팩스 02)718-6221

대한불교 보문종
백 련 정 사

주지 현 진
사부대중일동

■ 인천 남구 보화 1동 산 60 -18
전화 032)868-7711, 7722

대한불교 조계종
비영리단체 309호

불자약사보리회 일동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59 3층
전화 02)835-7556

대한불교 조계종
성 보 사

주지 신 천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산78-35
전화 031)594-2683, 1397

대한불교 해탈종
소 원 사

주지 대 광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5
전화 051)727-3050-3

심 곡 암

주지 원 경
(관음굴)

■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전화 02)943-0851

삼성산 **사 자 암**

주지 도 각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 3동 280
전화 02)825-1046

대한불교 조계종
석 남 사

주지 정 무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전화 031)676-1444

대한불교 조계종
성 불 사

주지 원 경

■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8
전화 041)565-4567

대한불교 조계종
석 림 사

주지 성 공

청소년 교화 연합회 논산지회
연화어린이집

■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189-1
전화 041)741-0414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보 경 사**

주지 원 공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832-2
전화 02)917-3363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산 **용 덕 사**

주지 성 효

법회 1, 18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철야정진

■ 경기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57
전화 031)332-0426

수미산 **불 국 사**

건강뜸 무료봉사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1리 573
전화 031)441-0408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회주 경하 현성
주지 호암 지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055)672-0100,0481
팩스 055)672-0481

우주정사

기적의손 부처님의 기를 전달하여 디스크환자 팔 다리 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전화 031)251-2871 / 252-1766

인과선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전화 02)907-3706

연화정사

주지 이대화
신도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전화 02)379-1965 391-4376

대한불교 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선 곡
신도회장 최감로성

■ 경남 통영시 봉평동 404
전화 055)646-3090

옴누리선원

노인들의 안식처 자비의 쉼터
(개원 5월 11일)

■주위에 어렵게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연락주시면 선별하여 모십니다

봉 부처님 오신날 5.19 (음 4.8) 축

문의 032)542-8300
www.omnuri.org
인천 계양구 임학동 2-6 근영빌딩 2~3층

대한불교 조계종
나를 깨닫자 운동 본산 **보 림 사**

주지 묵 산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산1번지
전화 02)914-6187

대한불교 총화종
정 은 사

주지 이기태
신도일동

■ 인천시 남구 숭의4동 13번지 13호 7통 5반
전화 032)875-5280, 3459

정 토 사

회주 박설산
주지 석응천

신도회장 고반야행 재 무 장법계월
총 무 고대륜화 교 무 정대각화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전화 02)379-5502 / 팩스 02)396-3405

대한불교
정 안 사

주지 황병진
신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전화 031)901-1954

대한불교 조계종
참선도량 **전 등 사**

주지 동 명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46-3
전화 02)762-0643

대한불교 조계종
천마산 **견 성 암**

약사여래불기도도량 800년 전통고찰

주지 김지원
법회-매월 1, 15, 18일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1리 산 3번지
전화 031)573-8900~1
팩스 031)573-8902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 국 사**

회주 한자용 주지 김자성
신도회장 김자비심 찬불합창단장 문안락행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전화 02)356-2001~2

사단법인 21세기
한국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임직원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전화 02-303-0024~5

염불기도도량
도봉산 **호 암 사**

주지 진 산
신도 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27번지
전화 031)873-1386

한국불교 태고종
화 천 사

주지 복 혜
사부대중일동

■ 제주시 회천동 2390
전화 064)722-8716, 721-2755

대한불교 조계종
봉 영 사

주지 철 안
사부대중일동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48번지
전화 031)571-0555~7

대한불교 조계종
현 불 사

주지 법 우
신도일동

■ 대전 동구 구도동 150-1
전화 042)271-3395

나가자불자회

회장 안규준
고 문 김정길 감 사 김건회
사무국장 강임주

불자회회원일동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4
핸드폰 011-221-9697 / 017-322-7025

생활불교근본도량 **우리집**

원장 법 천

(부설)원효불교대학
학생회/지장회/관음회 합 장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57-16
전화 052)297-8538 / 팩스 052)291-3541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 광
학장 묘 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55
전화 02)923-0582 922-9652
팩스 02)925-1870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을 기리는 봉축의 열기는 농·어촌이라 하여 결코 시들하지 않다. 신도 수는 도심지역보다 적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외에 틈틈히 짬을 내서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곳을 찾았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는 부처님 맞이

화천 영화사

주경夜修 일념 넉달 전부터 준비
연등 2백개·코끼리 장엄물 18일 점등

3일 저녁 7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내에 있는 현태종 영화사 법당. 주지 덕중 스님과 신도 10여명이 모여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닌 듯 신도들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이렇게 저녁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연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벌써 3개월째. 아직 초파일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왜 미리부터 부산(?)을 떠는 걸까? 이사현 신도회장(67)과 몇마디 주고 받자 금새 의문이 풀린다. 40여 신도의 대다수가 농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인 4~5월에는 낮시간에 사찰일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영화사는 신도 수가 적기 때문에 저녁대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부처님 맞이를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경야수(晝耕夜修)'.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수행을 한다. 영화사 신도들의 수행은 참선이나 절을 하는 것 뿐이 아니다. 4~5명 남짓한 거사들은 연등을 밝히기 위해 사찰내에 전기선과 장엄물을 설치하며, 20여명의 보살들은 연등을 만든다. 바로 이런 율력도 영화사 신도들은 수행의 연장이라 생각한다.

이사현 신도회장(67)은 "영화사는 주지 스님이 계속 주석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할 때만 오신다"며 "특히 초파일 준비는 신도들이 일손을 모아 책임감을 갖고 4개월 전부터 하기 때문에 초파일을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자랑한다.

영화사 김복수 총무(70)도 봉축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일꾼(?)이다. 고희가 된 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찰 구석구석을 누비며 경내 청소와 보수공사를 한다. 또 사찰 운영에 필요한 물건과 부식을 사기 위해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춘천까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든다. 이렇게 봉축 준비는 물론 사찰운영까지 신도회가 주축이 되는 영화사에서는 매월 20일에 법회가 열린다. 현태증 관문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덕중 주지 스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한달에 한 번씩의 짧은 만남인지라 신도들이 주지 스님을 맞는 반가움은 더욱 크다. 특히 한달동안의 절살림과 신행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신도들은 법회날을 무척 기다린다. 이번 영화사의 초파일 행사는 전날인 18일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그동안 신도들이 애써 만든 2백여개의 연등과 코끼리 장엄물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또 초파일 당일날은 화천지역민들을 초청해 법요식을 치른다.

덕중 주지 스님은 "신도들이 낮에 농사 짓는 생업도 수행이고, 저녁때 사찰에 나와 봉축 준비를 하는 것도 수행의 연장이라고 항상 가르친다"며 "봉축행사 규모는 도심 사찰보다 작지만 봉축을 맞는 정성과 열정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천= 김주일 기자 jikm@buddhapia.com



◇주지 덕중 스님(가운데)과 영화사 신도 10여명이 일과가 끝난 저녁때 모여 연등을 만들고 있다.

거제도 봉축맞이

산사음악회로 축제 막 올라
체육대회·연합제등 행렬 계획



◇1일 거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 거제 청년회원들이 사물놀이를 공연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단 거제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거제도 불심이 모여 거제도 전역에 부처님 오신 참뜻을 전하며 예년 초파일때와는 확연히 다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거제대교가 육지와의 연결로가 되긴 하지만 섬 특수성을 간직한 거제도의 봉축 분위기는 소극적이고 침체됐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봉축 준비는 각 사찰단위로 조용히 진행될 뿐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지는 못했기 때문. 그런데 올해 거제도에는 새바람이 불었다. 거제 청년, 재가불심이 하나가 돼 초파일이 되기전부터 축제 분위기로 술렁인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거제시민을 위해 마련한 문화행사인 '제1회 거제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린 1일, 거제실내체육관은 아침부터 행사준비로 분주했다. 산사음악회를 기획한 계룡사(주지 지연)의 봉사단체 보슬회 회원들을 비롯 거제 불교청년회와 재가 불자들이 한마음이 됐다.

그러나 '산사음악회'가 처음부터 척척 진행된 것은 아니다. 처음 열리는 큰 행사이고 보니 기획단계부터 소소한 준비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거제 재가, 청년불자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작용해 거제거사림회, 거제불교청년회, 대우불교청년회, 보현법우회 등 청년과 재가 단체가 모두 음악회 준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고현, 옥포, 장승포 등 지역별로 나눠 활동 해오던 재가 불자들의 연합회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이번 봉축준비를 통해 거제는 승가와 재가의 화합된 힘으로 포교의 새 장을 여는 단초를 마련했다. "모든 불자들이 힘을 모아 거제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보슬회 안순남 회장은 "많은 거제 시민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음악회의 의미를 전했다.

양정식 거제시장을 비롯해 1천여명의 거제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범 스님의 찬불가, 가수 송춘희씨의 공연과 함께 보슬회, 장흥사 합창단의 합창, 승무, 시낭송, 금강유치원의 어린이 합창 등이 공연됐다.

이렇게 산사 음악회로 시작된 거제도의 봉축 행사에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초파일전까지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돼 체육대회와 연등만들기 등 갖가지 행사들이 열린다. 또 초파일 당일날에는 봉축 법요식과 연합제등 행렬이 봉행된다.

거제도= 천미희 기자

의정부 포교원

군불자중창단 음성공양준비 한창
"지원해준 신도들께 자비법음 '흠뻑'"

"매번 받기만 했던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마련한 음성공양을 신도님들께 드립니다."

의정부포교원(주지 혜승)의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신도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다. 19일 의정부포교원에서 20여명으로 구성된 군불자중창단의 음성공양이 바로 그것. 그래서 군불자중창단은 일요법회가 끝나면 곧바로 지도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맹연습을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늘과 땅위에 이보다 존귀한 이 없네' 등 여러곡의 음성공양을 불자들에게 선보인다. 법회 참석 외에 특별한 신행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장병불자들이 이번 이벤트(?)를 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가을 의정부포교원이 실시한 신도대상 설문조사에서 장병불자들의 희망사항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설문조사를 통해 장병불자들이 법회참석외에 또다른 신행생활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혜승스님이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음성공양을 생각해 냈다. 특히 장병불자들을 친아들처럼 챙겨주던 어머니 합창단 김명현 보살(45)은 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김 보살은 "의정부 포교원에는 어머니합창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불자들에게 찬불가 지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노래로 풀 수 있다면 신심도 돈독해 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신행활동이라 생각했다."고 군불자중창단 창단 동기를 설명했다.

김보살은 즉시 의정부포교원에 나오는 인근 군부대 장병불자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자 이 일은 급류를 타듯이 빠르게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군불자중창단을 창단한 김 보살과 장병 불자들은 봉축 준비의 일환으로 초파일 음성 공양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군인 신분인지라 훈련, 파견, 휴가 등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았고 마음놓고 연습할 장소 조차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안 혜승스님이 법당 내에 연습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찬불가를 지도할 지도교사도 주선해 주었다. 오영일 병장(23)은 "이번 초파일 법회때 그동안 군불자들을 후원해 주었던 신도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충실히 전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꾸미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의정부= 강유신 기자



◇일요법회가 끝난 뒤 나정원 지도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 연습을 하고 있는 의정부포교원 군불자중창단.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달마사 백련스님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울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강렬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퍼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영법, 12지료점 지료법
급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지료법, 동식물 지료법
약물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완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을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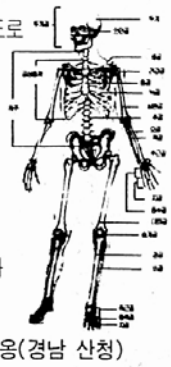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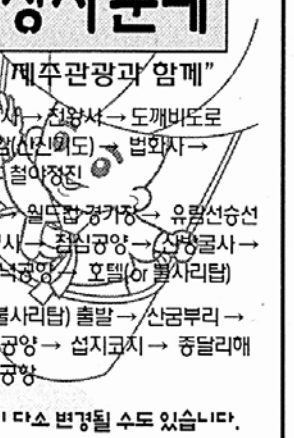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제주불교성지순례

"불교문화체험 제주관광과 함께"



1일 : 제주공항 도착 → 관음사 → 선왕사 → 도깨비도로 → 점심공양 → 존자암(산신제도) → 법화사 → 약천사 → 저녁공양 후 철야정진

2일 : 아침공양 후 사찰 출발 → 일도환경가장 → 유람선승선 → 마라도도착 기원정사 → 점심공양 → 산방굴사 → 소인국테마파크 → 저녁공양 → 호텔(or 불사리탑)

3일 : 아침공양 후 호텔 (or 불사리탑) 출발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점심공양 → 섭지코지 → 중달리해안도로 → 불탑사 → 공항

※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출발지	숙 박	요금(원)	포 함 내 역
서 울	사찰 1박, 호텔 1박	219,000	✲ 왕복항공료 ✲ 호텔 1박 (4인 1실) ✲ 공양비 (사찰공양비 포함) ✲ 관광지 입장료 (유람선료 포함) ✲ 차량료 ✲ 주차료 ✲ 여행자보험료 (최고 5천만원)
	사찰 2박	204,000	
부 산	사찰 1박, 호텔 1박	188,000	
	사찰 2박	173,000	
대 구	사찰 1박, 호텔 1박	197,000	
	사찰 2박	182,000	
광 주	사찰 1박, 호텔 1박	187,000	
	사찰 2박	172,000	
청 주	사찰 1박, 호텔 1박	203,000	
	사찰 2박	188,000	
군 산	사찰 1박, 호텔 1박	187,000	
	사찰 2박	172,000	

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다도문화기획·투어
TEL. 064)724-1185~6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제 2 교 구 본 사

효 찰 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락
총 무 성 호
교 무 성 무
재 무 성 직
호 법 법 승

대 중 일 동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031)234-0040 FAX(031)234-2818

제 3 교 구 본 사

설악산 **新 興 寺**

회 주 설악 무산
주 지 석 마 근

대 중 일 동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장사 룸비니어린이집
- 연꽃어린이집
-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신도림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재단
- 만해 의상연구
- 장학생지원
- 각종 학술세미나 지원

⊙설악산 향성선원
⊙신흥사 불교대학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033)636-7044, 7393 FAX (033)636-7556

제 4 교 구 본 사

오대산 **月 精 寺**

회 주 인 허
주 지 현 해

대 중 일 동

(232-941)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033)332-6661,2,4,5 FAX (033)332-6915
■ 오대법보 편집실 ☎(033)333-6296
■ 월정사 성보박물관 ☎(033)334-1817
■ 월정사 진부 연꽃유치원
월정사 진부 연꽃어린이집
☎(033)335-8853~4
■ 월정사 서울포교당 법종사(재단법인 성찬회)
☎(02)905-6666,995-6777

제 5 교 구 본 사

속리산 **法 住 寺**

주 지 석지명
부주지 무 상
기 획 지 원
교 무 혜 도
재 무 각 원
포 교 원 일

사 부 대 중 일 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종무실 ☎ 043)543-3615, 543-8655
원주실 ☎ 043)543-4755 FAX(043)543-3620

제 6 교 구 본 사

麻 谷 寺

주 지 진 허
부주지 대 진

총 무 진각 기 획 승 일
교 무 원경 재 무 노 휴
호 법 혜철 사 회 탄 우
포 교 승 하 선원장 정 찬

신도회장 김수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041)841-6221 FAX (041)841-6222

제 7 교 구 본 사

덕 숭 총 림 **修 德 寺**

방 장 원 담
주 지 법 장

총 무 지 운 기 획 보 정
교 무 수 암 재 무 정 묵
포 교 정 암 사 회 홍 범

총 림 대 중 일 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041)337-6565(대) FAX(041)337-0072

제 9 교 구 본 사

팔공산 **동 화 사**

조 실 진 제
주 지 성 덕
총 무 지 우
교 무 응 각
재 무 혜 안
사 회 성 묵
포 교 종 본
호 법 혜 성

금당선원
선원장 지 환

승가대학
강주 해 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FAX(053)984-4405

제 12 교 구 본 사

해 인 총 림 **海 印 寺**

방 장 도림 법전
주 지 수봉 세민

총 림 대 중 일 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055)931-1001~3 FAX(055)931-1010

제 15 교 구 본 사

영축총림 **通 度 寺**

방 장 노천 월하
부방장 초 우
주 지 현 문

총무국장 산 옹 교무국장 정 도
재무국장 보 화 포교국장 오 심
사회국장 신 공 호법국장 확 철
원 주 지 범

총 림 대 중 일 동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5)382-7182 FAX(055)382-7196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제 16 교구본사

孤雲寺

회 주 현봉 근일
주 지 청암 법조

총 무 정 우 기 획 법 운
교 무 성 공 재 무 성 오
사 회 법 광 포 교 해 득
호 법 혜 봉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054)833-2324 FAX(054)834-6935

제 17 교구본사

모악산 金山寺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평 상
부주지 원 행

총 무 일 화 기 획 일 원
재 무 방 착 교 무 화 평
호 법 원 성 포 교 덕 기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063)548-4441~4 FAX(063)548-1390

제 18 교구본사

고불총림 白羊寺

방 장 서 옹
주 지 다 정

대 중 일 동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061)392-7502

제 21 교구본사

松廣寺

방 장 범일 보성
주 지 현봉

대 중 일 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61)755-0108

제 22 교구본사

大興寺

조 실 천 운
주 지 보 선

대 중 일 동

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구림리799
☎(061)534-5502

제 25 교구본사

奉先寺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두산 일면

사 부 대 중 일 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031)527-5974 FAX(031)527-1958



제11교구본사

佛國寺

주 지 성 타
부주지 종 상

총 무 장 주 교 무 종 천
재 무 정 문 사 회 신 행
포 교 정 법 호 법 정 견
선원장 종 우

대 중 일 동

부설 불교교육원, 불국사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선재어린이집, 룸비니어린이집, 분당포교원성림사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 (054)746-9912~3 FAX (054)746-1476

간병·호스피스 봉사단 잇달아

천태종,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발족·활동

고양시불교사원련, 천수천안 봉사단 창단



◇4일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창립식에 앞서 천태종 복지재단 정책실장 시용스님이 '장례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간병 및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이 천태종과 고양시 불교사원연합회에서 잇달아 창립됐다.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말기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인 '호스피스'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4일 전문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창립했다. 종단차원의 자원봉사단 창립은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다.

천태종복지재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관문사에서 실시하고 40여명으로 구성된 제1기 "니르바나 자원봉사회"(회장 정착식)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천태종은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성과 불심을 갖춘 자원봉사단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소 사무소가 있는 부산 삼광사와 대구 대성사 자원봉사단 등 사찰 자원봉사회 연합도 결성,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비행을 펼칠 계획이다.

천태종복지재단 정책실장 시용스님은 "앞으로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불교호스피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임종환자 및 말기환자를 위한 각종 보호(care) 프로그램의 전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불교사원연합회(회장 홍선, 무량사 주지)는 11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광명사, 흥국사, 성보사, 자비정사 등 고양시내 10개 사찰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한불교 천수천안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선스님은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간병이나 호스피스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물게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창립된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의 활동분야는 이·미용, 차량보조 등 간병봉사와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를 비롯해 정서봉사(말벗, 상담, 안부전화 등), 행정봉사, 학습봉사(결손가정, 장애아동 대상), 인터넷 검색, 가사봉사(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봉사 등), 특기봉사(생활체조, 수지침, 발맛사지 등) 등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창립된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은 6월부터 간병 전문교육과정, 발반사요법 및 한방요법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 봉사단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031)969-010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온 가족이 '포교사'

"포교의 출발지는 가정 가족간 화목이 원동력"

"포교의 출발지는 가정입니다.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불교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거죠. 굳이 포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가족부터가 불자로서 하나가 될 때 가족간의 화목은 물론 포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포교사로서 사회 속에서 배운 바를 회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오경화(42)·김대권(46) 부부의 말이다. 오경화·김대권 부부의 가정은 3대가 모두 불교를 믿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다. 아직 철모르는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 아이는 물론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아이까지도 108배를 능히 해낸다.

오경화 포교사는 결혼하기 전 종교가 없었다. 결혼 후 신심이 두터웠던 시부모님을 통해 본 불교에서 매력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동산불교대학에 입학, 공부를 시작했다.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부모님의 삶을 보고 스스로 불교를 접하게 됐으니, 시부모님의 포교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불교를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은 불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단다.

96년 불교대학을 졸업한 오 씨는 남편 김 씨와 함께 부부 포교사가 됐다. 오 씨 부부가 선택한 포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복지관 자원봉사를 통한 포교도 벌써 6년째다.

"가족의 후원을 바탕으로 남편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서로 뜻이 통하니까 부딪칠 일이 없거든요. 더 큰 사랑을 키울 수 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더라구요." 온가족이 함께 불교를 갖고 포교활동을 하는데서 얻는 장점을 오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박세만(61)·김구월(56) 부부는 세아들을 둔 포교사 가족이다. 박세만 포교사는 자영업을 하며 틈나는 대로 향림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사찰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부인 김구월 포교사도 향림사 합창단장으로 활동하며, 남편 박세만 포교사와 함께 향림사 사찰안내 포교를 벌이고 있다. 박세만 포교사는 개신교 신자였다. 하지만 불심이 깊은 아내 김 씨의 권유로 불교를 접한 후 불교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부가 함께 포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들 부부의 포교활동에는 가족들의 든든한 후원이 따르고 있다. 세 아들 중 큰아들 진의(33) 씨와 막내아들 주현(34) 씨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직장에서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의·주현 씨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무언의 포교를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였던 며느리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 큰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불교대학을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박세만·김구월 부부의 가족은 모두 불자가 됐다.

박세만 포교사는 "함께 신행을 하니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돼 가족사랑이 두터워지고 화목해진다"며 "온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찰에 갈 때면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오경화·김대권 부부와 박세만·김구월 부부의 사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포교가 가정의 화목과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박봉영 기자

한·미얀마 친선교류협 발족

명예홍보대사 홍파스님·박찬수·김홍국씨

한국·미얀마 친선협회(회장 혜은스님)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미얀마의 날' 선포식을 갖고 곤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박찬수 동아불교박물관장, 가수 김흥국, 이은하씨와 재가불자인 박종성씨 등 5명을 홍보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우 뉴망쉐인 주한 미얀마 대사와 송 본상 미만붓 태국 대사, 다토압 나만하이드 부루나이 대사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회원들은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등을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비구니회 법룡사 만불전 봉불식

사부대중 1천명 참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4일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법룡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룡사 만불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광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비구니들의 염원인 회관건립을 계기로 비구니 스님들의 지도력을 키워 포교와 사회복지활동에 앞장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 한나라당 불자회 합종한 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만불 점안식'에 이어, 2부 '봉불식'에서 고산스님의 법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총무부장 원택스님 대독),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과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축사, 한마음선원합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국비구니회가 최근 비구니스님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비구니회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종헌 종법의 개정(35%), 비구니의 지도력 증대(15.8%), 비구니 교육 강화(14.3%), 비구니의 종단활동 강화(12.9%), 비구니 조직 강화(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구니 위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구 스님들의 잘못된 인식(55.6%), 현실에 부적합한 계율상의 문제(19.2%), 종헌 종법상의 문제(8.6%)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활동(47.4%), 포교활동(19.9%), 신도교육(12.5%) 등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한 비구니 대학원 설립과 관련 58%가 찬성을 표했으며, 대학원 설립유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44.2%), 단기 대학원과정(33.4%), 종단 인정 승가대학원(19.9%) 등으로 답했다.

김재경 기자



◇7천여 비구니스님들의 수행·포교·교육도량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4일 거행된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봉불식에서 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5일 3천여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논산훈련소 봉축기념 법회.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봉축법회·교육관 기공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축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기념 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법어를 통해 "훈련소의 훈련이 고되고 힘들겠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 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장곡스님(갑사 주지), 김길연 28연대장 등과 3천여명의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는 육군훈련소 이광희 소장의 축사와 불자가수회의 위문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이 염주와 과자 등이 들어있는 5천여 개의 '자비의 선물'을 훈련병들에게 나눠줬다. 이와함께 봉축기념법회가 끝난 뒤에는 호국연무사 옆 150여평 위에 세워질 교육관 신축기공식도 열렸다.

김재경 기자

관음종 열쇠부대 종각 OP 점등식



관음종은 8일 저녁 중부전선 5사단 열쇠부대 통일각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민족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종각OP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법회에는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관음종 스님들과 5사단장, 군지휘관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625개의 연등이 점화되는 순간 그 밝은 빛이 북한땅의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고루 비추기를 기원했다.

"사찰문화재관람료 600원 환불"

전주지법 원고승소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병식)는 8일 우모(전주시 삼천동)씨가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당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담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 마이산 관광도로가 경내를 통과하는 만큼 마이산 탑사 관람료 600원의 징수는 정당하다며 탑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마이산을 찾았을 뿐 사찰(금당사)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광로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찰공간과 공원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우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이산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200원을 함께 지불한 뒤 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경숙 기자

키르키즈스탄 극빈자 등에 구호품

법웅스님, 해제때마다 참선지도·포교도



제방 선원에서 25년간 안거를 지낸 수좌 법웅스님(전국선원수좌회 실행위원)이 9년전부터 해제 때마다 키르키즈스탄에서 참선을 지도하고 불우이웃을 도와 화제다.

법웅스님(사진 오른쪽)은 2일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수도 비쉬켁시 '우정의 건물'에서 마련한 '마음 나누기 행사'에서 고아원, 극빈자 등을 위해 200포대의 쌀과 1500명분의 기생충약, 3대의 물리치료기를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스님이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해제 때마다 지도해 온 보리사불자회(회장 김 왕레리 니콜레비치) 주관으로 열렸다. 7일 귀국한 법웅스님은 "쌀 한 숟가락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공양하는 전통적인 가반(加飯) 의식을 본받아, 구호품을 전달했다"며 "수좌들도 해제 때에는 포교와 보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우뚝으뜸상 받은 박정은 양의 작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부처님 마음에 담았어요"

부처님그리기 대상 박정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만큼 부처님을 마음에 담아 그렸어요."

월간 <불광>과 봉은사, 목아박물관이 5일 봉은사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뚝 으뜸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박정은 양(평택 부용초 5년). 연꽃을 한 아름 안은 부처님을 그린 박 양은 "부모님의 건강과 훌륭한 경기민요 국악인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부처님 얼굴에 담았다"고 말했다. 평택 용호사 신도인 어머니 홍은미(39) 씨는 "정은이가 5년 전에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만 4번씩이나 받았다"며 "귀에 튜브를 끼는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받게 되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안동 봉정사에 '작은 극락전'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국내 최고(最古)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을 축소한 '작은 극락전'이 선보였다.

봉정사는 최근 지역 고건축 전문가 민영기(31, 안동시 정하동)씨가 현재 보수공사로 관람이 불가능한 극락전의 10분의 1 크기(가로 140cm, 세로 100cm, 높이 80cm)로 모형을 제작해 기증함에 따라 이를 극락전 앞에 설치했다.

풍역안내원인 홍수경씨(사진)가 건축구조에 대한 해설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불교대학원대학 9월 개교

교육부 인가, 석 · 박사양성…포교사 등 전문인력 배출

불교학 등 3학과 20일부터 원서접수
재학생 장학금 · 우수생 해외유학
불교안양원 납골시설 영각당 개원

불교계 처음으로 불교대학원대학교가 문을 연다.

불교안양원(이사장 덕해)은 지난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오는 9월 1일 개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학부과정 없이 석 · 박사만 양성하는 단설 전문대학원으로, 앞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상담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포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불교안양원은 현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번지에 연면적 530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학사를 마련해 놓았으며, 대학 행정실, 강당, 강의실, 교수 연구실, 체육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불교안양원은 앞으로 1회 졸업생이 배출 될 2004년에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서울 진관외동에 대지 3천평, 건평 1천 평의 새 캠퍼스를 마련해 이전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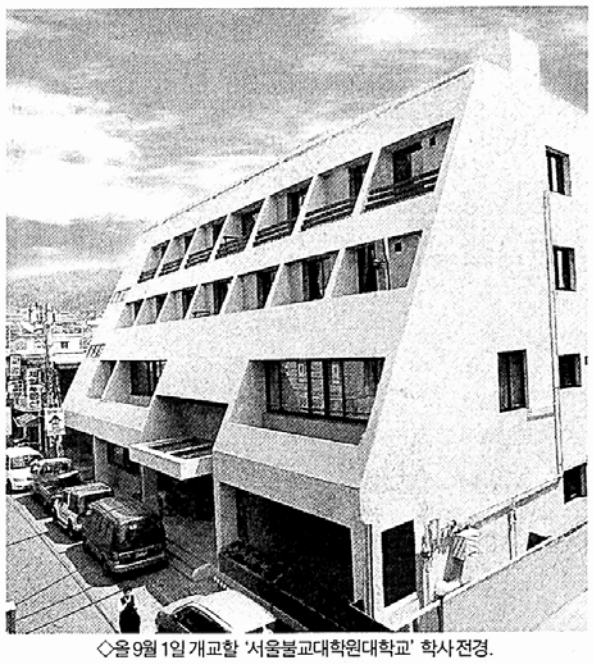
이번 달 20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3개 학과에 총 50명을 모집하며, 재학생 대부분에게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해외유학 파견, 연구 성과물 출판 지원 등 교수 · 학생의 연구활동지원은 물론, 임대주택 제공 등 복지혜택도 주는 등 최고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불교안양원은 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납골시설인 영각당을 개원했다. 대지 1천 평, 건평 5백 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원형 건물로 건립된 영각당은 납골 1만2천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총 공사비만 40억 원이 들어갔다. 2000년 8월 안양시로부터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고, 2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준공된 영각당은 이 지역 납골 수요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선도할 전망이다.

불교안양원은 영각당을 건립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아래 시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 및 교육 사업 등에 회향할 계획이다.

지난 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을 인수, 대전 보문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2000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불교안양원은 이번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영각당을 개원함에 따라 교육 · 복지사업에 있어 확고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올9월 1일 개교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사 전경.

성우원서 사은행사

부산불교자비원 · 후원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 성우원(원장 김창숙)에서 뜻깊은 사은행사가 열렸다.

20년전부터 성우원을 방문, 봉사활동과 후원을 지속해온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과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선) 회원들이 10일 연제뷔페에서 성우원 선생님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한 것. 부모없는 장애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성우원에는 40여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지도를 맡아 부모와 형제의 정을 대신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날 성우원 김창숙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니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종로일대 전통문화지구 보존 필요

조계사 역사적 가치 대중에 알려야

조계사 포럼 개최

최근 도량을 정비하고 일주문 불사 계획을 진행하는 등 시민문화공간이자 종로일대의 역사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계사가 이와 관련한 주제의 포럼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7일 소설법전에서 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상구(경기대 교수), 강임산(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씨 등이 포럼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인근지역의 역사 · 지리적 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나각순씨(서울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는 조계사가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배경과 역사성을 설명한 뒤 "조계사의 모든 활동은 민족문화를 창출하고 국민정신을 계도해 국민과 함께 어우러졌던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 ·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임산씨는 질의 및 토론에서 "조계사가 전통문화지구인 종로일대의 역사 · 지리적 핵심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보강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조계사보나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종로와 조계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대웅전 앞 24층 주상복합빌딩 건립 등 최근 조계사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층빌딩 건립 논란과 관련해 "종로와 조계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홍스님은 "이 지역은 서울 역사문화의 중심축"이라고 전제하고 "조계사 일대는 조계사뿐만 아니라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로서 마땅히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신계사 복원 · 단청지원 추진

종단협 · 조불련 남북교류창구 단일화

남북불교교류 창구가 남측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단일화된다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종단협대표단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불교교류 창구를 종단협과 조불련으로 단일화하여 동포애적인 참 보시행의 관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창구단일화의 의미에 대해 양산스님은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의미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대북불교교류를 할 경우 종단협을 통해 조불련 접촉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사찰 단청불사와 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월 신계사 탑 보수시 양측이 만나 신계사 복원문제와 단청지원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불교대표단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존중 및 실천 △평화통일 노력 다짐 △상호교류 협력 강화 △부처님 오신날, 6.15, 8.15말 남북동시법회 추진 및 공동발원문, 축원 발표 등에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8일 당진 안국사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어르신 공경하자" 경로잔치

법상종 충남교구, 18개 마을서 400명 참석

대한불교법상종 충남교구(원장 원상 · 안국사 주지)는 불교유적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을 공경하자는 뜻에서 8일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었다. 충남 당진군 안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상종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김낙성 당진군수를 비롯해 정미면 18개 마을 노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국사는 지난해 12월 안국사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학술조사를 마치고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여수령 기자

이웃위한 희망의등 밝히기

월드컵기간까지 2002개

합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일, 백운암 주지)가 합양군청(군수 정용구)과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에 나섰다.

합양불교사암연합회는 9일 군청앞에서 '국민태안, 월드컵성공기원, 군민화합을 위한 자비의 등을 달아줍시다'라는 주제로 점등식을 봉행하고, 당일 모연금을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전달했다. 합양사암련은 이후 행사기간 중 등 접수비 및 모연금도 전액 불우이웃에게 회향키로 했다. (055)963-2471

김재경 기자

'천성산 사랑하는 모임' 발족

월1회 현지답사 · 생태연구 등 '산' 살리기

임도개설, 고속철 통과로 위협받고 있는 천성산. 그 천성산의 가치를 생태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할 모임이 만들어진다.

10일 결성 준비모임을 가진 '천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내의 환경전문 교수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천성산의 생태적 가치를 연구,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무실로 사용될 내원사 입구의 토담집에서 열린 준비모임에는 내원사 지율스님, 이병인 밀양대 교수, 정우규 박사, 울산생명의 숲 가꾸기,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천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월1회 천성산 답사, 생태문제 연구 등을 통한 천성산 알리기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불자의 생각

관혼상제



"경우에 따라 불교식으로" 57%

불자들은 가정의 관혼상제(성인식, 결혼, 장례, 제사)를 대체로 불교식으로 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57명(57%)이 경우에 따라서 한다, 21명(21%)이 가정에서는 안하고 사찰에서 한다, 9명(9%)이 반드시 한다, 13(13%)명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관혼상제를 불교식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1명(41%)이 형편에 따라 자유다, 29명(29%)이 해야한다, 24명(24%)이 사찰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한다, 6명(6%)이 하지않아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극락불토 수미산 영가 천도제 참가단 모집

철마년이란?

12년에 한번 돌아오는 업장소멸의 해로
올해가 철마년(鐵馬年)입니다.
이 해에 수미산에서 수행을 하면
업장이 소멸됨과 함께 12년의 공덕을
얻는다 하여 지금 수미산은
대만, 일본, 태국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불교신자들로 붐빕니다.



행사 일정 (본 행사는 수미산 행사 외 티벳, 네팔 순례를 겸합니다)

5월 28일 오후 7시 경 인천공항 집결- 중국 성도 도착
5월 29일 성도 - 티벳, 라싸 포탈라, 철방사 순례
5월 30일 라싸, 장체, 시가체 쿰붐, 백탑사 순례
5월 31일 타쉬룬포 순례, 라체로 이동
6월 1일 라체, 시가순례
6월 2일 사가 수미산 입구 파양 순례
6월 3일 수미산 순례
6월 4일 수미산 영가천도제, 성호 마나사로바 순례
6월 5일 수미산 개별 자유 수행 순례
6월 6일 사가, 장무 도착
6월 7일 장무, 코다리사원 순례, 네팔 카트만두
6월 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팔 몽키탬플, 보다니뜨, 박타풀 순례
6월 9일 카트만두, 상해 거쳐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11시경 인천 도착(12박 13일)

- **참가대상**: 본 행사는 스님 외 속인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인솔하는 속인은 가능합니다)
- **참가비용**: 275만원(현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참가문의**: (02)722-8121~5 팩스(02)734-3565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5월 18일(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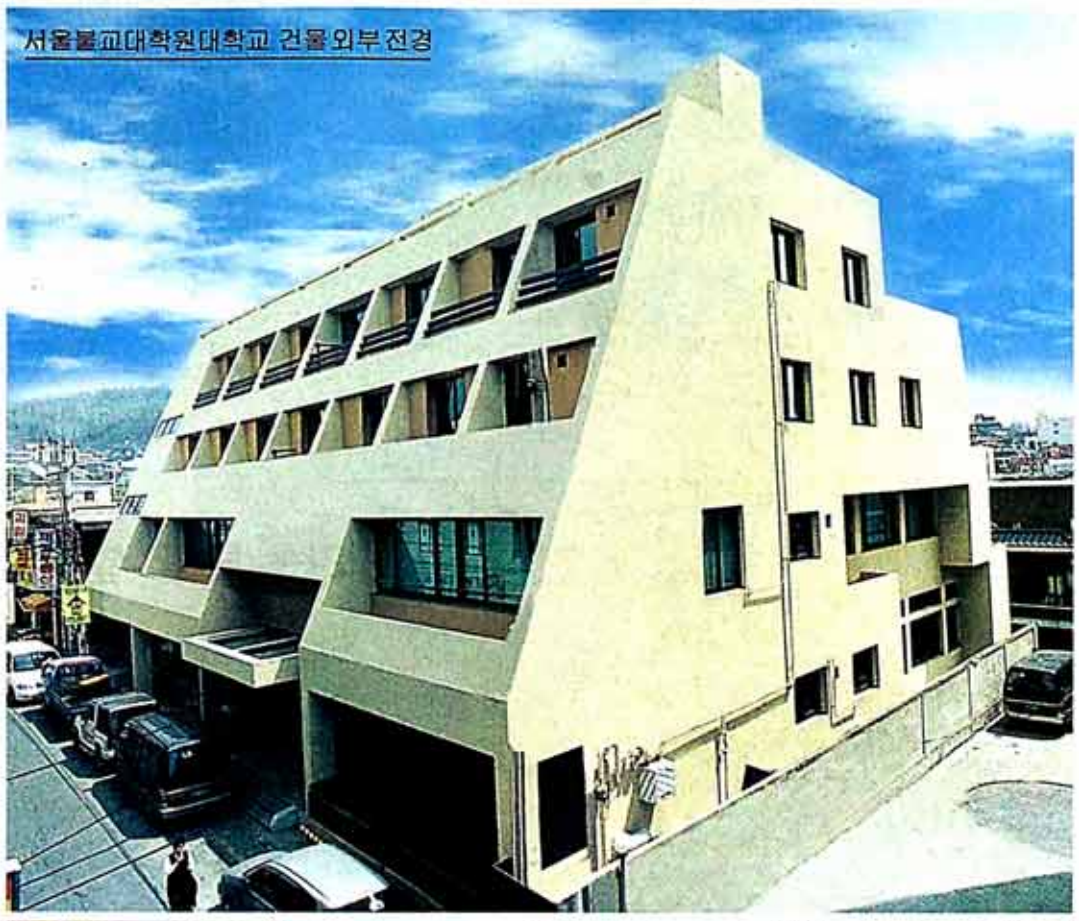
※본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우신 스님들께서는 하안거 직후의 2차행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철마년(鐵馬年) 맞이 수미산 영가천도제 준비위원회

▣ 천도제집전 · 대운사(大雲寺)주지 智雲스님 및 순례참여 주지스님 동참 (영가천도를 원하시는 스님들은 영가를 준비하신 후 동참하시면 됩니다)
▣ 주관 · 천도제 준비위원회, 세계일류여행사(문화관광부 주최 한국여행상품전 '금상' 수상, 2001년 티벳 송출 1위 여행사), 中國城都여행사, 티벳과학기술여행사, 네팔카트만두에코여행사

불교계 최초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건물 외부전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불교와 사회복지 · 상담심리 등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지혜의 계발과 자비심의 함양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 연구과정 학생모집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Ⅰ.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50명, 연구과정 - 약간명

Ⅱ.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신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5. 20 (월) ~ 6. 05 (수) (www.sgsb.ac.kr)
2. 전형일시 : 6. 8 (토) 10: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입학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Ⅳ.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급
2. 상임연구원 선발 각종 혜택 부여
3.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4. 성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각급 학교 교사 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산하 각 사찰 법사로 채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거나 본교 홈페이지(www.sgsb.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808-3321, 6582, 6584, 6585 Fax (02) 808-6581

◆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 석사과정 · 연구과정 외에 특별과정, 사회교육원도 운영할 예정임

※ 대학원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 없이 석 · 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말함.

본 대학원대학교의 운영재원으로는 학교법인 보문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이외에도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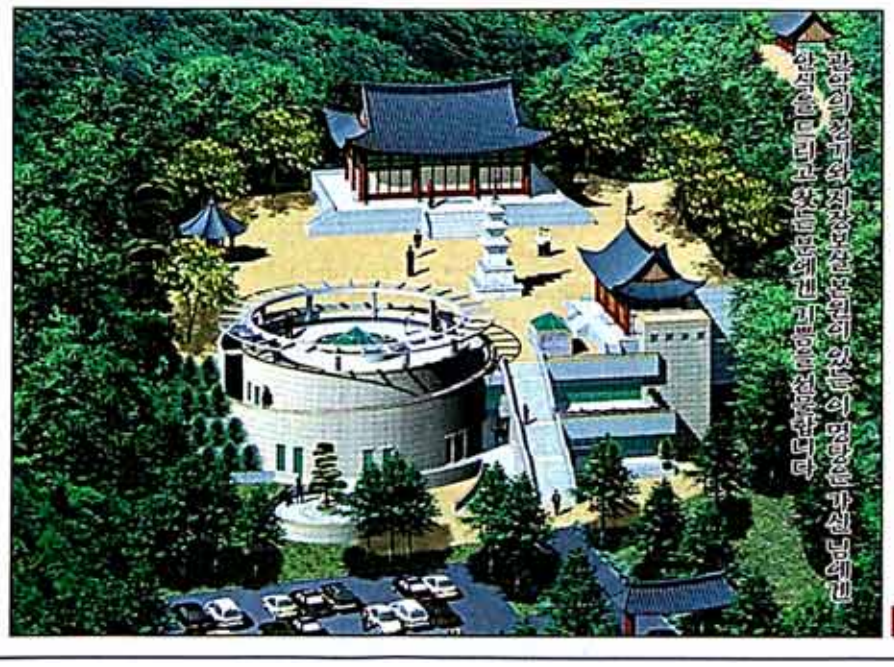

도서관 강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대학 행정직원 채용공고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가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본교와 함께 도약의 꿈을 펼쳐갈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Ⅰ. 모집 부문 및 인원	1) 학사담당 : 0명 2) 회계담당 0명
Ⅱ. 지 원 자 격	1) 사립대학 직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불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자. 3)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컴퓨터 사용 능숙한 자
Ⅲ. 제 출 서 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이력서 상단 지망부문 명기) 2)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통
Ⅳ. 모 집 기 간	2002. 5. 20 (월) ~ 5. 25 (토) 09:00 ~ 17:00
Ⅴ. 전 형 방 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Ⅵ. 서류제출처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808-3321, 6582, 6584, 6585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준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양 보장사가 납골당을 준공(2002. 4. 29)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영각당 특징

◆ 효와 휴식을 함께
- 수도권 납골당 중 가장 가까워 생각나면 언제라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안양 유원지 바로 옆 : 전철 관악역에서 도보로 10분, 우면산 터널 개통시 강남 · 서초 바로옆이 됩니다)
- 수려한 관악산과 쾌적한 영각당은 찾는 분의 마음에 위안을 드립니다.
- 자체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에 불편이 없습니다.

◆ 세련된 인테리어, 경건하고 따사로운 분위기
- **보장사 영각당**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신 님과 찾는 분에게 평온함을 드립니다.
- 자연 채광으로 밝고 아늑합니다.
- 원형의 공간은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이 쉽습니다.

◆ 품위있는 납골단을 선보입니다
- 최고급 대리석을 아름답게 디자인한 납골단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 영원히 안전하게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첨단 관리 시스템
-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 · 운영합니다. - 사이버 영상관을 통하여 추모를 체험합니다.
-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합니다.

영각당 분양 안내

◆ 보장사 영각당 신청안내
- 신청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 전 후에도 가능합니다.
- 접수는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회원의 편의와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희망시 장례에서 납골까지 모든 절차를 영각당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600대 주차가능

◆ 문의 및 안내
- 안양 보장사 영각당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471-3322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TEL 02)808-3321
  http//www.bojangsa.co.kr
  E-mail : bojangsa@chollian.net

※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